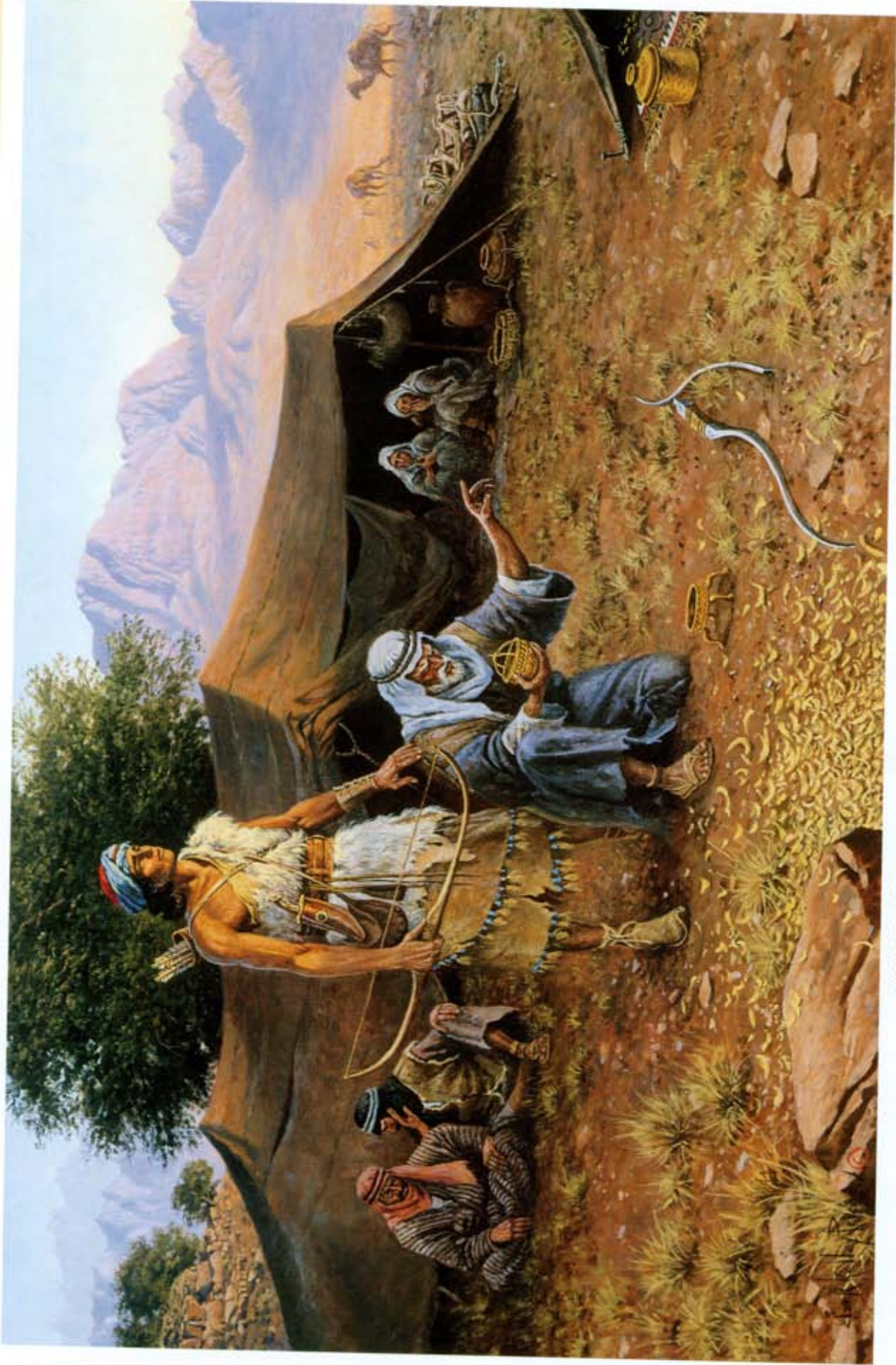


# 리아호나





**너희가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플라크 켈리 프라이스**

"그 후 나 니파이는 나무로 화살을 만들고 검은 막대로 화살을 만들어, 활과 화살과 돌과 투석기로 무장을 갖추고 나서 나의 부친께 내가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이까 하였더니"(니파이일서 16:23; 또한 교리와 성약 38:30 참조)

# 리아호나

## 2 제172차 반연차 대회 보고

### 토요일 오전 모임

- 4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할 수 있다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7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엘 톨 페리 장로
- 10 예언자의 음성으로 축복 받는 세계적인 교회  
다이어트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13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즐거움의 소리  
플린 케이 멘러브 자매
- 16 "사랑의 필"에 인거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19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2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4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26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30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랜스 비 워크맨 장로
- 33 회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  
로버트 케이 델리버츠 장로
- 36 봉사하라는 부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39 "화명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러셀 엠 넬슨 장로

### 신권 모임

- 42 스테이크 축복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46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49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53 잠잠하라, 고요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6 신권 형제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60 떠라야 할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7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71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73 신앙의 여성  
마가렛 디 네이폴드 자매
- 75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78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82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조셀 비 워스린 장로

- 86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89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케네스 존슨 장로

- 92 즐거움과 행복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 94 시온에 모두 오라  
키스 비 맥얼린 감독

- 97 아빠, 깨어 있으세요?  
에프 멜빈 허먼드 장로

- 99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성호 부조회 총회

- 101 비디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 103 거룩한 마음으로  
보니 디 파킨 자매
- 106 성약을 통해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 108 사랑: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앤 시 핑그리 자매
- 110 여러분은 모두 하늘에서 보내졌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15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 116 참고 지도서

- 120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1 교회 소식



## 제172차 반연차 대회 보고

### 2002년 10월 5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벤 비 벵크스 장로, 폐회 기도: 리차드 디 올레드 장로, 음악 제공: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크레이그 제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찬슨, 찬송가 55장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78장 "은밀한 기도", 어린이 찬송가 40장 "주 예수를 달으려고", 찬송가 14장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53장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70장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 2002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찰스 디디에이 장로, 폐회 기도: 아토스 엠 에모링 장로, 음악 제공: 헌터 지역(솔트레이크시티) 스테이크의 가족 합창단; 지휘: 제이리드 엘 던, 오르간 반주: 린다 마기즈, 영어 찬송가 48장 "Glorious Things Are Sung of Zion", 영어 찬송가 244장 "Come Along, Come Along", 찬송가 36장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영어 찬송가 286장 "Oh What Songs of the Heart".

### 2002년 10월 5일 신권 모임

감리 및 사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개회 기도: 린지 로빈슨 장로, 폐회 기도: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주 프르보 스테이크의 아론 신권 합창단; 지휘: 앤드루 크레인, 오르간 반주: 존 퉁허스트, 찬송가 199장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찬송가 181장 "예수님은 구원 반석", 찬송가 43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어린이 찬송가 92장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 2002년 10월 6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및 사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개회 기도: 엘 엠 몬슨 장로, 폐회 기도: 린 에이 미켈슨 장로, 음악 제공: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크레이그 제십,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찬송가 27장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91장 "푸른 물에 소리없이", 찬송가 8장 "아름다운 시은 위에다", 찬송가 32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5장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16장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 2002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해롤드 지 힐렘 장로, 폐회 기도: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 음악 제공: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크레이그 제십, 마로우 브레드포드, 오르간 반주: 보니 구드리프, 린다 마기즈, 찬송가 56장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30장 "슬픔에 잠긴 나그네" (독창: 존 프래더, 플루트: 지니 고에케리츠, 하프: 터마리 오우절드),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25장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보니 디 파킨, 개회 기도: 셸리 에프 세인즈, 폐회 기도: 엘리슨 바로우, 음악 제공: 유타 주 로즈 파크와 솔트레이크시티의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합창단; 지휘: 모뉴 해리스, 오르간 반주: 보니 구드리프, 찬송가 55장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로빈슨: "May I Serve Thee", 찬송가 146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31장 "되는 듯한 하나님의 영".

### 연사들(가나다 순)

고든 비 힝클리 4, 56, 78, 99  
 닐 에이 맥스웰 16  
 델린 에이치 옥스 67  
 데이비드 비 헤이트 24  
 디 토트 크리스토퍼슨 71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10  
 랜스 비 위크먼 30  
 라셀 엠 넬슨 39  
 로버트 디 헤일즈 26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33  
 리차드 지 스코트 86  
 마가렛 디 네이들드 73  
 보니 디 파킨 101, 103  
 보이드 케이 패커 42  
 엘 시 핑그리 101, 108  
 에스 맬린 하몬드 97  
 엘 톰 페리 7  
 엠 러셀 벨라드 46  
 제임스 이 파우스트 19, 49, 110  
 제프리 알 휴먼드 36  
 조셀 비 워스런 82  
 캐서린 에이치 휴즈 101, 106  
 케네스 존슨 89  
 클린 케이 맨러브 13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92  
 키스 비 맥밀런 94  
 토마스 에스 몬슨 22, 53, 60  
 헨리 비 아이어빌 75

### 연차 대회 카세트테이프, CD 및 DVD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카세트테이프, CD 및 DVD는 일반적으로 대회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www.kds.org](http://www.k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대회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앞: 사진 촬영, 탐라 에이치 라티에타  
 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 대회 사진

이번 호에 나오는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그 다이몬드, 제드 에이 클러크, 웰튼 시 앤더슨, 존 록, 로버트 케이시, 마크 헤이든그린, 켈리 라슨, 탐라 에이치 라티에타, 매튜 레이다, 크리스티나 스미스가 촬영했다.

리아호나는 일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옌슨, 제임스 이 피우스트

**심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해커, 앨 플레리, 데이비드 비 해이, 닐 에이 엑스웰, 리셀 엘 넬슨, 앨런 에이치 욱스, 앨 리셀 발라드, 조셉 비 욱스, 리처드 차스코프,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장:** 데니스 비 노인슈타인

**고문:** 제이 엔트 슬리, 대릴류 볼프 커, 스티븐 에이 욱스

**교과 과정부 간지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켈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엘 플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일 요이브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엘 그렌무드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리자 앤 채슨

편집 보조: 수전 브렛

출판 보조: 클리프 네베커 오모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앨 엠 가워시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번 캠퍼

신앙 디자이너: 세라 쿡

디자인어: 토마스 에스 차임드, 캔들 제이 욱스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제지널드 제이 크리스틴슨, 데니스 카비, 엘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피크스, 케리 에이 로드, 클리우디야 이 아이

디자인 교장 인쇄: 제프 미번

**인쇄 및 배부:**

인쇄 책임자: 제이 대릴류 브릭스

배부 부장/구독: 크리스 티 크리스틴슨

통 권: 제 438호, 제 39권, 제 11호

통 록: 1967년 10월 4일, 리-3166

발행일: 2002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문환

편집인: 정동진

발행소: 일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로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광고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차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차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차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차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역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고문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iahona-imag@ldschurch.org

일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랍어, 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방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힐리계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라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시리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November 2002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1-3413)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주제 색인**

가르침 13  
가정 99, 103, 108, 110  
가정의 밤 56  
가족 36, 97, 99, 106, 108, 110  
간증 24  
감사 24  
개혁자 10  
결과 86  
결심 60  
결혼 7, 97  
겸손 60  
관용 19  
교회 부름 36, 42, 67, 75  
교회사 4, 101  
구원의 계획 92  
그리스도의 빛 89  
가쁨 13  
나부 성전 4  
낙천주의 60  
단합 71  
도덕 53, 56, 106  
두려워 하지 않음 73  
모범 60  
봉사 19, 36, 49, 67, 75, 108  
부부의 역할 30  
부부 선교사 67  
부정직 53  
바이기심 19  
빛 53, 56, 82  
사랑 30, 39, 94, 97, 103, 108  
사랑(Charity) 108, 110  
상호부조회 101, 110  
선교사 46, 56, 67  
성신 16, 71, 75, 89  
상약 103, 106  
성전 사업 4

성전 추천서 56  
세계적인 교회 10, 78  
속죄 10, 33, 71, 86  
순종 26, 60, 67, 92, 103  
슬픔 30  
시온 94  
신권 7, 49  
신뢰 73  
신앙 26, 30, 60, 73, 78, 82  
십일조 26  
아버지의 역할, 46, 97  
양심 53, 89  
어린이 13  
여성 73, 101, 108, 110  
역경 16  
영감 89  
영구 교육 기금 56  
예수 그리스도 13, 16, 24, 33, 78  
예언 42  
예언자 10  
요셉 스미스 33, 78  
욕심 19, 53  
용기 60  
용서 39, 86  
유순함 30, 71, 82  
의로움 110  
인내 53, 60  
일 94  
자립 56, 94  
잠재력 42  
재능 49  
제사 16  
준비 46, 110  
즐거움  
지도력 7, 22, 97  
지지 22  
지혜의 말씀 53  
책임 49

축복 24, 26, 33, 106  
축복사 42  
축복사의 축복 42  
충실함 60  
치유 86  
친절 99, 103  
하나님의 인도 16, 75  
학대 56  
함당성 46  
행복 92, 99  
행함 82  
헌납 94  
화평 10, 39, 53, 86  
확신 73, 82  
회개 86  
회복 78  
혼욕 97  
희생 4, 19, 33, 36

#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할 수 있다면”

고든 비 항클리 대관장

저는 ... 교회 성전들을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곳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세계적인 연차 대회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엘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엘마서 29:1)

우리는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대회의 진행 과정은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며 모든 대륙에 있는 말일성도

들이 연사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마나면 길을 걸어온 끝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현이 성취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한계시록 14:6)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한 가족으로서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난 6월에 있었던 나부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훌륭하고도 놀라운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게 지어진 주님의 집을 헌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아름다운 기념품도 헌정 했습니다.

나부로 온 지 2년 후인 1841년,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가장 훌륭한 보석으로서 있어야 할 주님의 집을 착공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아래서 당시 미국 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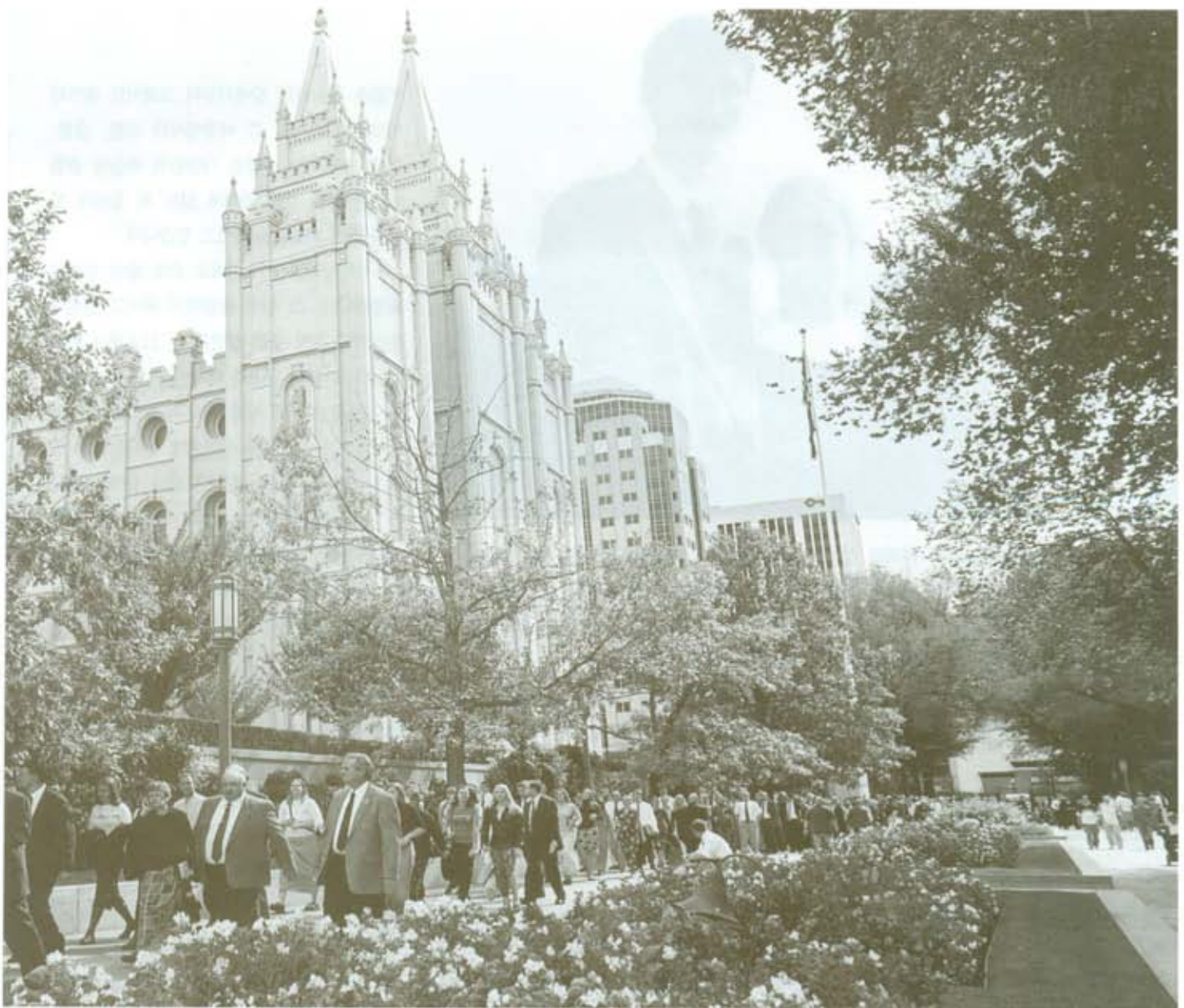


에 그토록 웅장한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일리노이 주 전체에 그러한 목적과 웅장함을 가진 또 다른 건물이 있었다고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사업에 헌납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남자들은 돌을 다듬고 기초를 놓고 벽과 장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한동안 그 곳에서 생활하며 엄청



난 양의 목재를 잘라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 강에 띄워서 나무까지 운송했습니다. 그 목재들로부터 아름다운 모양의 장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톨돈들을 모아 못을 샀습니다. 유리를 구입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짓고 있었으며, 그 집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언자와 그의 형 하이람이 1844년 6월 27일에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 당했습니다.

오늘날 살아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타격을 주

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현과 계시를 받았던 그들의 지도자 요셉은 떠나 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자였습니다. 슬픔은 컸습니다. 절망은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리감 영 회장이 지도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 십이사도들의 어깨 위에 그의 권능을 준 바 있었습니다. 브리감은 성전을 완공하기로 결심했고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법의 폭도들로부터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일을 계속했습니다. 1845년, 강가의 늪지에 세운 도시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정이 다급해졌습니다. 우선 성전을 완공해야 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부 광야로 떠나기 위해 마차를 만들고 필요한 물자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의식 집행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은 1846년의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집을 뒤로 하고 떠날 때까지 열정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마차들은 천천히 팔리 거리를 지나 강가로 갔으며 그 곳에서 강을 건너 아이오와 쪽 강둑을 올라 갔습니다.

서부로의 이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말할 수 없이 추웠습니다. 하지만 강이 얼어 붙었기에 그들은 얼음 위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꿈의 도시와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미지의 운명이 놓인 서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성전은 헌납되었으며, 그것을 헌납한 사람들은 '아멘' 소리와 더불어 그 곳을 떠났습니다. 그 건물은 사악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한 방화범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남은 잔해의 대부분은 회오리 바람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위대한 목적이었던 주님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나부는 거의 유령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소멸될 때까지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성전 부지는 갈아진 후 밭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깨어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한때 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인 우리 회원들은 조상들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며 그토록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나부의 일부가 복원되었습니다.

영의 속삭임과 그 지역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였고, 또 나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성전 재건을 소망했으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저의 부친에게서 동기를 부여 받아, 우리는 199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 역사적인 건물의 재건을 발표했습니다.

홍분과 설레임이 대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건축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기부금과 기술이 제공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경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을 추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서 주님의 집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158년 전 요셉과 하이람이 카테지에서 총격을 당해 순교하던 바로 그 시각에 우리는 이 웅장한 새로운 건축물을 헌납했습니다. 그 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성전은 원래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외부의 크기는 원 성전의 크기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을 추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뤄진 일에 대해 얼마나 깊이 감시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부 시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그 곳에서 미시시피 강을 건너 아이오와 평원을 넘어 서부를 향해 요셉의 성전, 장엄한 하나님의 집이 서 있습니다. 이 곳 솔트레이크 계곡에는 나부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 동부를 바라보는 бри감의 성전인 솔트레이크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 성

전들은 미시시피 강에서부터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까지의 긴 여정에서의 고통, 슬픔, 희생,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방대한 양의 책이 꽂혀져 있는 책꽂이의 양 끝과 같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부 성전은 113번째로 운영 중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이 헌납되어 운영 중인 성전은 총 114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규모와 디자인을 지닌 이 훌륭한 건물들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려는 목적(모세서 1:39 참조)을 지닌 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서 우리 회원들을 돕기 위해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전들은 사용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영예를 돌립니다.

대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교회 성전들을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곳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 곳에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계획을 배우십시오. 그 곳에서 우리를 의로움과 비이기심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성약을 맺으십시오. 그 곳에서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하에서 집행되는 영원한 성약 아래 가족이 되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이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즉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봉사를 기다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와 똑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움직여서 여러분이 해 주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닌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기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엘 통 페리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에게는 신권의 위대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축복하며 또한 우리 가족에게도 축복을 줍니다.



**신** 양개조 제5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sup>1</sup>

가장 중요한 신권 부름 가운데 하나로 한결 같은 관심을 요하는 부름이 우리 가정과 가족 안에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축복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 [우리]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sup>2</sup>

우리는 지금 믿음만한 원리에 기반을 둔 의로운 지도력을 몹시 갈망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신권 권능의 지시를 받는 올바른 지도력의 원리를 배워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극소수만이 신권의 잠재력과 그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깨닫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권을 지니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 작용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 간략하게 대답하자면, 신권은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 작용, 또는 원리에 의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그 권세로 만물이 지탱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인도하고, 만물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진리에 관련이 있는 모든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예지와 땅에 있는 사람들에 위임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가장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완전한 형태, 가장 완전한 통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그러한 원리가 발달했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것이 퍼져 있고 활용되었던 것과 비례해서, 인류의 행복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게 적용될 때까지,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즉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응답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하게 되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 때에야야 세상에 사랑과 평화, 조화와 단합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sup>3</sup>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후에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할 그분의 사도들에게 지시하시면서 신권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sup>4</sup>

신권으로부터 받은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정원회에 소속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신권 정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같은 신권 직분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구성된 특정한 그룹입니다.

한번은 스티븐 엘 리처즈 부대관장께서 신권 정원회에 관한 세 가지 의미를 지닌 정의를 내려 주었습니다. 신권 정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배움의 장소이고, 둘째는 우정 증진의 장소이며 셋째는 봉사 조직입니다.”<sup>5</sup>

오래 전에 남부 와이오밍의 한 작은 지역 사회에서 대체사 그룹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정원회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 주의 공과는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



니다. 공과가 시작되었을 때 교사가 잘 준비를 하여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으로 인해 그 공과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공과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르치던 내용을 제 일상 생활에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그 내용들을 곧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형제는 정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제안했습니다.

전 날 저녁에 그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 회원이었으나 죽은 사람은 비회원이었습니다. 이 대제사는 미방인을 방문하여 애도를 표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그 집을 떠나면서 그는 눈을 돌려서 죽은 형제가 남긴 아름다운 농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고인은 농장을 만드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쳤었습니다. 초지의 풀을 벨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없는 자매가 어떻게 혼자서 그녀에게 갑자기 남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새로이 짊어지게 된 책임들을 정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는 대제사 그룹에게 그들

이 방금 배운 원리를 적용하여 이 미방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녀의 농장 운영을 도와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모임의 나머지 시간을 그 자매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공과 교실을 떠날 때 형제들 사이에는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형제가 복도를 지나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원회를 다시 함께 움직이는 데에 필요했던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공과를 배울 수 있었고, 형제애가 강화되었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봉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정원회라는 조직에서 사용하기 위해 배운 이러한 원리는 비단 정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권 지도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sup>8</sup> 만일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서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나의 종 ... 에게 이르노니, 너는 여전히 이 정죄받을 일을 계속하고 있느니라.

“너는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나니,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지배하고 있도다. 내가 괴로움을 받은 까닭은 곧 이것이니라.

“이제 한 계명을 주노니, 만일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네 집에 울지 아니한 일이 많음이니라.”<sup>9</sup>

교회는 계속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하고 그 성약에 충실한 회원들로 연이어 세대를 구성해 나가는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개인적 발전 및 가족의 발전 사이의 관계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끝까지 견딜 것을 권유하며 그 결과가 명

확하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하니라.”<sup>10</sup>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서 그분의 기본 조직 단위, 가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친 첫번째 원리를 가운데 하나는 실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에덴 동산 동편 길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를 뵈려는 못하였나니, 이는 주의 임재하신 곳에 가지 못하게 저들에게 문이 닫혀 있었음이라.

“주께서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떼의 첫새끼를 주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 명하시니,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sup>11</sup>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라고 우리의 첫번째 부모에게 명령하셨으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sup>12</sup>하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께서는 가족의 영원한 본질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공식은 간단합니다. 관련 요소들은 몇 개 되지 않지만 각각을 아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결혼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각 개인에게 중요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완전이라고 하는 정상에 가능한 한 가깝게 이른 배우자를 심사숙고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당사자는 자신들이 성공적인 공동의 삶을 향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전의 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로 커다란 비이기심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을 잊고 낮추어 가족 생활의 모든 것들과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족의 유익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속적인 구애와 애정 표현, 친절, 그리고 사랑을 살아 있게 하고 키우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의된 대로 주님의 계명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sup>11</sup>

가정은 닻, 안전한 항구, 피난처, 가족이 함께 거하는 행복한 장소, 자녀들이 사랑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훌륭한 교훈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은 지상에서의 경험의 중심, 곧 사랑과 상호 존경이 적절히 어우러진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중요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위대한 책임에서 그들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제 자녀들은 제게 한 가지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새로운 직책을

받게 되어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부터 둘러서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생각에 맞는 이웃이 있는 집을 찾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점차로 더 멀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아름다운 집 한 채를 찾았습니다. 코네티컷의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일층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구입하기 전의 마지막 점검 사항은 제가 봉근 열차를 타고 뉴욕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점검을 해 보고 저는 실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오가는 데 각각 1시간 30분씩 걸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델 방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이 집과 아버지 가운데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는 집을 택하겠어요. 아버지는 집에 많이 안 계시잖아요.”라

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하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신속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집에 더 많이 머무르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협의를 하여 봉근이 훨씬 용이한 시내 가까운 곳에도 집을 샀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재일하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온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의를 가르치라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공부하고, 가사일을 하고, 가족 활동을 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식구들과 함께 협의할 것을 촉구하며 또 가족 활동 계획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권은 ... 완전한 반차이자 운영 체계입니

다. 신권만으로도 인간의 가족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끝없는 행복을 계속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sup>12</sup>

우리에게는 신권의 위대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축복하며 또한 우리 가족에게도 축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정원회를 축복하며,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와 가르침을 의롭게 따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sup>13</sup>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 회원인 우리를 축복 하셔서 우리가 지상에서 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 주

1. 신앙개조 제5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3. "On Priesthood," *Improvement Era*, 1935년 6월호, 372쪽.
4. 요한복음 15:16.
5. 대회 보고, 1938년 10월, 118쪽.
6. 교리와 성약 93:40.
7. 교리와 성약 93:41~43.
8. 모세서 3:24.
9. 모세서 5:4~5.
10. 모세서 5:12.
11. *Marriage and Divorce*, (1976년), 17~18쪽.
12. *Discourses of Brigham Young*, ed. John A. Widtsoe (1954년), 130쪽.
13. 교리와 성약 107:99~100.

## 예언자의 음성으로 축복 받는 세계적인 교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철십인 회장단

창조주의 계획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 주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범세계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과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들에 의해 배우고 고양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특권입니까! 본 대회는 68개국에 방송되고 55개국어로 통역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세계 전역에 회원들을 갖고 있는 범 세계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우리는 고든 비 헝클리 대

관장님의 영감에 찬 지도력으로 재건된 나부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요셉 스미스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으며 초기 성도들에 대한 기억 즉 그들의 희생, 슬픔, 눈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용기,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그리고 신뢰를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19세기 개척자 가운데 조상은 없습니다만 제가 교회 회원이 된 첫날부터 평원을 건넌던 초기 개척자들이 나의 가까운 친족임을 느껴왔습니다. 국적, 언어 혹은 문화에 상관없이 그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그러하듯이, 저의 영적인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서부에 안전한 장소를 건립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한 영적인 기초를 놓았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상황에서 개척자들입니다. 저의 가족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차 대전 후 혼란에 빠져 있는 독일에서였습니다. 당시 대관장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였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아이였으며 우리는 7년 사이에 모든 재산을 두 번이나 잃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



컨퍼런스 센터 단상에 앉아 계신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확실한 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7년 동안, 어떠한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인 하늘의 피난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참되고 살아계신 예언자가 인도하는 그분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유년 시절에 저는 폭격으로 파괴된 집에서 놀았으며, 눈에 보이는 패전의 결과와, 끔찍한 2차 대전 동안 나의 조국이 많은 나라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어 모든 인간을 무덤에서 구속하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신다는 기쁜 소식은 저의 삶에 다시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치유 능력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화하고 위로하는 그분의 능력과 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

안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예언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친절, 그리고 품위를 느꼈으며, 제가 비록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젊은 시절의 제 삶에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믿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힘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이자 친구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디모데후서 1:7~8)

구세주의 고대 사도 가운데 한 분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종전 이후에 세계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국제적인 긴장과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일관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동등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와드나 작은 지부에 참석할 수도 있으며, 기후와 식물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국적, 정치적인 체제, 전통, 언어, 경제적인 상황 및 교육에 상관없이 회복된 복음의 보편적인 권세와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망대 위에 있는 파수꾼이요, 자유의 진리를 전하는 하늘의 사자인 사도와

선견자와 계시자들을 다시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원들이 살고 있는 다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아 계시 예언자인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감 받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 년 전에 그분은 낙관적이고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가정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이 발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6쪽)

예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경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총명의 빛을 주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각각 저들의 언어와 총명을 가리시어 말씀하시니라.”(니파이이서 31:3)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뿐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의식과 성약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우리가 교회에서 완전한 회원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압도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길르앗의 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창조주의 계획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 주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니 사람이 제 힘에 겨우게 행함이 마

땅하지 아니함이라. ... [그러나] 부지런히 일해야 해느니라.”(모사이아서 4:27)

우리는 힘에 겹게 행하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합니까? 아니면 그저 한가롭게 어슬렁거립니까?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현명하게 활용합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언자들의 영감어린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는 우리 가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밤의 원리는 1915년에 주어졌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1964년에 부모들에게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J. E. McCulloch,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 [1924년], 42쪽에서 인용; 대회 보고, 1964년 4월, 5쪽)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1995년에 우리 시대의 예언자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대관장님과 심이사도 정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되시는 여러분에게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및 건전한 가족 활동에 최우선을 두도록 권고합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9~20쪽)

겸손과 신앙으로 우리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결의를 새롭게 합시다. 왕국의 모든 열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고 교회되시다.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선을 행하겠다는 커다란 소망(엘마서 19:33 참조) 갖게 되길 바라며 우리가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기초를 놓는 개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동안 여러 번 노래를 한 태버나클 합창단

#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즐거움의 소리

클린 케이 맨러브 자매  
본부 초동회 회장

우리 자녀들이 “즐거움의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됨에 대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기회입니다.



**저**는 감탄부호를 좋아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쓸 메모를 기록할 때에도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열정과 결의를 보여 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에는 감탄부호로 끝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는 즐거움의 소리니”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는 감탄부호가 열 네 번 이상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나는 진리의 소리요, ...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니라 ...”

“...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얼마나 영화로운고, 그 음성은 우리의 귀에 영광과 구원 ... 을 고하도다”라는 감탄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희망과 기쁨의 감탄을 가져다 주는 즐거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기쁜 간증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고자 노력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있는 기쁨과 희망의 감탄의 표현을 듣고 있습니까? 한 초동회 시간에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현에 대한 공과를 마치고 아이들은 집으로 가다가 가족과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나타나시기 전에 요셉이 경험했던 아들에 관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섯 살짜리 소녀는 검정색 크레파스를 집어 든 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검게 그 도화지의 한 쪽을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칠해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림에 관해 물었을 때 아이는 어둠 속에 있는 요셉 스미스를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에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든 아들이 물려받던 것을 알고 있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보다 강하시거든, 그분들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도화지로 몸을 돌렸습니다. 도화지 위쪽 구석에 두 사람의 윤곽을 그렸으며 검정색 크레파스를 연노랑 색으로 바꿔 들고 도화지의 나머지 부분을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 빛입니다. 그 빛은 회복된 복음의 빛이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역경은 실재하지만 자녀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오는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빛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고 “회개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sup>4</sup>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귀와 마음과 정신이 “즐거움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그들이 영원한 기쁨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겠다고 소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물론경에 있습니다. 이노스의 아버지는 그를 “주님의 돌보심과 훈계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이 이노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을 돌리노라”<sup>5</sup>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노스는 그런 뒤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다고”<sup>6</sup> 설명했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이 유일한 초동회 어린이였던 지부에서 어렸을 적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자신의 집에서 초동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 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소파



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너무도 고대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공책에 정성스럽게 쓴 그 기록은 그 가정에서의 초등학교 모임에 언제나 기도와 노래 그리고 공과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마음으로 바라는 소망은 바로 어린 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우고 복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의 자신에게 너무도 중요했던 것들을 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신앙과 성약의 어엿한 한 여인이 된 이 어린 소녀는 구세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어머니가 보여 주었던 열정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근면함은 감탄의 표현으로 장식되어 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성스러운 의무에 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sup>7</sup> 대관장단이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및 건전한 가족 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요

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sup>8</sup>

인생이란 부모님들이 그 보조를 맞추기에 너무도 빨라 보이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린 한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 하루 하루가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의 "즐거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어쩌다 갖는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은 자녀들을 강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복음을 배우며 순결의 법, 고결성 및 정직과 같은 표준들을 배우겠습니까? 이 가치관들이 교회에서 재강화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

는 데 있어 가장 유능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근원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지닌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들을 더욱 인내하고 부드럽게 극복하겠다는 더욱 커다란 소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 닿는 한 모든 것을 한다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또한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을 구할 때, 그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위안, 인도 그리고 확신을 받고 또 부모가 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감을 받은 교회 프로그램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피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저희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감독님들,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건 없건, 우리 각자는 부모님들을 돕는 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왕국의 중요한 것들을 배울 중



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이 복음에 관해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네 살짜리 딸 아이에게 가족이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 청소하는 일에 썼고 한 방만 빼고 모든 방이 깨끗해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너는 어느 방이 깨끗하지 않은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방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아이가 청소하겠다고 대답하기를 기대하면서 “너는 혹시 네 방 청소를 도와 줄 사람을 알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빠. 저는 우리가 언제든지 두렵고, 걱정되고 도움이 필요 할 때면 부엌을 훑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 또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한 아버지는 여덟 살짜리 딸아이를 통해 겪었던 경험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됨’이라는 주제로 성찬식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딸아이에게 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비하면 모두가 어린 아이들이구, 어린 아이들은 상상력이 좋기 때문이죠.’”

딸아이 대답의 뒷부분에 놀란 그는 왜 우리에게 좋은 상상력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깃새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고, 또 성찬을 취할 때 그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에 있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시[며] ...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

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해 간구하시었고 ...”<sup>9</sup> 라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전 중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해주는 이 간단한 말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장면을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sup>10</sup>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열쇠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남편과 제가 자녀들을 키우느라 무척 고생했던 시간 동안 받았던 가장 훌륭한 권고 가운데 몇 가지는 저희 가정에 영이 함께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영의 인도 없이는 영적인 것들을 배울 수 없으며 영적인 느낌들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은 자주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이나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간증을 전하여 영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또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간증,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물문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하도록 가르쳐야”<sup>11</sup>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

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 행복한 부모가 되는 기쁨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책임들 중 이처럼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목표 중에서 자녀를 사랑과, 안전과, 신앙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sup>12</sup>

어린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확신과 결심을 가져다주는, 영에 의한 증거를 받을 수 있음을 감탄부호로 간증드립니다. 저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즐거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됨에 대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기회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128:19, 23.
2. 교리와 성약 93:40.
3. 교리와 성약 68:28.
4. 교리와 성약 68:25.
5. 이노스 1:1.
6. 이노스 1:3.
7.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8. “A Letter to Church members from the First Presidency,” *Church News*, 1999년 2월 27일, 3쪽.
9. 니파이삼서 17:21
10. 고든 비 힝클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2쪽.
11.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1991), 154쪽.
12.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4쪽.



# 사랑의 팔에 안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전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테지만, 우리는 니파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 그 점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크게 지탱해 줄 수 있는 ... 사실입니다!



**요** 동치는 온갖 위기와 세계적인 여러 사건의 불길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참된 제자들은, 계시를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의 궁극적인 이유, 즉 그분의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믿는 신앙을 변함없이 지킬 것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더구나, 우리에게 계시되었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께서 범우 주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어서 실로 "능히" 광대한 사업을 해 내실 수 있음을 확실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니파이서 27:20~21; 요셉 스미스역 이사야 29:22~23 참조)

참된 제자들은 또한 그분의 속죄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킬 것이며, "주 앞에 개심하여 돌아"(니파이삼서 1:22)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큰 변화"를 견뎌낼 것입니다.(모사이사서 5:2; 앨마

서 5:12~14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미 가장 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제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이미 성취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부활이 주어져, 언제, 어떻게 그 곳에 왔는가 하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밤이면, 무한히 오랜 수명을 가진 별들을 보지만, 그것들은 불사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는 불사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참되게 ... 믿는 자들"(니파이서 1:36)은 말일의 회복과 함께 그에 따른 권능을 부여한 방증들, 회복된 시대의 예언자들과 사도들, 회복된 "간결하고 진귀한"(니파이일서 13:29) 경전을 믿는 신앙을 변함없이 지킬 것입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가 말일에 꼭 필요한 원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복된 교회가 "어두운 데서" 나아 오며 따라 가혹한 과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로는 교회의 선명함을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를 믿음에 보다 부합되게 하려 할 때 제자로서 행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에 관해 엄격한 일깨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할 정도로 기운을 북돋고, 포괄적이며, 심오합니다. 우주에 내재된 신성한 목적에 관해서나 또는 개인

적인 순결과 정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관해서나, 회복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 줍니다. 오직 온유한 제자들만이 그토록 대담한 신학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경전으로 안전한 닳을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여"(야곱서 3:1)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견제될 것이요, ... 주께서는 늘 [우리를] 구원해실" 것입니다.(앨마서 36:3, 27 참조)

이는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리니."(교리와 성약 49:27)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교리와 성약 78:18)

더구나 하나님은 성신을 통하여 너무나도 귀중한 개인적인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요한복음 14:26; 교리와 성약 36:2 참조) 평온의 시기이든 혼란의 시기이든 간에 위안을 주는 최상의 근원은 보혜사입니다.

예녹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시악함을 보고 슬피 울면서 처음에는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모세서 7:4, 44 참조) 그러나, 그 후 연이은 계시들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님, 말일의 회복, 주의 재림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예녹은 "기운을 내어 즐거워 해라"는(모세서 7:44)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리와 계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게 해 줍니다.(마태복음 24:6; 마가복음 13:7; 또한 니파이일서 12:2; 물문서 8:30; 교성과 성약 45:26 참조)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피곤"을 느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히브리서 12:3; 교리와 성약 84:80 참조)

우리의 제자 신분은 낙담이나 한낱의 열기에 말라 시들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면전에서 대놓고 부딪쳐 오는" 육욕적인 적대를 포함하여, 절망적인 사회적 징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모로나이사서 9:25)러서는 안 됩니다.(앨마서 32:28 참조)



모든 연령 층의 방문자들의 시선을 끄는 북방문화 센터의 그리스도 조각상

어쩌면 우리는 현재라는 삶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로부터 물러서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나 갈보리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인간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준비를 끝마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9:19)

우리의 신앙과 인내를 포함한 시련에 관해, 예외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형태(모시아야서 23:21 참조)만 다를 뿐입니다. 시련을 통해 이러한 훈련을 받는 목적은 행복을 받아들이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회원들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완전히 모면할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협에 처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용기 있는 태도는 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다니엘 3:16~18 참조) 이와 유사하게 유행에 맞지는 않지만 십계명의 첫번째와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킨다면, 고대에 세 처녀가 목숨을 내걸고 "아니오"라고 말하며

나타내 보였던 용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아브라함서 1:11 참조)

따라서 우리는 사방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참으로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고린도후서 4:8; 로마서 8:35~39 참조)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일"(교리와 성약 58:27)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역설한 바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근심을 벗어던질 수 있으며 또한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

입니다.(베드로전서 5:7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것처럼 진실한 순종을 보일 때 자유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수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회개의 도로에서 어떠한 교훈 체중도 겪지 않게 됩니다. 회개라는 도로는 무임 도로가 아니라,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속력을 높여 달리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펼치기 위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이드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출애굽기 18:14~24 참조) 또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요한복음 6:68) 하고 올바른 결론을 지었던 십이사도들처럼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순간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결의를 굳게 다지지는 않는다면, 마틴즈 코브와 스위트워터의 개척자 영웅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존경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차가운 역경의 강을 걸어 건너가기가 꺼려집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신성하게 정해진 대로,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힐라맨서 7:9) 된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64:32) 게다가, 비록 쇠퇴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알린 새 별을 기억하십시오. 그 별은 그토록 밝은 빛을 내며 비추기 훨씬 오래 전에 정확히 그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비추기 위해 인간의 궤도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와같은 거룩한 상호 관계는 우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경이 벨기에나 기타 다른 땅에 묻혀 있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권리와 보호가 "모든 인간"에게 속한다고 밝히고 있는 미국의 훌륭한 헌법을 제정한 "현명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무리를 저서 성단처럼 빛을 발한 것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교리와 성약 101:77~78, 80 참조) 한 역사가는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미국 역사상 또는 아마도 기타 어떤 나라의 역사의 공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세대라고 칭하였습니다.(Arthur M. Schlesinger, *The Birth of the Nation* [1968], 245쪽) 또 한 분의 역사가는 "어떻게 해서 불과 250만의 국민 중에서 이처럼 탁월한 인재들이 출현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한없이 귀중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Barbara W. Tuchman, *The March of Folly From Troy to Vietnam* [1984], 1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거나 능력 없는 신에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이먼과 레뮤엘은 고대에 이스라엘이 바로의 강력한 군대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불평을 하고 한낱 지방 호족에 불과했던 레이먼을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편협해지고 크나큰 자기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움직이는 은하계와 별들과 세상들을 주관하시

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교리와 성약 59:21 참조)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머리의] 머리카락 수에 대해서도 안심하라는 말을 받지 않았습니까?(태복음 10:29~30; 교리와 성약 84:80 참조)

하나님은 세세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조물 모두를 알고 계시듯이,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개개인을 알고 또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인류를 알고 사랑하십니다!(니파이일서 11:17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출애굽기 33:12)라고, 또 요셉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1:17)며 애정이 담긴 인사를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왕이 우리에게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모사야서 4:9 참조)이심을 믿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똑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알파벳 문자가 새겨진 나무 블록을 갖고 이렇다 할 목표 없이 만족스러워 하며 노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로마서 4:20~21)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에 대해 주신 약속을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앤세름의 다음 말씀이 적절한 권고라 하겠습니다. “믿기 위해 이해하기”보다 차라리 “이해를 하기 위해 믿으시오.”(St. Anselm, Sidney Norton Deane 번역 [1903], 7쪽.)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소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어 옮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5:32; 87:8 참조) 비록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



고 있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내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빌립보서 4:7 참조) 여전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테지만, 우리는 니파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크게 지탱해 줄 수 있는 행복하고도 근본적인 사실입니다!(니파이일서 11:17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경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정직하게 세어봄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의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앨마서 34:38; 교리와 성약 78:17~19 참조)

우리를 높이 올려주는 계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안목이라는 중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제자 신분에 요구되는 “변화”는 마치 물리 코스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그는 “땅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모세서 1:9~10) 하지만 그 다음에 안심을 시키는 신성한 발표가 찾아 왔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

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그러나 “큰” 변화에는 매우 힘든 수고가 따르며, 이 수고는 육으로 난 인간의 지속적인 충동에 유의할 때 더욱 힘들어집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잠재력이 세속적인 일들로 인해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가져다 주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한 부분인 영은 영원하며, 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점을 상상해 보십시오.(교리와 성약 93:29; 93:33 참조)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없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을 망설이면서 그 대신에 죄 값을 조금 치르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동화시키는 것을 주저하면서 그 대신에 단지 그분의 뜻을 알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모사야서 15:7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 인간 가족과 관련되는 약한 정도, 인간의 단점과 장점, …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상황……그들의 운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구속을 얻도록 많은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편, [1976년], 207쪽)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놓으신” 것 중에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팔”(교리와 성약 6:20)에 안겨 있음을 알고, 우리가 지명을 받은 궤도에서 빛을 받고 봉사하겠다고 결심한 불완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다른 연사들과 함께 했던 영이 계속 저와 함께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래 전에 저는 나이도 많고 경험이 풍부한 두 분과 사업상 교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으며 서로 돕는 것이 상호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복잡한 문제로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문제를 다 들고 나자 다른 사람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랜 친구가 그렇게 이기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저는 도움을 청해 온 친구의 얼굴에 비치는 고통과 실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친

구는 그 이기심이 그의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성품을 가리어 변영하지 못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상에 있는 재앙의 하나는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이 이기적인 반응 속에 나타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안 저는 한 훌륭한 부부의 상속인들이 상속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산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수년간의 노고와 희생의 결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착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써 구세주의 구원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이르자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울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기심과 욕심은 가족 중 일부 사람들 간에 틈이 생기게 하였고, 그것은 결코 치유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훌륭한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가족의 단합과 자녀들 간에 있던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변한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해 이기심과 욕심은 비통함과 다통을 가져오는 반면 희생과 나눔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한편 반대로 "아침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높이 대우 받던 사탄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유의지를 부인하였으며, 둘째, 영예를 갖기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거짓과 이기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기심은 추방되고 극복해야 할 저속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기보다는 얻는 일에 역점을 둘 때 고통 당합니다. 종종 많은 어린 아이가 처음 배우는 말은 '내 거야'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누는 기쁨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가장 훌륭한 교사의 하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거처와 음식, 의복,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저는 이기심이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한 느낌보다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인 워즈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네. 얻고 쓰느라고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가난한 사람은 이기적이 되고 부유한 사람은 후할 수 있지만, 오직 얻는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기 힘듭니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모든 영향력 가운데서, 이기심이 가장 강력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재능을 나누지 않

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사상이 충족되지 않으며, 약한 사람이 강화되지 않고, 무지한 사람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며,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sup>7</sup>

저는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후덕한 사람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인해 얻은 성취감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오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그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요, 너희는 나의 관리인이니라.”<sup>8</sup>

우리는 종종 “땅과 저기에 충만한 것 ... 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라는 점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sup>10</sup>

몇 년 전에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님이 교회에 들어온 그의 먼 스칸디나비아의 친척 가운데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꽤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유타로 오기 위해 덴마크에 있는 땅과 가축을 팔았습니다. 한동안 그는 교회에서의 의무와 다른 활동을 잘 수행했으며, 재정적으로도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유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미국에 온 목적을 잊고 말았습니다. 감독이 그를 방문하여 전처럼 활동할 것을 권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몇몇 형제가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스 형제님, 형제님이 덴마크에 있을 때, 주님은 형제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곳으로 온 이후로도 그분은 형제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 이제 연세도 점점 드시고 하니 교회를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돌아가실 때 이 모든 것을 갖고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에 놀란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난 죽지 않겠소.”<sup>11</sup> 그러나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한 것에 사로잡혀 영원한 안목을 잃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그의 조카인 롯도 함께 베엘로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 가축과 천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sup>12</sup>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고 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sup>13</sup>

요단의 기름진 평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 롯은 세상적인 도시인 소돔에 가까운 땅을 택했습니다.<sup>14</sup>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더욱 황량한 땅으로 가축을 데리고 가면서 그것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곳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약의 백성의 대족장으로서 더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일조를 바친 것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최초의 기록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내용입니다.<sup>15</sup> 아브라함은 전세에서의 예지를 보여 주시고, 구속주의 선택과 창조에 관한 것을 보여 주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sup>16</sup> 아브라함은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재물로 바치려 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행위는 구세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주셨던, 모든 역사에서 가장 궁극적인 비이기적인 행위의 상징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어린 “한국인 소년은 매주 받는 저기 용돈을 털어 신문을 샀습니다. 수업료가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점심을 매일 이 소년과 나눠 먹음으로써 이 소년이 굶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sup>17</sup> 이야기를 공부하고서 단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 알고 싶은 마음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취한 행동을 실제로 행할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아버지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 조심스럽게 물어 보기 전까지 그 소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해 아버지에게 말씀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sup>18</sup>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친구를 도와 줄 때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형편이 어려운 급우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세미나리 교재에서 그것을 읽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sup>19</sup> 소년은 친절을 베풀기 전에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보상이나 인정을 받는 일 등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에 있는 세계



실심인 회장단(앞줄)과 실심인 정원회의 회원을 가운데 일부

무역 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들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의해 파괴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용기 있고 비이기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울리는 영웅적인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던 예비역 대령 시릴 "릭" 레스콜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건 스탠리 던 워터 투자 은행의 보안 담당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릭은 매우 노련한 퇴역 야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있었을 때 "첫번째 비행기가 오전 8시 48분에 북쪽 타워를 들이받았습니다. ... 그는 71층으로부터 1번 무역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2번 빌딩에 있는 2,700명의 직원들과 5번 빌딩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핸드 마이크를 들고 그는 병목 현상이 생겼던 44층을 뚫고 72층까지 올라가면서 각 층마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10층 계단통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리를 본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릭, 자네도 나가야 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한 뒤 나갈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보다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본부에 전화를 걸어 낙오자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여객기가 남편이 있는 건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가 올렸습니다. 릭이었습니다. '여보, 울지마. 직원들을 대피시켜야 돼.'" "그녀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아 주구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릭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투자 은행이 9월 11일 남쪽 타워에 있던 2,700명의 직원 가운데서 여섯 명만을 잃은 것은 대재앙 속에 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회사 간부들은 레스콜라가 그 기적의 주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피 계획을 세웠으며, 직원들을 안전하게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낙오자를 찾으러 그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993년 세계 무역 센터 폭탄 사건 때도 남쪽

타워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었으며, 마천루가 그를 덮치지 않았다면, 지난달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나왔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의 극악 무도한 대재앙 가운데서도 릭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를 찾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사람과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릭 레스콜라는 "올바른 시각에 올바른 장소에 있었던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릭은 "62세의 몸집이 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온 사람"이었습니다.<sup>20</sup> 구세주께서 친히 하신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sup>21</sup>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비이기심을 그러한 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비이기심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시각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비이기적인 행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는 제한이 없으며, 친절한 말이나 도움의 손길이나 아름다운 미소처럼 단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  
2002년 10월 5일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sup>1</sup> 인생의 패러독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에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은 돈과 재산과 땅을 얻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과 후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누리는 성취와 행복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하든 가장 위대한 봉사는 주님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간중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시다만 어느 것도 이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한 것만큼 큰 보상이나 유익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부름은 각기 달랐습니다. 각 부름이 가져오는 축복도 달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찾아오며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에 집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간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아브라함서 3:27.
2. 모세서 4:2.
3. 교리와 성약 76:26.
4. 모세서 4:1.
5. 윌리엄 워즈워드,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Late and Soon,"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illiam Wordsworth* (1924), 353.
6. 교리와 성약 56:17 참조.
7. "Selfishness vs. Selflessness," *Ensign*, 1983년 4월호, 51쪽.
8. 교리와 성약 104:86.
9. 시편 24:1.
10. 누가복음 12:15~21.
11. Conference Report, 1973년 10월, 35쪽; 또는 *Ensign*, 1974년 1월호, 35쪽.
12. 창세기 13:6.
13. 창세기 13:8, 9.
14. 창세기 13:10~11 참조.
15. 열마서 13:15 참조.
16. 아브라함서 3~4장 참조.
17. 누가복음 10:25~37 참조.
18. 빅터 엘 브라운, "주님의 기수",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40쪽.
19. "Profiting for Others," *Tambuli*, 1980년 2월호 29쪽.
20. Michael Grunwald, "A Tower of Courage," *Washington Post*, 2001년 10월 28일.
21. 요한복음 15:13.
22. 마태복음 10:39.



**형** 제 자매 여러분, 항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항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랜디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 비뱅크스 장로님을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단과 칠십인 제1인 정원회의 회원으로부터 해임하고 그분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칠십인 제1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신 리차드 디 올레드, 아토스 엠 에모럼, 엘 에드워드 브라운, 얼 엠 몬슨,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님과 다음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예롭게 해임코자 합니다. 파울루 시 어무링, 칼 더블류 베이컨, 브루스 비 빙엄, 오 브렌트 블랙, 앤드루니오우 캐피, 빅터 디 케이브,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제임스 엠 던, 데이비드 더블류 페럴, 대릴 에이치 간, 디 렉스 게렛, 마루 이 거즈먼, 스펜서 브이 존스, 히토시 카시쿠라, 김종열, 리차드 케이 클라인, 존 맥스웰, 빌프강 에이치 폴, 키스 엘 스미스, 후안 우세다, 클라우디오 디 지빅, 그분들은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신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



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십인 정원회 회장단으로 Dieter Epp, 우  
호트도르프 장로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표  
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제임즈 엠  
던, 대릴 에이치 간, 디 렉스 게렛, 스펜서 브  
이 존스 장로를 철십인 제2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들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에 발 알 크  
리스티슨 장로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표  
시해 주십시오.

본부 청녀 회장단으로 봉사하신 마가렛 디  
네이들드, 캐롤 비 토마스, 새론 지 라슨 자매  
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  
다. 저희는 또한 본부 청녀 위원회의 모든 회  
원을 해임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새로운 본부 청녀 회장으로 수잔 원더 태너  
자매를, 제1보좌에 줄리 뱅거터 백 자매를, 제  
2보좌에 엘레인 슈왈츠 델튼 자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철십인 지역 관리 직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  
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  
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헝클리 대관장님,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헝클리 자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  
립니다. 해임되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보여주  
신 아낌없는 봉사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헌  
신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부름받으신 분들을 환  
영합니다. 철십인 제이 정원회와 본부 청녀 회  
장단으로 새롭게 부름 받으신 분들은 단상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



#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적절하게 감사를 보여 드리려 한다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이 새로이 부름받은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과 청년 회장단에게 단상으로 올라와서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하셨을 때, 1970년 4월 대회에서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름 받았던 때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부름에 무척이나 놀랐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야 새 부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태버나클에 있던 빨간 의자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합창단이 "오 거룩하신 구속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감동스러운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구세주께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 주시고, 제 실패와 제 단점,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드렸습니다.(시편

25:7 참조)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이 오늘 그런 권유를 하시니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나마 같이 하여 여러분께 이 훌륭한 사업에 관한 제 증거와 제 간증, 그리고 느낌을 전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에게 제가 이 자리에 지팡이를 짚지 않고 나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지팡이를 미리 마련해 두었으나 저는 "아닙니다, 그것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앙이 제게 있음을 장로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런 기회를 갖고 또 연단에 서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제 인생에 있었던 복음의 축복들에 관해 여러분께 간증드리겠다는 소망과 그런 능력을 갖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 훌륭한 건물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나이는 현재 97세입니다. 오늘 아침 이 대회가 제172차 반연차 대회라는 것이 발표되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172년이라는 세월을 길고 긴 시간으로 여길 수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회복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아내 루비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1930년이었습니다. 올해는 교회 회복 172주년이며 우리 결혼 생활은 72년이 지났

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172라는 숫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기억하기가 더 쉽습니다.

저는 지금 평생 동안 제가 받았던 축복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훌륭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연관된 모든 행사로 인해 이 나라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개성과 성품 형성에 도움을 주고, 또 사회에서 서로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방법대로 살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또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제가 가졌던 축복들에 대해 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그리고 온 인류의 구속주이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조와, 지상에서 복음을 정착시키시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맡았던 중대한 역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며, 축복을 받을 만하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교회 초창기에 개종했던 저의 조상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뉴욕 주 북부에서 이사를 와서 나무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여 나무 성전 건축에 참여하셨고 나중에는 서부로 함께 이주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오늘 그것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에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의 현황 중에서도 특별히 나무에서 있었던 일들과 장엄한 성전의 재건축에 관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세상과

인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분이 스켄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의 보좌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대관장단에서 그 분이 해오신 일들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아 왔다는 것을 헝클리 대관장님이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참여했던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그 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되고 영감을 받고 관리를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현재 114개의 성전이 운영 중입니다. 이 성전의 건축을 비롯하여 최근에 교회에 있었던 성장에 관해 그 분이 지닌 시헌에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떤 조그만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헝클리 대관장님의 영감에 찬 지도력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폭을 넓혀가고 또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되고 넓어지도록 돕는 일에서 그 분이 행해 온 일들로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이 행한 일에,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지닌 발전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지도력에 대해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느 날 구세주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교적 젊은 세대는 나병 환자에 대해 잘 모를 것입니다. 고대에 나병은 끔찍하고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세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끔찍한 나병에 걸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분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찾아가면 그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라"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보러 갔고, 깨끗하게 나았는 데, 10명 모두가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이 구세주께 돌아와 그 얼굴과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앞드리고는 자신을 축복하고 그 끔찍한 병에서 낫게 해 준 일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구세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열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다른 아홉은 어찌 되었느냐?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누가복음 17:11~19



모임 후 대관장단이 떠날 때 경의를 표하며 기다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참조)

그 이야기를 거듭해서 읽을 때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홉의 무리"에 속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헤아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거의 헤아리지 못한 채 받은 많은 축복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며, 영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생활 속에 일어나게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매우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축복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가져다 준 축복들에 우리는 크나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적절하게 감사를 보여 드리려 한다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현재의 생활을 영위하고, 생활에 복음을 지니고, 오늘날 전세계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헝클리 대관장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의 모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을 몸소 보이는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분을 바라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증폭되고 발전되고 또 확장됨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고양되어, 우리는 우리가 행하도록 요청받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싶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에게는 미국과 영국에서 최소한 스무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총관리 역원, 특히 헝클리 대관장님과 그 분의 보좌들을 지지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라디오 앞에 서 있거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진지하게 그들의 손을 들고서 "저도 함께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할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손을 들어올릴 때, 우리 귀여운 꼬마들, 곧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세계의 여러 곳에서 그들의 손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에 힘을 더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 그 안에 속하겠다는 소망을 심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성품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치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돕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켜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회복의 예언자였음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오늘날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관리하는 영감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 분이 이 사임을 진전시키며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그 분이 받는 모든 영감과 계시와 시현에 대해 그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멘. ■

##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일조를 내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순종과 충실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일조는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입니다.<sup>1</sup>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입증했습니다.<sup>2</sup>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주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sup>3</sup>

십일조는 이 말일에 주님의 회복된 교회 회원들을 위한 필수적인 율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십일조는 주님을 믿는 신앙과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증거하는 기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일조는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을 갖추도록 하는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당시 성도들은 나부 성전을 건립하고 있었는데, 브리감 영은 십이사도 정원회를 대변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일조의 법을 엄격하고 굳건하고 정기적으로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집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길에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걸으십시오."<sup>4</sup>

십일조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더욱 높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성전 의식들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식들을 조상들을 대신해 받게 되는 자격을 또한 갖추게 됩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은 교회 회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시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해 있었던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작은 일을 해낼 충분한 신앙이 없다면 자기 자신과 자기 친구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sup>5</sup>

십일조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시험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의 신앙은 성전 성약을 지키고 영원한 성전 축복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찰스 시리치의 아내로 개척자였던 사라 리치는 나부를 떠난 후 자신의 일지에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받은 축복들은 참으로 많아서, 우리의 모든 슬픔 중에서도 기쁨과 위안을 얻게 했으며,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미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sup>6</sup>

개척자들처럼 십일조를 순종적으로 바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강화되며, 그 신앙은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슬픔을 겪으며 인생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를 지켜 줄 것입니다.

십일조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과 열정을 절제하도록 가르칩니다. 십일조를 바침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정직하게 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자신의 부지런한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일조는 예비 율법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주님은 몇몇 교회 회원들에게 성약으로 받은 율법인, 더 높은 헌납의 법대로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성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닥쳐 왔습니다.<sup>7</sup> 그리고 나서 헌납의 법이 거둬졌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전 교회에 십일조의 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sup>8</sup> 주님은 1838년 7월 8일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 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의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 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sup>9</sup>

십일조의 법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더 높은 헌납의 법에 따라 살도록 준비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이 더 높은 율법대로 살아야 할 그 날이 올 때

까지, 우리는 해마다 수입의 십분의 일을 아낌 없이 드리는 십일조의 율법에 따라 살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sup>10</sup>

충실하고 정직하게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들 가운데 일부는 십일조처럼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침례식이나 성찬식이라는 외형적인 의식과 마찬가지로, 십일조를 내도록 한 계명은 현세적인 회생을 요구하나, 이 회생은 궁극적으로 훌륭한 영적인 축복들을 가져옵니다.

저는 성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던 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수입은 비록 보잘 것 없었지만, 그들은 충실하게 십일조를 냈으며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했습니다. 일년이 지난 후,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던 남편의 형이 전혀 예기치 않

게 찾아와서 비행기 표 두 장을 선물했습니다. 이 현세적인 축복은 그들이 성전에서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받는 영적인 축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부의 겸손과 충실함에 감동을 받은 형이 교회에 들어오는 영적인 축복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십일조의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도 상황에 맞춰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들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sup>11</sup> 십일조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sup>12</sup>

주님에게서 부여되는 축복들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노력하고 간구했던 바로 그러한 축복들에 “아니오” 하고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일조의 축복에 대해 의심했던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으로 나를 시험” 하라는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기를 권유합니다. 십일조를 내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순종과 충실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찬송가에 나오듯이, 현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희생이 하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sup>13</sup> 일 년 수입의 정확한 10%를 아낌없이 내어 놓는 회원들은 그 금액이 과부의 적은 동전이든 거액의 돈이든 간에 십일조에 관해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다른 종파의 집회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에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웅장한 연단에는 부유한 후원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가장 멋진 좌석에는 예배당 건축 기금에 가장 많이 현금한 저명한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공개적 영광이나 보상 없이 주님에 의해 똑같이 인정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sup>14</sup> 주님이 정하신 새법은 참으로 공평한 법입니다.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십일조가 배부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일부 무책임한 회사 임원들에게서 욕심과 탐욕을 보게 됨에 따라, 십일조를 그들의 지시 아래 집행하도록 주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점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계시에 따라, 감독은 “주의 창고를 지키며 ... 교회 기금을 받도록”<sup>15</sup> 성임되었습니다.



자신의 수입 내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을 배운 감독과 서기는 온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와드나 지부의 회원들에게서 십일조를 받으면, 이러한 지역 지도자들은 즉시 교회 본부로 직접 송금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에 의해 계시된 대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십일조의 사용이 결정됩니다. 주님은 평의회가 “저들에게 고하는 나의 음성으로써” 지시되는 대로 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sup>16</sup> 이 평의회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라고 불립니다.

이 평의회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이 평의회는 각 구성원이 평의회에 모든 결정에 참여하며 그에 대해 압니다. 이 평의회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십일조 기금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복지, 성전, 집회소의 건축 및 유지, 교육, 교과 과정 등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목적, 간단히 말해 주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의 한 친구는 자신이 십일조를 낼 돈으로 보람된 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 스미스 대관장님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주님의 돈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돈은 단 한푼도 다른 사람에게 준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 주님이야말로 자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업자이지.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주시거든. 그분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의 십분의 일을 취하여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교회에 내라고 말씀하셨지. 자네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 자네는 가장 좋은 동업자의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렸지.”<sup>17</sup>

교회 회원의 십일조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종들의 평의회를 통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 및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십일조 지출 평의회에 대해 간중드립니다. 저는 지난 17년간 이 평의회에 교회 감리 감독단의 일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예외 없이 이 교회의 십일조 기금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녀들이 십일조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너무나도 빈번하게 부모인 우리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자녀들에게 이 율법에 따라 생활하기를 가르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일조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자녀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심대가 되면 옷이나 오락, 비싼 물건에 이끌리게 되며, 십일조가 주는 특별한 보호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이러한 젊은이가 장로에 성임되고, 선교 사업에 종사하며, 자신이 지켜본 적이 없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귀환하여 학업과 가족을 이루는 것과 직업에 관한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청년이 스스로 십일조에 대한 간증을 얻지 못한 채 주님을 섬기며 해외 양국의 결혼 성약을 맺기에 합당하게 될까요? 그 청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한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마음이 되어 십일조에 따르는 보호의 축복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축복을 가족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십일조를 내도록 가르쳐서, 그것이 끊임없이 지켜지도록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원수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sup>18</sup>

몇 주가 지나면 우리 각자는 다시 한 번 감독과 함께 앉아 우리의 십일조를 주님과 결산할 성스러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독은 온화하고 친절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에 내지 못한 십일조를 다 낼 수 없다면,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완전한 십일조를 내겠다는 결심을 감독에게 표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성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 십일조를 내고 다른 필요한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면, 여러분은 성전의 영원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하건대, 이런 기회를 지나쳐 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 여러분, 십일조 결산을 준비 할 때 어린 자녀들을 주위에 모아 그들 또한 알마 되지 않는 자신들의 십일조를 결산하도록 권유하십시오.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기록을 살펴 보고 연 수임을 찾아보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녀들 마음속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는 참으로 훌륭한 기회가 아닙니까, 자녀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길에 서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조상들을 대신해 구원 의식을 받도록 그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들과 후손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인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의 지시에 따라 성전이 지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포함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 우리 가족에게 인봉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십일조의 법대로 살라는 주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간청합니다. 매우 가난한 한 가족을 방문했던 두 선교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가정은 흠 바닥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침대도 없는, 판지와 막대기로 이뤄진 집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농장 인부인 아버지는 그 날 번 모든 것을 저녁 거리를 사는 데 써야 했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집을 나서면서 선임 동반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일조의 법은 이 가족에게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야. 당분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겠어." 잠시 후에 자신의 고국에서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란 후임 동반자가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십일조의 원리를 가르치려면 아직 토론이 네 차례나 남았지만, 우리가 다음 방문할 때 십일조의 원리에 대해 가르치면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참으로 주님의 도움과 축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일조에 관해 지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임 선교사는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sup>19</sup> 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이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순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일조의 영원한 축복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제 가족의 생활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험은 순종과 희생으로 십일조의 법대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을 빌리면, "모든 것에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할 만한 충분한 권세를 결코 가질 수 없기"<sup>20</sup>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을 대신하여 어린이, 미망인, 청소년, 가족 등 충실한 여러분에게 신성한 십일조를 내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내게 기쁨이 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한 모든 것 내게 한 것이다."<sup>21</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 (1939년), 225~226 참조.
2. 창세기 14:20 참조.
3. 창세기 28:22.
4. *History of the Church*, 7:282.
5. *History of the Church*, 7:292~293.
6. *Journal of Sarah De Armon Pea Rich*, Archives, Harold B. Lee Library, Brigham Young University (typescript), 42쪽.
7. Joseph Fielding Smith,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Melchizedek Priesthood course of study, first series, 1946년), 196쪽 참조.
8. 교리와 성약 119편에 대한 역사적 배경 소개 참조.
9. 교리와 성약 119:3~4.
10. Joseph Fielding Smith,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Third Series, 120쪽 참조.
11. 교리와 성약 130:21~22.
12. 말라기 3:10.
13.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14. 교리와 성약 1:35; 38:16.
15. 교리와 성약 72:10.
16. 교리와 성약 120편.
17. George Albert Smith,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44~47.
18. Joseph Fielding Smith,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Third Series, 122.
19. 교리와 성약 130:20~21.
20. Joseph Smith, *Lectures on Faith*, 6쪽.
21. "슬픔에 잠긴 나그네", 찬송가, 30장.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랜스 비 위크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필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험은 “왜”에 직면하여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느니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겸손히 신뢰하고 “왜”를 견디는 것입니다.



저의 몇몇 가장 소중한 추억들은 스테이크 대회에 대한 주말 임무 지명을 받아 어느 스테이크장과 함께 그의 스테이크에서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들로 씨름하고 있는 회원들, 특히 자녀를 잃은 사람들 또는 아프거나 신체 장애 및 정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용감히 싸우고 있는 회원들을 방문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가슴 아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녀를 잃는 것만큼 어두운 밤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신체나 정신 장애를 가진 자녀를 계속해서 돌보는 것만큼 길고도 힘든 시련의 날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모는 모두 구세주로

부터 믿으라는 권고를 받고 영혼의 고뇌 속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마가복음 9:17, 23~24 참조)라고 대답했던, “말 못하게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이들의 아버지와 똑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필멸의 삶이라고 불리는 이 신앙의 실험실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자녀를 잃고 비탄에 잠겨 무거운 짐과 슬픔으로 간절히 “왜”라고 묻는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 슬픔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고통과 언젠가는 일어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에 풍성함과 의미를 주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에 잠긴 부모가 주님으로부터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슬픔을 반드시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 자녀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한 보살핌 아래 있다는 소중한 재확신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왜” 그런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 비탄에 잠기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 단순히 이것인데, 바로 왜? 입니다. 우리가 딸을 살려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딸이 신권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녀는 왜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경험을 나눌 때 왜 우리는 이런 불행과 싸워야 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이해할 만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필멸의 삶에서는 대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씀했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9)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리로다”(요사야서 15:7)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뜻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전히, 필멸의 존재인 우리가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간절히 답을 얻고자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필멸의 삶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필멸의 삶은 다른, 좀더 좁게 정의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장이며 시험의 생활상태이고, 신앙으로 행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예를 들면, 아브라함서 3:24~25, 니파이서 31:15~16, 20, 앨마서 12:24, 42:4~13 참조) 그것은 우리가 계획된 지상 생활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겸손(앨마서 32:6~21 참조)과 순종(요사야서 3:19 참조)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본질적으로 겸손과 순종은 지금 당장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게 여기거나, 오히려 “왜 안 되는가?”라고 물어 보는 아주 기꺼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끝까지 잘 참는 것에”(니파이서 31:15~16, 앨마서 32:15, 교리와 성약 121:8 참조)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필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험은 “왜”에 직면하여





대관장단(오른쪽)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느니라.”(교리와 성약 64:32)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겸손히 신뢰하고 “왜”를 견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위안이나 아무런 답 없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병 고침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나를 믿는 신앙이 있어 나를 줄로 믿고 또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48) 우리 모두는 너무 자주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또는 “병이나 정신이나 신체 장애를” 추가할 수 있음)라는 조건이 딸린 문구를 못 보고 지나칩니다. 간절한 기도와 신권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좋아지지 않거나 심지어 죽게 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으십시오. 그러한 신앙, 금식 그리고 축복은 헛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화평과 재확신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자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기도, 금식 그리고 신앙의 경험은 그 자녀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신권의 권능으로 축복을 주기 위해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합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신앙 개조 제4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이라고 정의된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기도드리거나 병자 축복을 한 후에 마치 요구에 대한 승인이 그분의 존재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나 보려고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우 단순한데,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물론의 말로 그것은 “모든 형태의 경건에 대한 굳건한 마음”(모로나이서 7:30 참조)입니다. 세 명의 히브리인 젊은이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여전히]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다니엘 3:18)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으며, 놀랍게도,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의 남자가 불 가운데 보였고,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니엘 3:25 참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조그만 격언이 세상적인 일에서 어떤 가치가 있든, 그 격언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는 동안 주님께 의지하는 영적인 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는 다른 격언에 의해 가장 잘 정의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은 기본 원리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뜻과 지혜에 의해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은 경전에서 단순히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교리와 성약 59:8 참조)의 “제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볼길 같은 인생의 가혹한 시련의 경험을 통해 얻은 확고한 간증으로서 이것을 전합니다. 우리의 둘째 아들 아담은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베트남의 정글과 눈에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의 출생을 알리는 반가운 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명당한 성격을 가진 파란 눈과 금발의 작은 남자 아이였습니다. 그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아담은 굉장한 학교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어린이 전염병이 돌았는데, 아담이 그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평안에 대한 염려를 제외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고 거기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헌신적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를 지속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의 엄마와 저는 근처의 대기실에서 쉬지 않고 밤샘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죽마고우이자 지금은 사랑하는 동료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스테이크장이었던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장로에게 전화하여 저와 함께 아담에게 신권 축복을 주기 위해 병원으로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는 그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움직이지 않는 작은 몸이 누워 있는 작고 비좁은 방에 들어갔을 때, 그의 침대는 복잡하게 얽힌 모니터링 장치와 다른 의료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친절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뒤로 물러서서 팔장을 끼고 있었습니다. 신앙과 간절함 간구가 담긴 귀에 익은 신권 축복의 위안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누군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느낌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 저기에 서 계시는 구세주를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 영을 느낀 것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몇 달 뒤에 그날 그곳에 있었던 간호사 중에 한 명이 큰 감동을 받고 선교사들을 찾아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께 그를 우리에게 돌려 달라고 간구했던 며칠 동안 인생과 저승 사이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마침내, 잠을 못 이룬 다음날 아침 저는 한적한 병원의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주님께 우리의 어린 아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너무 원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내와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얼마 후에 영원한 세상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수년이 지났고 영의 부드러운 위안으로 슬픔이 줄어들긴 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어린 아들 때문에 슬픔입니다. 그의 작은 사진은 우리 거실의 난로 벽 위에 더 최근에 찍은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가족 사진 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필멸의 삶을 지나는 그의 길은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

다 짧고 더 쉬운 것이 되도록 의도하신 것이며, 그는 지금 우리도 결국 마찬가지로 똑같은 속명의 문턱을 지나가야 할 때 환영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 서둘러 앞서 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 너를 불러 깊은 물 건너  
슬픔의 강물이 넘치지 못하리  
나 너 함께 하고 근심 덜어 주며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불 같은 시험이 앞에 놓이나  
내 은혜 충만히 널 채워 주리라  
그 불길이 널 해하지 못하리라  
그 불길 통하여 신앙 굳게 하리  
순금만 주 앞에 나타나리라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굴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  
칠십인 정원회

사랑이 많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언자들을 따른다면, 우리의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찬** 송가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 랫"에 있는 "희생은 하늘 축복 가 져 오나니"라는 가사는 항상 제 영 혼을 감동시킵니다. 희생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거나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 포기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 일성도들은 주님과 희생하겠다는 성약을 맺 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굽 혀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정직한 십일조를 통해 충실하게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sup>1</sup> 그러한 희생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할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에 바친 헌금은 주님의 왕국이 매일 기적을 행하도록 돕는 활력의 근원이 됩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축복을 받은(는)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sup>2</sup> 십일조를 충실하게 바치는 것은 희생하겠다는 내적인 결심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금식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희생의 또다른 형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달에 한 일요일을 정해 두 끼를 금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금식하여 절약된 돈을 교회에 바쳐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금식을 하고 후한 기금을 바치는 것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금식의 법을 지키는 즉시 방종과 이기심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을 알게 됩니다."<sup>3</sup>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사랑의 희생입니다. 충실한 성도들은 가족 역사를 편찬하는 데

수백만 시간을 바칩니다. 그들은 마이크로필름과 기록들을 찾습니다. 펜과 컴퓨터로 날짜와 행사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귀중한 조상을 위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합니다. 구세주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는, 더 없이 아름다운 희생의 표현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아내인 메리 제인과 함께 교회의 업무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 있는 동안 가족 역사 사업의 축복을 느꼈던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상 기록 보관소를 방문하여 교회가 서부 러시아의 기록 일부를 마이크로필름에 찍는 작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관소 직원이 프스코프 시로부터 보내 온 낡은 책에서 페이지들을 촬영할 때마다 그 이름들이 정말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록에서 살아나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찾아내셨군요. 저는 더 이상 잃어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디서, 가족 중에 누군가 제 이름을 갖고 성전으로 가면 저는 침례를 받고 엔도우먼트를 받고 아내와 자녀들은 제게 인봉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비이기적인 모범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커다란 고통을 겪었지만 낙천적이었으며, 많은 박해를 극복했습니다. 팔리 피 프랫은 1838년부터 1839년 사이의 겨울에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서 예언자와 함께 있었던 가슴 터질 듯한 비통한 경험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 육 개월 간의 고통과 감금은 이 "예임 받은 비범한 예언자"를 연단시켜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언자와 그의 형제들은 간수들이 "물문들"에게 행한 비열한 박해 행위를 자랑 삼아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예언자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참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이 지옥에 머물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



그는 매우 위엄 있는 자세로 똑바로 서 있었다. 족쇄에 차이고 무기조차 없으면서도 그는 조용하고 냉정하며 천사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있었다. 놀란 간수들은 구석에서 벌벌 떨며 “무기를 축 내려드리고” 용서를 구한 다음 “교대 시간까지 조용히 있었다.”

프랫 형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법관들이 권위가 잔뜩 서린 법복을 입고 죄수들을 심문 …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또 나는 … 국회의 엄숙한 회의들 본 적이 있다. 왕들과 군주와 제왕과 황제들도 상상해 보았지만 미주리 주 작은 마을의 침침한 감옥에서 족쇄를 찬 그분의 위엄만큼 큰 위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sup>8</sup>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에 요셉은 또 다른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한 잠시 동안이니”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말씀을 하

셨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sup>9</sup>

5년 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부 성전을 돌아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여정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한 번 체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뢰는 지켜 지지 않았습니다. 1844년 6월 27일, 그는 형 하이람과 함께 카테지 감옥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땅끝이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게는 해기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브리함 링컨의 다음 말씀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  
이 사람은 산과 바다에 비할 수 없다.  
소요 가운데 죽임을 당했을 때

푸른 잎을 가진 키 큰 삼목이 언덕 위에 넘어  
질 때

큰소리를 내며 하늘을 배경으로  
텅 빈 공간을 만들 듯이 쓰러졌다.<sup>10</sup>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속죄는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명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희생 덕분에 사망의 쏘는 것이나 무덤의 승리는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자신의 의지를 포함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는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다른 많은 것들은 사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나 빌려 주신 것들입니다.”<sup>11</sup>

희생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니.”<sup>12</sup> 사랑이 많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언자들을 따른다면, 우리의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향한 심령과 애똥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위한 제물을 드려야 하느니라!”<sup>13</sup>

저는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위한 구세주의 사랑의 희생을 경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저는 아내와 함께 구세주께서 견고 가르치신 몇몇 장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바의 궁전 아래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있을 때 구세주께서 당하신 고뇌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질 당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돌 벽에 있는 쇠사슬 구멍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사악한 가해자들 가운데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합당한 종이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비어 있는 정원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정전에 있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sup>15</sup>고 하는 말이 마음 속에 가득 찼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격심한 고통 받으나  
불평의 말 하나 없네  
높으신 사업 이루며  
아버지 뜻 이루시어  
영광을 돌리시었네<sup>16</sup>

구세주의 속죄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분은 신앙의 반석  
인류의 밝은 빛 살아 계시니  
사망의 장막 너머로  
더 좋은 길 밝히시네.<sup>17</sup>

저는 단 한 방울의 핏방울이라도 그분이 저를 위해 흘리셨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낍니다. 언젠가 제가 구세주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상처 난 손과 발에 입을 맞출 것이며, 그분은 저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잘 하였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sup>18</sup> 형제, 자매 여러분, 그분의 자비로 인해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sup>19</sup> 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위대한 희생의 모범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찬송가, 18장.
2. *The Oxford Encyclopedic English Dictionary* (1991년), "sacrifice," 1272~1273쪽.
3. 말라기 3:10 참조.
4. 모사이사서 2:41.
5.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6. *The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85년), 180쪽.
7. 교리와 성약 121:7.
8. 교리와 성약 122:1.
9. 교리와 성약 135:4.
10. Edwin Markham, "Lincoln, the Man of the People" in Louis Untermeyer, comp., *A Treasury of Great Poems* (1955년), 994~995쪽.
11.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리로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24쪽.
12. 교리와 성약 64:34.
13. 니파이산서 9:20.
14. 찬송가, 30장.
15. 마태복음 28:6.
16. "구세주 돌아가셔서", 찬송가, 115장.
17. "승리한 나의 구속주", 찬송가, 75장.
18. 마태복음 25:21.
19.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영문 찬송가(1948년), 70장.



# 봉사하라는 부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에 저습지 않게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판단, 신성한 도움, 그리고 불가피하게 오는 어떤 희생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훌륭한 회원들과 선교사들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옥스 장로 부부와 홀런드 장로 부부는 각각 필리핀과 칠레 지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어떤 표시라면, 이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추리를 하시든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마방처럼 이처럼 먼 전초 지역까지 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단언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도 “표적”을 구하는 분들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꾸준히 여러 언어권과 대륙에 걸쳐 퍼져 가고 있는 훌륭하고, 성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교회의 한

표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거나 멀거나, 조국에서나 외국에서나 어디서든 말일성도들을 만나 봉사하는 것은 기쁨이며, 여러분의 기도와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십이사도의 이러한 봉사는 새로운 것은 아니며, 우리 세대는 과거 세대의 전임자들 보다는 어려움이 훨씬 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홀런드 자매를 집에 남겨 두어 자신과 아이들을 부양하게 할 필요없이 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산티아고까지 가는 교통비를 벌기 위해 여행을 하면서 손수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몇 주, 심지어는 몇 달 간을 3등 선실에 있지 않고, 현대의 제트 비행기를 타고 수 시간만에 목적지까지 날아갔습니다. 비록 제가 감기가 걸려 있었고 비행기 연결편이 한 시간 지연되기는 했어도 오후와 열, 학질, 콜레라나 폐결핵을 안고 떠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커다란 희생을 겪어서 언젠가 베드로와 바울, 브리감 영과 윌포드 우드립을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처럼, 저도 캐나다, 영국, 스칸디나비아, 유럽 대륙, 태평양 제도, 멕시코, 아시아 등지로 갔던 초기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아주 최근에 저는 칠레에서의 팔리 피 프렛의 선교 사업에 관해 읽었는데, 발파라이소에서 프

랫 부부는 갓난 아들을 잃고 그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 놀라운 남미 대륙이 여전히 새롭고 또 비교적 어려운 선교 지역이었을 적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와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짧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키우는 봉사의 기회는 가벼운 마음으로 요청되거나 또는 번덕스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장애물이 크기도 하고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봉사하러 나갔던 초기 형제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지지하였고, 나아가 집에 머물며, 주님께서 크게 강조하신 주님의 포도원의 다른 부분, 즉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며 자신들과 자녀들까지도 부양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영국으로 두 번째 선교 사업을 떠난 날, 빌레이트 김볼 자매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학질로 너무 심하게 몸이 떨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하려 왔을 때 겨우 그의 손을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들 데이비드는 당시 난지 겨우 4주도 안되었고, 유일하게 건강했던 자녀인 네 살된 히버 팔리는 병든 가족을 위해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몇 시간 후에 빌레이트 자매는 기력을 완전히 잃고 도움을 받아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브리감 영이 히버와 같이 선교 사업을 떠날 때 매리 앤 영과 그 자녀들도 같이 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들의 재정 상태도 위험했습니다. 가슴 미어지는 한 기록은 혹심한 추위에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어린 딸을 움켜잡고 몇 개의 감자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미시시피 강을 건너 십일조 창고로 가는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그녀는 아기와 함께 다시 위험한 강을 건너갔지만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어떤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sup>1</sup>

비록 많은 선교사들과 회원들이 여전히 주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커다란 희생을 하고

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같은 경우를 좀처럼 겪지 않습니다. 축복이 오고 또 교회가 안정됨에 따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초기 회원들이 겪게 된 것만큼 봉사가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선교사들은 노르웨이에서 칠레까지 그리고 시애틀에서 필리핀까지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sup>2</sup>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에 거울지 않게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판단, 신성한 도움, 그리고 불가피하게 오는 어떤 희생이 요구됩니다.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 항상 희생을 바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의 조그만 희생은 그분의 장대한 희생에 대한 조그만 상징적 반향일 뿐입니다.<sup>4</sup>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확고히 바라보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희생의 성약을 포함하지 않는 종교는 영생의 약속을 가져다주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sup>5</sup>

저는 "봉사하라는 부름"이 가져다줄 수 있는 어려움 및 축복 두 가지 모두에 관해 현대의 예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훌륭한 자매가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으로 봉사하는 남편의 시간과 희생에 대해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된 계기에 대해 들려주고 싶어. 어떻게 해서 남편과 내가 함께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면 꼭 워드 회원에게 긴급 상황이 일어나곤 하는지 난 이상스럽게 여겼었어."

"어느 날 나는 내 좌절감을 쏟아 냈고 남편은 우리만을 위해서 월요일 저녁 외에도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더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 약속한 첫번째 데이트 저녁이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차를 댔는데 전화벨이 울렸지."

"'이제 시험의 시간이네요.' 나는 남편을 보고 웃었어. 전화가 계속 울렸지. '우리 약속을 기억해요. 우리 데이트를 기억해요. 저를 기억해요. 전화를 받지 마세요.' 어느새 내 표정은 굳어 있었지."



"가없는 남편은 나와 올려대는 전화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나에게 대한 남편의 깊은 애정도 정말로 알고 있었고, 또 남편도 나만큼이나 그날 저녁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는 그 전화 소리에 몸이 마비된 것같이 보였어."

"'최소한 확인은 해보는 것이 낫겠어' 그가 슬픈 눈을 하고 말했어. '아마도 별 일은 아닐 거야.'"

"'당신이 그러면 우리 데이트는 엉망이 되는데.' 라고 나는 외쳤지. '난 그걸 알아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쥐며 '곧 돌아올게' 라고 말했지. 그러고는 달려가서 전화기를 들었지."

"'그러나 남편이 즉시 차로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 난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지. 다음날 남편이 조용히 사과를 했을 때, 나는 더 조용히 그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 일은 그렇게 끝났어.'"

"'아니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야. 그 후로 몇 주일 동안 그 사건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지. 남편을 탓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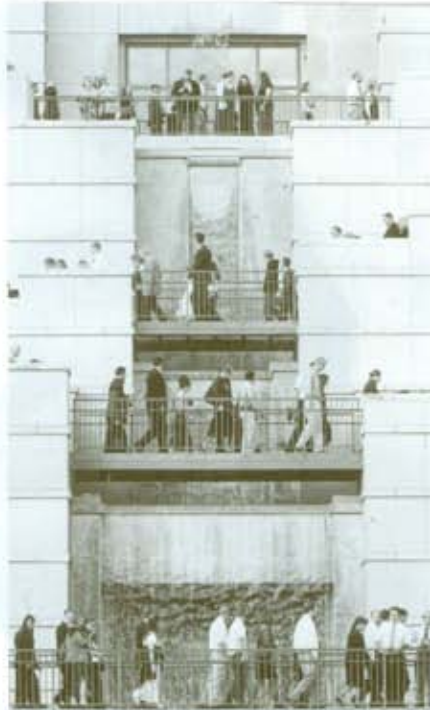
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망을 했던 거야.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내가 거의 잘 모르는 한 자매를 워드에서 만나게 되었어. 그 자매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 그런 다음 그 자매는 힘든 일로 가득 찬 그녀의 삶에 활력을 넣어 줄 것같이 보였던 다른 남자 생각에 빠졌던 일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녀에게는 온종일 일하고 또 대학교 수업에서 수업도 많이 듣는 남편이 있었어. 짐은 비좁고 또 자주 칭얼대고 떠들고 지치게 만드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어. 그녀가 말했어, '자신이 보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내버려두고 그 남자와 함께 버리고 싶은 유혹의 충동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가 지금 상태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까지 왔지요. 합리화를 하다 보니 남편과 아이들, 성전 성약과 교회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한 낯선 사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게까지 됐어요.'"

"'그녀가 말했어, '계획도 다 세워 놓고, 도망할 시간까지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듯이 내 양심이 자매님의 남편, 즉 감독님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양심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직접 오는 속삭임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뜻과는 거의 반대로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계속해서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정말 감독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호가 계속 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파벌 속으로 걸어가려 할 때 갑자기 당신 남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번개처럼 제 마음속을 꿰뚫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흐느끼며 '감독님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남편이 와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 분이 그때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무사하게 있습니다.

"저는 피곤했고 어려서에도 유혹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들이 없는 비극적인 제 인생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 가족에게 힘든 때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결국은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 '자매님을 잘 모르지만 부름을 수행하는 남편을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봉사에 대한 희생이 자매님이나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힘든 시기에 특별한 개인적인 희생이 있다면, 자매님 같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구하고 돕기 위해 치르는 희생에 제가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감독과 다른 지도자들이 행하실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강조하여 전하는 사람임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를 포함하여 부모를, 그리고 특히 어머니를 자녀들이 양육되는 장소인 가정 밖으로 이끌어 내는 광범위한 요구가 현대 사회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속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남편과 아버지와 함께 신성하고 기억에 남겨 줄 만한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일에 제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 번 중 아홉 번 정도는 그런 전화를 받지 말라고 남편에게 말하는 그런 아내의 의견과 일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감독이 영의 속삭임에 따라서 그의 '부름'에, 이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봉사하라는 [그의] 부름'에 응했다는 점에 그 젊은 아내가 자신의 방법으로 남편에게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저의 방법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인 가정과 가족 그리고 결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과 방법을 찾는 동안에도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간직할 필요가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가족 책임과 타인에 대한 봉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위기의 순간과 시간에 당면하여 의무와 영적인 속삭임이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식어가는 저녁 식사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는 모든 아내들, 그리고 식사를 직접 준비해 먹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별로 좋은 요리사가 아닌 모든 남편들,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야영 여행이나 운동 시간이 연기되어 실망

한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선교부장과 그들의 아내, 자녀들, 그들과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모든 부부 선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은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하여 잠시 동안 생일과 침례일, 결혼식과 장례식, 가족과 재미있는 경험을 있고 삽니다. 교회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행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계속 주실 분으로서 영을 지니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한 봉사에는 중요한 우선 순위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관해 어려운 결정들이 불가피하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찾도록 우리를 돕는 일에서 그분의 신성한 인도에 대해 저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일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서 서로를 위해 같은 일의 일부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셨음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이 경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ames B. Allen and others의 *Men with a Mission: 1837-1841*(1992)를 참조한다. 빌레이트 김볼 및 메리 앤 영의 고난은 267-276쪽에 나와 있다.
2. 찬송가, 145장 참조.
3. 모사야아서 4:27 참조.
4. 이 교리는 여기에서 열거하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모세서 5:4-8; 니파이상서 9:17-21; 교리와 성약 59:8-12; 97:8-9 참조.
5. *Lectures on Faith* (1985), 68-69쪽 참조.
6. 요한복음 21:22.
7. 요한복음 12:26.
8. 모사야아서 14:4, 이사야 53:4 참조.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활동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성지 순례 여행이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지는 지금 혼란의 도가니이며,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기 위해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실상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테러 행위로 인해 전세계 곳곳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테러라는 적을 두려움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 평화 대 다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험한 시대는 경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웃 나라

의 땅에 불과 태풍과 연기의 안개가 덮이며 ...” “... 그 날에 여러 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들리고 ...”, “참으로 심한 부패가 일며... 온갖 가증한 악행이 있느니라 ...” 시대로서 예언되어 있습니다.<sup>1</sup>

그 예언은 이 지상 위에 살았던 인류의 두 번째 세대에 대한 초기 경전상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그 즈음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고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었더라, 그 때부터 전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지며 권세를 탐하여 ... 자기 형제와 다투며 살인하니라.”<sup>2</sup> 가인과 아벨,<sup>3</sup> 에서와 야곱<sup>4</sup>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 갔던 요셉<sup>5</sup>의 시대로부터, 적개심의 불길은 가족 간의 다름으로 인해 커져만 갔습니다.

형제들과 이웃들 간의 증오로 인해 이제 성스러운 도시들은 슬픔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곳의 비참함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옛 잠언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sup>7</sup>

## 교리적 지시

경전은 다음과 같이 인간 혐오증에 대한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sup>8</sup>

다투고자 하는 타고난 성향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대체될 때에만 평화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양”<sup>9</sup>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지상에서의 평온과 사람들 사이에서의<sup>10</sup> 호의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sup>11</sup>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sup>12</sup>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sup>13</sup>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sup>14</sup>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황금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sup>15</sup> 이 원리는 거의 모든 주요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들 또한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sup>16</sup> 어쨌든 복음은 베들레헴에서의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의 일부분들이 여러 문화 속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의 신화들조차도 초기 경전의 시대에 있었던 진리의 단편들을 통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어느 곳에서 발견되든 또는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황금률은 하나님의 왕국의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 단체 및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심과 인내심으로 인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sup>17</sup>라고 하는 복수의 욕망을 없애 줍니다. 우리가 만일 그 낡고 비생산적인 복수의 길에 머무른다면 우리 모두는 눈 멀게 되고 이를 잃게 될 것입니다.<sup>18</sup>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개념은 쉽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지닌 값진 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sup>19</sup> 경전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죄의 주인인 ...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고”, “...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가르치라”<sup>20</sup>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개인의 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sup>21</sup>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교사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

“하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

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리라”<sup>22</sup>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들의 지상에서의 삶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sup>23</sup>

#### 시민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된 형제, 자매들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은 분쟁과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전은 침략적인 전쟁을 강하게 비난하는 반면 자신들의 가족과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지지하고 있습니다.<sup>24</sup>

왜냐하면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기 때문입니다.”<sup>25</sup> 이 교회 회원들은 여러 나라에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곧 정부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으로 믿노니,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집행함에 있어 정부

에 대하여 취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sup>26</sup>

이 교회의 회원들이 적대 세력에 대항해 전투를 벌여야만 했던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확실히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정치적 복리와 국내 및 해외에서의 정치적 정책들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들을 규제할 책임을 지니지만 ... 교회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조국에 충성하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 달리 책임지지 않습니다.”<sup>27</sup>

#### 평화는 가능한 것임

지상에서의 오랜 전쟁의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평화란 불가능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평화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확신을 저버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슬람 교도이건, 혹은 다른 기독교인이건, 힌두교인, 불교인, 또는 그 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건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며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구약전서의 예언자들은 평화가 가능한 것으로 믿었으며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sup>28</sup>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sup>29</sup>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불리었습니다.<sup>30</sup> 평화는 아브라함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 기운데 하니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sup>31</sup>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영향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록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공통의 목적을 추구할 때에 자신들의 차이점을 극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그들은 자신들의 승영한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 협력했습니다.<sup>32</sup> 그들의 자손들은 그 모범을 잘 따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성하게 정해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겠으며<sup>33</sup>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과 야곱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sup>34</sup>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무궁한 영향력의 위대한 약속을 위탁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므로 그 자손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잠재력을 평화를 향해 쏟을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정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구해 간다면 그 과정이 크게 향상 될 것입니다.

이시야는 우리 시대에 대해 희망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합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한 교회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sup>35</sup>

이 희망의 예언들은 각 국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한다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유례없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야만성은 문힐 것입니다. 그 끔찍한 전쟁은 희미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각 국의 목표는 상호 보완적이 될 것입니다. 중재자가 교섭의 묘미를 발휘할 것이며,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세대들은 그러한 애국자들을 칭찬할 것이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우리의 창조주, 구세주, 여호와 및 심판자로 계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삶, 풍성한 삶 그리고 영생을 제공해 주십니다. 평화스러운 삶, 또한 번영된 삶은 그분의 권고에 따르며,<sup>36</sup> 평화를 향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 교회 회원들

이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전체로 우리는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sup>37</sup>해야 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화평의 일을 ... 세우는 일에 힘써야”<sup>38</sup>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황금률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에브라임 자손들의 기록들과 합쳐진 유다 자손들의 기록들도 지니고 있습니다.<sup>39</sup> 우리는 그 경전들을 활용하여 전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회복된 종교의 계시된

교리들과 신성한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기회에 따라 그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리들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옳은 것을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계속 모아야 하며 가족들을 영원히 함께 인봉해 주는 의식과 성약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는 축복들이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sup>40</sup>

우리의 대업은 하나님의 위대한 대업입니다. 우리의 대업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볼론서 8:29-31; 또한 디모데후서 3:1-7.

# 스테인크 축복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주님은 교회에서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는 축복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58년 전에 저의 감독님으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한 추천서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 스테이크의 축복사인 제이 로랜드 샌드스트롬 형제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없었으며, 그 후로 14년 동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날 그에게 축복을 드렸습니다.

저의 축복문은 공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동안 저의 마사에 우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축복사가 예언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으며 그의 축복이 제게 안내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만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방패요 보호책이었습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십이사도회는 계시의 지시로 교회의 모든 큰 지부에 축복사인 성직자

를 안수 성임할 의무가 있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는 축복사입니다. ...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모두 성도들의 후손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사를 가질 것이니, 그는 아들들에게 가장의 축복을 준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sup>2</sup>

경전은 세 종류의 축복사에 대해 말해 줍니다. 가족의 아버지<sup>3</sup>, 고대의 지도자인 예언자, 그리고 스테이크 축복사로 벨기세덱 신권 직분에 성임되는 사람입니다.<sup>4</sup>

아버지는 그 가족의 축복사이며 자녀들에게 가장의 축복을 주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스테이크 축복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에 의해 부름 받고 성임되었습니다. 스테이크의 수가 증가하자 이 책임은 스테이크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스테인크 축복사는 벨기세덱 신권의 다른 직분, 즉 장로, 대제사, 칠십인 및 사도와 마찬가지로 성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임되는 것입니다.

스테인크장은 그 이름을 십이사도 정원회에 제출합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이름을 살펴봅니다. 일단 승인이 나면 축복사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지지되고 성임됩니다. 그 후에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와드의 감독이 추천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축복을 줍니다.

축복사를 위한 유익의 사항 및 제안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테이크장과 축복사에게 이 성스러운 직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 12~13: 교리와 성약 45:26~27 참조.
2.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셋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감.
3. 모세서 6:15.
4. 창세기 4:8~10 참조.
5. 창세기 27:41 참조.
6. 창세기 37:28 참조.
7. 잠언 29:8.
8. 모사이야서 3:19.
9. 이사야 9:6.
10. 누가복음 2:14 참조.
11. 마태복음 5:9; 또한 니파이삼서 12:9;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5:11 참조.
12. 마태복음 22:37.
13. 마태복음 22:39; 또한 누가복음 10:27; 교리와 성약 59:5~6 참조.
14. 마태복음 5:44.
15. 마태복음 7:12; 또한 누가복음 6:31; 니파이삼서 14:12 참조.
16. B. H. Roberts, *New Witnesses for God* (1909~1911년), 3:492~3493쪽 참조.
17. 마태복음 5:38; 또한 출애굽기 21:24~27; 레위기 24:20 참조.
18. Joseph Stein, *Fiddler on the Roof* (1964년), 142쪽 참조.
19. 마태복음 25:40; 교리와 성약 18:10 참조.
20. 모사이야서 4:14~15.
21. 마태복음 5:22~24; 또한 니파이삼서 12:22~24;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5:24~26 참조.
22. 마가복음 11:25~26; 또한 요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11:27~28 참조.
23. 마태복음 12:36 참조; 로마서 14:10~12; 요한일서 4:16~21; 열마서 41:3; 니파이삼서 27:16~22 참조.
24. 열마서 43:45~47; 46:11~12, 19~20; 48:11~16 참조.
25. 신앙개조 제12조.
26. 교리와 성약 134:1.
27.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 6:155~56.
28. 시편 46:1.
29. 시편 46:9.
30. 야고보서 2:23; 또한 역대하 20:7; 이사야 41:8 참조. 오래 전에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천대"까지 적용될 성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신명기 7:9; 또한 역대상 16:15; 시편 105:8 참조) 그 성약은 말일에 실현될 것이다.(니파이일서 15:13, 18; 교리와 성약 124:58; 132:30 참조).
31. 아브라함서 1:2.
32. 창세기 25:9 참조. 아브라함의 원 이름인 아브람은 "승영된 아버지"란 의미이다.(*Bible Dictionary*, "아브라함," 601쪽 참조).
33. 창세기 21:13, 18 참조.
34. 창세기 17:19; 21:12; 22:18; 28:13~14; 35:9~12; 출애굽기 32:13; 신명기 9:5; 아브라함서 2:11; 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17:25 참조.
35. 이사야 11:11~12; 또한 로마서 15:12 참조.
36. 역대하 20:20; 마태복음 6:24~33; 요한복음 10:10; 니파이일서 2:20; 4:14; 니파이서 1:9, 20; 4:4; 예이름서 1:9; 모사이야서 1:7; 2:22, 31; 열마서 9:13; 36:1, 30; 37:13; 38:1; 48:25; 50:20; 힐라맨서 3:20; 교성 64:34 참조.
37. 교리와 성약 98:16.
38. 로마서 14:19.
39. 에스겔 37:16~19; 니파이서 3:12 참조.
40. 이사야 41:10.

다. 이 출판물은 수년 동안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검토될 때마다 책의 분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정원회의 한 선임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축복사들 간의 일을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테이크장과 축복사가 이 간단한 책자를 다시 읽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번 읽어 보십시오.

축복사는 축복을 받으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영감을 받을 때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야 할 나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독은 회원이 충분한 나이가 되었는지, 축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만큼 성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녹음되며 스테이크장이 지명한 사람이 글자로 옮겨 적습니다. 그 축복은 개인에게 매우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축복문을 읽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사나 감독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으며, 해석도 안 됩니다.

십이사도가 축복사를 부르고 성임할 당시, 우리는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는 축복사에 대해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연로하신 축복사가 있었던 한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의 축복사로서의 부름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축복을 주는 일은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스테이크장님은 지도자의 경험이 많은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축복사가 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관장단이 스테이크장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형제가 감리 역원으로서의 일을 잘 수행해 내고 연세가 많다는 것이 훌륭한 축복사가 되어야



컨퍼런스 센터 밖에서 대화하고 있는 두 명의 스테이크 축복사

한다. 혹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자신의 내면에 축복사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이것이 그의 우선적인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축복의 은사와 영을 지녀야 합니다."<sup>5</sup>

한 노인이 저녁 모임이 시작되려 할 때 봉로에 반쯤 걸여 들어왔으나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자 다시 예배당 뒤로 갔습니다. 그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옷을 잘 입고 있지 않았으며 분명히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테이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분은 누구지요?"

제 생각을 알았다는 듯이 그는 말했습니다. "아, 저 분은 우리의 축복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멀리 외드 경계 외곽에 살고 있으며 감독단이나 고등 평의회에서 역원으로 봉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개회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받고 불과 몇 마디 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계시를 통해 확신이 왔습니다. "이 분이 축복사다."

그 분에게는 여섯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막내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형들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결혼을 하여 전국에 흩어져 살며 교회 내의 부름에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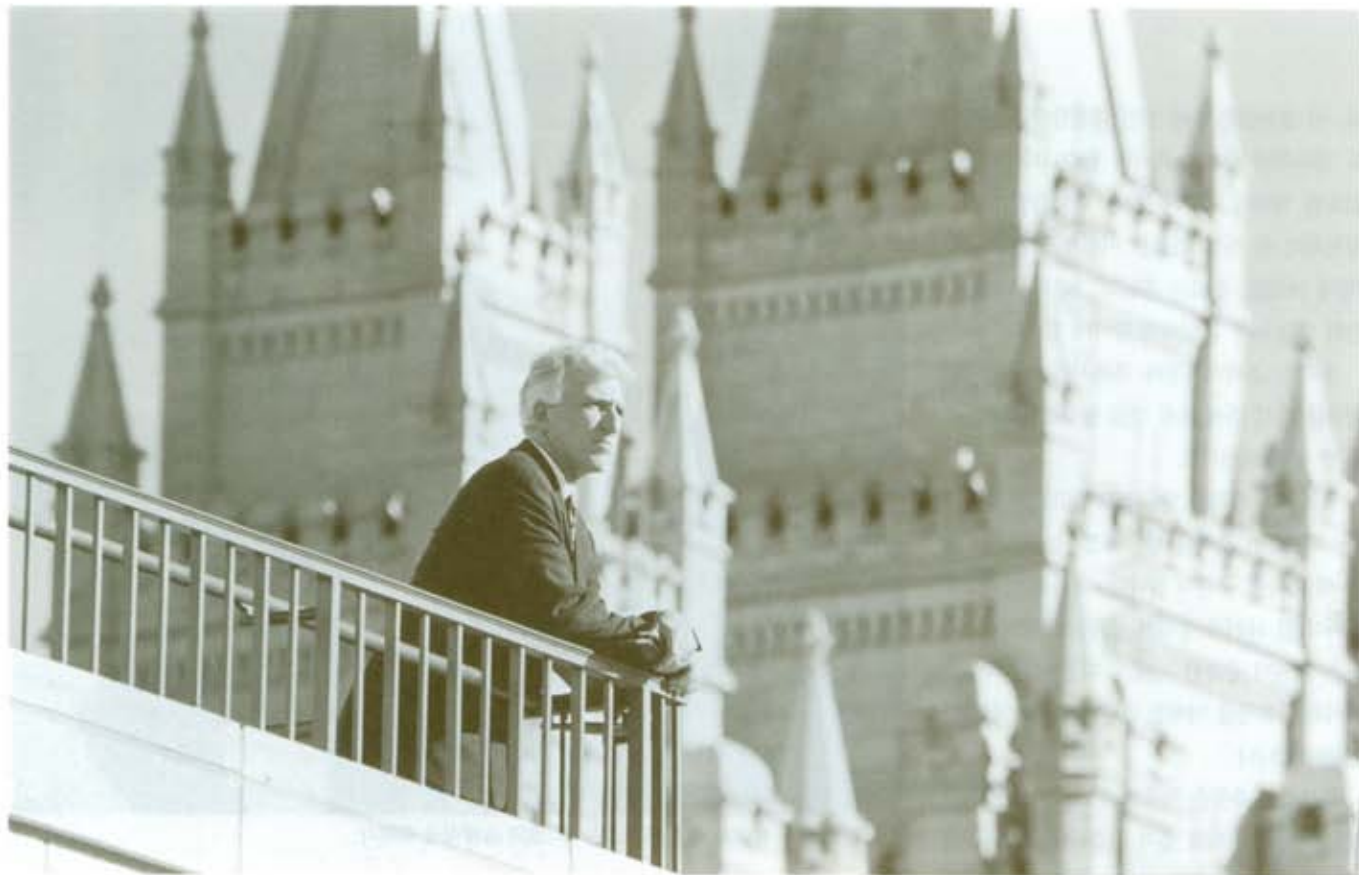
"따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오, 만나 보셨을 겁니다. 스테이크장단 보좌의 아내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축복사다, 그래, 이 사람이 축복사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집회소 현관의 휴에서 연로하신 축복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형제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축복사의 성함을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되면 형제님과 저와 스테이크장님만이 그분의 성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리자 그는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군요, 저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섞여 건물을 향해 오는 것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콩한 축복사가 될거야.’” 그것은 연료하신 축복사의 영감에 찬 확인이었습니다.

교회나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직분은 없습니다.

스테이크장은 축복사에게 세심한 주의와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분을 단에 앉히고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일 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축복사와 접견을 하고 그가 준 축복 가운데 일부를 읽어 보아야 합니다. 각 축복은 개인적인 것이며 회원에게 특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스테이크장은 정기적으로 이와 같이 축복문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책임에 압도된 어떤 축복사를 성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는 축복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테이크장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줄 때

사용할 앞 부분의 문장을 적어서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스테이크장은 승인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젊은이가 축복을 받으러 왔을 때, 저는 이 준비된 서두를 외어 두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저는 그 가운데 있는 말을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저는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영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의 가능성의 책에서 나온 문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읽을 경우, 우리는 계시의 영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할 인물에 관한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6</sup>

축복사의 축복에서 중요한 부분은 혈통의 선언입니다. 경전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축복사는 축복사의 반차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운명에 대해 알게 됩니다.

총관리 직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축복사는 축복을 줄 때 우리의 혈통, 즉 우리가 이스라엘 가문이라는 것을 선언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야곱의 특별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말일 성도들은 에브라임 지파로서 그 지파는 말일의 사업에서 지도자가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혈통이 실제 혈통이든 입양이든 상관없습니다.(값진 진주, 아브라함서 2:10 참조) 지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강력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창세기 12:2, 3; 값진 진주, 아브라함서 2:11 참조)

“그런 다음 앞날을 내다보는 축복사는 축복과 약속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도 있고 적절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을 통해 그것들을 그들에게 인봉하여 충실함을 통해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게 합니다.”<sup>7</sup>

우리에게는 많은 혈통이 있기 때문에 한 가

족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이 각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로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감독의 추천을 받은 축복사는 자신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삼촌이나 좋아하는 가족의 친구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예외의 경우를 요청받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스테이크 축복사에서 축복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선교부 산하 지방부나 축복사가 없는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인접한 스테이크에 있는 축복사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감독이나 지부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회원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있는 계시의 권세를 느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축복사의 축복에 주어지는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복문에는 그 회원이 결혼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반자를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질을 가진 것들은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의 존재로부터 죽음의 장막 너머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연로해지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허약해질 경우, 또는 스테이크에서 이사 가거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등의 경우, 스테이크장은 그 축복사가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일에서 영예롭게 물러나도록 십이사도 징원회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럴드 비 리 대관장님은 한 축복사의 부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스테이크장과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루종일 이들과 함께 복지 농장에 가 있었

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쳤으며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 대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를 찾아간 이유가 그를 스테이크 축복사로 부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을 때, 그는 더 지친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 형제가 훌륭한 간증을 전한 대회 오전 모임 후 그들은 지하에 있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 곳에 참석했던 스테이크장의 부인이 리 대관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관장님께서 그에게 안수를 하기 위해 손을 얹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함께 여행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그의 책임 가운데 일부는 축복을 통해 혈통을 선언하는 것인데, 고대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대관장님께서 걸어가서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을 때, 대관장님 뒤에서 빛이 나와 대관장님을 통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 순간 햇빛이 방안에 들어온 것은 이상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저는 그곳에 [창문도], 햇빛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목격했습니다. ... 그 빛은 리 대관장님 뒤 어딘가에서 나와 그분을 통해 이 축복사에게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가 어디서 그러한 지식들을 얻게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입니다."<sup>6</sup>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축복사가 성임되거나 축복이 주어지면, 그와 똑같은 빛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곳에 임재합니다. 그것은 축복사가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혈통을 선언하고 예언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합니다.

스테이크 축복사의 직분이 소홀히 여겨지거나 무시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스테이크의 영적인 힘에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테이크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스테이크 축복사의 일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와 접견하고 축복을 준 것의 일부를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축복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받는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영감을 통해 예언적이고 영감에 찬 축복을 줄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는 축복사가 되십시오. 영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름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전에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저희 축복사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햇빛을 바라보고, 실수와 불신, 의심과 낙담의 그림자가 여러분 뒤로 사라지게 하십시오."<sup>7</sup> 저는 여러 차례 주님의 영감받은 종으로부터 받은 축복사의 축복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성한 직분이며 성스러운 직분이고 이 교회에 대한 축복임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한 축복을 위해 그분의 교회 내에 마련하신 축복의 모범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107:39.
2.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년], 151쪽.
3. 아담이 후손들에게 권고하고 축복함(교리와 성약 107:42~56 참조); 아담이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축복함(창세기 49:1~28 참조); 리하이가 그의 후손을 축복함(니파이서서 4:3~11 참조).
4. 구세주께서 사도, 예언자, 축복사 등을 성임하심(에베소서 4:11 참조); 십이사도의 의무는 축복사를 성임하는 것(교리와 성약 107:39 참조); 하이람 스미스가 축복사의 직분을 받기로 되어 있음(교리와 성약 124:91~92, 124:135:1 참조).
5. 대관장단 서한, 1903년 6월 29일; 또한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년), 4:57~58쪽 참조.
6. Harold B. Lee, *Stand Ye in Holy Places* [1975], 117.
7. John A. Widtsoe, *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3 vols. (1943~1951), 1:73~74쪽.
8.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 488~489쪽.
9. 보이드 케이 패커의 축복사의 축복, 1944년 1월 15일, 2쪽.

#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아론 신권을 가진 젊은 형제 여러분에게 일어서며, 필요한 자격을 갖추며,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온전히 준비되도록 촉구합니다.



**물** 문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하고 교훈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암몬 백성들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데 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성약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위험을 직접 목격하고 저들로 하여 니파이인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보고 감동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겠다 하였습니다.”(앨마서 53:13)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존중하도록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경전에는 부모가 맺은 성약과 똑같은 성약을 그 아들들이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언급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들이 “무기를

들고 스스로 니파이인이라” 불리기를 바라는 가능성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니파이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는 목숨이라도 바치기를 맹세하니”(앨마서 53:16~17)

이것은 이천 명의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과제이었지만, 그들은 비범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경전 기록에 따르면, “저들은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은 바에 충실하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라,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더라.”(앨마서 53:20~21)

나머지 이야기는 이 젊은이들이 훨씬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레이맨 군대를 상대로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젊은이들의 지도자였던 힐라맨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은 듯 싸웠으며, ... 이들이 이토록 놀라운 힘으로 레이맨 인들을 내려쳤으며 레이맨인들이 이들을 두려워하였고 마침내 항복하여 포로가 된 것이라”(앨마서 56:56)

상상해 보십시오! 이 미숙한 젊은이들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도 잘 준비되어 있었기에, 적들이 두려워하여 항복하였습니다! 이 이천 명의 젊은이들은 한두 차례 부상을 당하

기는 했으나 전사자는 없었습니다.(앨마서 57:25 참조) 다시 힐라맨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 이러한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큰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배운 대로 굳건히 믿는 신앙을 가진 때문이었다.”(앨마서 57:26)

형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모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보다 훨씬 위험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교활하고 지략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온갖 거짓의 아비이며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모든 것의 적인 루시퍼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그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저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 3:2~5)

형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세계는 바울의 말씀이 저녁의 황금 시간대에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인간의 영혼을 위해 싸웁니다. 적은 용서란 전혀 없으며 냉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은 놀라운 속도로 영리한 포로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전혀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진리와 의를 위한 싸움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 드리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암몬 백성들이 레 이맨인들과의 전쟁에 지원군을 보내기 위해 자신들의 아들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론 신권을 지닌 어린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힐라맨의 젊은 이천 용사들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이 아들들이며, 여러분도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방어하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입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에 충실하였던" 것처럼 합당하고, 자격을 갖추고, 영적으로 왕성한 선교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다음 단어들을 들어 보십시오. 용맹, 용기, 기운차, 활발함, 진실, 우리는 영적으로 약하고 부분적인 헌신을 하는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리만을 채우는 젊은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총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아는 용맹스럽고, 사려깊고, 열정적인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활동화 되고, 개선행되고, 간증을 갖게 하기 위해 선교 사업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교리와 성약 4:5)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완전히, 그리고 합당하게 되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손과 정신을 어떠한 형태의 도덕적인 죄로부터도 순수하고 더럽혀



지지 않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을 피하듯이 외설물을 피하십시오. 외설물은 바로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담배, 술, 불법적인 약물들을 완전히 멀리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정직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훌륭한 시민이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오늘 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지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신권 소유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젊은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간증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높은 표준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여러분이 멜기세

덱 신권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고, 선교사로 봉사하고,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주님의 표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며, 여러분이 예전에 들어 보지 못한 것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아론 신권을 가진 젊은 형제 여러분에게 일어서도록,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온전히 준비되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의 합당성과 결심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이 준비 과정의 출발점이 되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제가 방금 말한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면서, 적절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어떠한 죄에 대해 아버지나 감독님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변화하도록 도와 주어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의 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선교사 봉사를 위한 표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가" 선교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죄가 되는 행동에 빠져 있다가 18세 반이 되면 회개한 후 19세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은 봉사할 자격을 갖출 수도 있고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고 순수하고 용감하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와 의미 있는 기도 관계를 가지십시오.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 일을 하고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십시오.
- 완전하고 정직한 심일조를 내십시오.
-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일 분 안에 얼마나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컴퓨터 게임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는 노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 더 많은 시간을 경전을 공부하고 세상에 전해야 할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얻음으로써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바치십시오.
-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과 간증을 나누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가 멜기세덱 신권, 결혼, 아버지의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의미심장한 영향력은 가족이라는 것을 압니다. 만일 아들이 충실한 아버지가 되는 데 필요한 기본 교리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분명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너무도 많은 아버지들이 이 영원한 책임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감독과 세미나리, 주일학교, 청남 교사 및 지도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자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신권을 받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데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존재합니다. 교회가 결코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잘못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표준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표준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부모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힐라멘의 이천 용사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며"(엘마서 53:21), 그 가르침이 그들 가정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합당성 문제를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권리가 감독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의 합당성을 알아 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건강과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이 나누는 문제와 염려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합당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대답이 아닌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감독님들은 자주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관해 부모에게 말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절차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인지하여 감독이 알기 전에 문제들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상담하고 완전한 회개가 필요한 경우 자녀와 함께 감독에게 가야 합니다. 신성한 권능에 의해 이스라엘의 판사로 임명된 감독과 스테이크장은 교회를 대신하여 합당성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복리를 위한 영원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요, 조언자요, 신권 지도자로서의 정당한 지위에 맞는 소임을 다하십시오.

이제, 감독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없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회 자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아픈 신권 소유자들이 미래의 신권 사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멜기세덱 신권 형제에 의해 가르침을 받게 하십시오. 감독과 스테이크장 여러분에게는 영적,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오늘날의 선교 사업 현실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젊은 형제들과 자매들만 추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모든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 봉사하도록 부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지시 하에 와드 선교사로 가장 잘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받은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표준에 자신이 부합되는지 자신의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 볼 좋은 시간입니다. 만약 부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선교 부장님께서도 효율적이고 헌신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봉사한 귀환 선교사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에서 해임된 것이 교회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2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언제나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명같이 보이며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제자처럼 보이십시오, 제자처럼 행하십시오, 세상적인 유행과 경향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보다 더 훌륭합니다. 만일 표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균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난 후의 행복과 성공의 법칙은 선교 사업을 할 때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가운데 인생을 즐길 동반자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밤 분명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고 부탁드리면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갖는 사랑과 염려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는 소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진실한!"(엘마서 53:20) 용기와 여러분이 누구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비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가 경험과 적성과 힘이 모두 같지 않더라도,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을 지니게 되며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와 기회를 사용한 것에 대해 모두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성** 신권을 지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대관장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거의 전무 후무한 업적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그 분도 한때는 대다수의 여러분처럼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였습니다. 아론 신권 청년 여러분은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교회의 성공이 바로 주님의 사

업을 이룩하겠다는 결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앙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님들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세인 하나님의 성신권을 받으셨습니다. 그 신권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님은 우리가 이 위대한 권능을 사용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열 살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꼬마 기관차"라는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기차가 온통 장난감 동물, 장난감 어릿광대, 짝나이프, 피즐, 썩,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로 기차를 끌어올리던 기관차가 고장 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커다란 여객용 기관차가 지나가다가

꼬마 기차를 산 너머로 끌어 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그 기관차는 꼬마 기차를 끌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관차가 지나가지만 그 역시 화물용 기관차라 꼬마 열차를 도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늙은 기관차가 지나가지만 “난 피곤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도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파란 꼬마 기관차가 철로를 내려 오다가 산 너머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데까지 기차를 끌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 꼬마 기관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몸집도 크지 않고 보선소에서 차량 교체용으로만 쓰여, 한번도 산을 넘어 본 적이 없는 걸.” 하지만 산 너머 어린이들이 기차 속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면 실망할 거라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고는 뒤에다 꼬마 기차를 연결합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파란 꼬마 기관차가 나아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자세로 꼬마 기관차는 산꼭대기까지 오른 뒤 산 너머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sup>2</sup>

간혹 우리는 모두 자신을 힘껏 활용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디어더우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나는 그저 보통 사람이지만, 정말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sup>3</sup> 우리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재능들을 키웁니다. 우리는 모두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압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주인이 결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보고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하여 더 많은 것을 다스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sup>4</sup>

자신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결산에서 이 게으른 종은 자신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데도 주인을 욕되게 했습니다.<sup>5</sup> 그는 그 돈을 땅에 묻

어 두는 대신 그것을 빌려 주어 이자라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달란트는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sup>6</sup>

가장 적게 가진 사람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에게 준 것이 공정한가에 대해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은 각자가 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하십니다.<sup>7</sup>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만족합니다. 성장과 개발의 기회가 많은 데도 뒤로 물러나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왕국을 돌보리라는 수동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주님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산 너머로 기차를 끌고 갔던 파란 꼬마 기관차처럼 자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넉넉히 가졌노라” 하는 자에게서는 “가진 것조차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신권 소유자를 포함한 그분의 모든 종들에게 영적인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이러한 달란트를 주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믿노라. 나는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믿노라.” 우리가 경험과 적성과 힘이 모두 같지 않더라도,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을 지니게 되며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와 기회를 사용한 것에 대해 모두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에는 큰 능력을 가진 신권 소유자에 관한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총명했지만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어서 주님이 풍성하게 부여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잃고 만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브래넨은 브루클린 호를 타고 케이프 혼을 돌아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샌프



신권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청년 합창단

란시스코 만에 정착하기 전에 잠시 하와이에 들렀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본대가 로키 산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로 가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여행하여, 와이오밍 주 그린리버에서 브리감 영이 이끄는 첫번째 이주민 대대를 만났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회들을 이용하도록 은 힘을 기울여 브리감 영을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면 그 곳에서는 5년 정도밖에 머물 수 없지만, 로키 산맥에 정착하면 감자를 재배하여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 생각입니다."<sup>9</sup> 브래넨은 며칠 동안 성도들 본대와 머물렀으나,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1847년 8월에 결국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겸손하게 기차를 산 너머까지 끌어 주려고 하지 않았던 큰 기관차처럼, 샘 브래넨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과 돈벌이에 주력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업체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캘리포니아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 성도들 그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영 대관장은 그에게 캘리포니아에서 골드 러시(1849년

사람들이 새 금광지로 쇠도한 입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교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십일조를 결산하도록 요청했으나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금을 교회를 세우거나 그 곳 회원들을 돕는 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브래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체들을 설립하고 땅을 매입하는 데 크게 성공했으나 결국은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는 혼자였으며, 몸과 영과 재정 모두 파산 상태였습니다. 16개월 동안 아무도 그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샌디에고의 마운트 호프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샘 브래넨은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결국은 자신의 신권 청지기 직분을 영예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값을 혹독하게 치르고 말았습니다.<sup>10</sup>

현재 이 교회의 신권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따르고 지지해야 합니다.

"꼬마 기관차"와 같이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으면서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신권이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용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 나."<sup>11</sup>

올바른 길에 있기 위해서는 감리 신권 열쇠를 가진 분들을 존경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sup>12</sup>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 택함을 받으니까?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재능을 통해 이 거룩한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에만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주님이 설명하신 의로운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sup>13</sup>

신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본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권의 권

세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신권의 권세를 저수지와 같이 잠재력을 갖고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는 자유로운 힘이 계곡과 들판과 정원과 행복한 가정에서 활약할 때에만 역동적이 되고 생산적이 됩니다. 따라서 권세의 원리는 인간들의 생활에서 활약하게 될 때에만 발휘되어 인간들의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게 합니다.<sup>14</sup>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신권은 수동적인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을 통해 오는 축복의 권세를 특히 여러분의 가족에게 관대하게 행사하십시오. "누구든지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sup>15</sup>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권 청지기 직분에 대해 주님께 보고할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주께서 그 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sup>16</sup>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너무 고만해서 부여된 임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덩치 큰 여객 열차용 기관차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유명한 시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어디서 일하리이까?  
저의 사랑이 따뜻하게 흘러 넘치나이다.

그러자 작은 지점을 가리키시면서  
"나를 위하여 저것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즉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것은 싫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저것을 안 볼 겁니다.

저 작은 것만은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엄한 음성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 작은 사람이여, 그대의 가슴을 살펴 볼지  
어다.

그대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가?

나사렛은 작은 장소였으며,

갈릴리도 그랬느니라."<sup>17</sup>

"조금 더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 그 화물 열차용 기관차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여 주"<sup>18</sup>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에서 가장 보람되는 때라고 하면 "조금 더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몸

은 쉬기를 바라지만 더 나은 자아가 일어나 말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sup>19</sup>

또는 그 늙은 기관차처럼 너무 피곤하다거나 너무 늙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헝클리 대관장은 92세이며 아직도 건강하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고마 기관차"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집이 크지도 않고 차량 교체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산을 한 번도 넘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기관차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고마 기관차는 주저않은 기차를 몸에 걸고 산꼭대기를 칙칙폭폭 오른 뒤 그 산을 내려가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도 오른 적이 없는 산들을 올라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사업은 위대하고, 우리의 신권 책임은 막중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와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 하에 이 거룩한 사업을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추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121:36.
2. "The Little Engine That Could," retold by Watty Piper, from Mabel C. Brugg, *The Pony Engine*.
3. Evan Esar, ed., *Dictionary of Humorous Quotations* (1964), 151.
4. 마태복음 25: 15, 16~18, 21, 24~25.
5.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581쪽.
6. 마태복음 25:29.
7. 마태복음 25:15 참조.
8. 니파이서서 28:30 참조.
9. *Discourses of Brigham Young*, ed. John A. Widtsoe (1954), 475.
10. See John K. Carmack, "California: What Went Right and What Went Wrong," *Nauvoo Journal*, spring 1998; Paul Bailey, "Sam Brannan and the Sad Years," *Improvement Era*, Apr. 1951, 232~234, 282~287.
11. 교리와 성약 121:37.
12. 교리와 성약 121:34.
13. 교리와 성약 121:41~42.
14. *Pathways to Happiness* (1957), 23.
15. 교리와 성약 132:47.
16. 니파이서서 9:41.
17. Mende McGuire, quoted in Thomas S. Monson, "The Call of Duty," *Ensign*, May 1986, 39.
18. 니파이서서 12:41.
19. 니파이서서 16:8.



# 잠잠하라, 고요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거룩한 경전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밤 청남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니  
제가 어린 소년 시절에 불렀던 노래  
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런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나가 선한 일 행하라, 내 온 정성 다하여  
기쁜 찬송 부르며 나아가서  
너의 의무 다 하라, 쉬지 말고  
즐거이 모든 일하여, 세상 교회 빛내세."

소년인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준 합창단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했  
습니다. 스텔라 워터즈 자매님은 지휘봉을 우리  
얼굴 가까이 바짝 갖다 대고 흔들었으며 발을  
쿵쿵 구르면서 박자를 맞추곤 하였는데, 그때마  
다 마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박자에 맞춰 노래를 제대로 부르면,

워터즈 자매님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찬송가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늘 다음  
노래를 골랐습니다.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세찬 파도 이오며  
새끼만 구름 하늘 덮고  
도움도 없습니다.  
죽으면 어찌하리까?  
이제 금방 우리 깊은 바다에 묻히겠는데  
주여 주무십니까

그 다음에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후렴이 나  
옵니다.

풍파도 순종할 잠잠하란 주의 뜻  
바다나 귀신이나 인간 그 어느 것들의 진노이  
든지  
대양과 천지의 주 계시는 그 배를 삼킬 파도  
없도다  
모두 순종할 잠잠하란 주의 뜻  
모두 순종할 잠잠하란 주님의 뜻

저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폭풍이 이는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  
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생활 주변을 뱅글뱅글  
우리의 꿈을 짓밟고, 우리의 기쁨을 망치게 하  
며, 우리를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악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파괴적인 악이 많이 있습니다. 젊  
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물리쳐

야 하는 악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욕심, 부정직, 부채,  
의심, 마약 및 음란 행위와 부도덕 등입니다.  
이러한 악은 어느 것이든 우리의 삶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악이 여  
러 개가 합쳐지면 여러분은 영적인 파멸을 맞  
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는 욕심을 조심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  
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  
족하지 아니하니라."<sup>3</sup>

예수님은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삼가 모  
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sup>4</sup>

우리는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  
니다.

부정직의 경우 여러 장소에서 그것이 저질  
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입니다. 부정 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을 하  
는 경우인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  
다. 정직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남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할 것인가?" 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나 빛에 대한 유혹이 우리  
에게 밀어닥칩니다. 저는 빛과 관련하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권고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큰 액수의 분할 불입금을 떠안고 있  
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유혹적인 광고에 많이 속습니다.  
텔레비전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기 집 가치의  
125퍼센트에 달하는 돈을 빌려 줄 수 있다는  
유혹적인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에 맞는 집을  
사서 자비도 중단도 없이 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늘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지 불금의 액수를 줄이도록 합니다.”<sup>9</sup>

저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저는 물론 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약은 사고와 논리적 판단과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마약 중독은 종종 폭력과 자녀 및 아내 학대를 불러옵니다. 마약에 빠지면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마약을 권하면,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굳은 결심을 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음의 성구는 이 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해 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sup>10</sup>

**음란 행위와 부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악을 논함에 있어서 제3의 악인 **외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악은 늘 함께 있습니다.

경전에서 외설의 파괴력을 잘 설명한 글을 리하이의 꿈의 해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흑의 안개는 악마의 유혹이라, 인간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저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여 저들이 멸망되며 주 앞에서 잃은 바 되느니라.”<sup>11</sup>

현대의 사도인 휴 비 브라운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불순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어떤 것이라도 육신, 즉 성신이 거하는 성전을 불경하게 하는 행위입니다.”<sup>12</sup>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임프르브먼트** 이라 잡지에서 인용한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17년에 실린 글이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량한 복장, 간행물과 연극과 특히 영화에서 범람하고 있는 외설, ...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에서 볼 수 있



는 음담 패설 및 음란한 제스처를 용납하는 풍조는 영혼을 파괴하는 악을 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sup>13</sup>

알렉산더 포프는 고무적인 “인간에 관한 수필”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악이란 무서운 괴물*

*미워해야 하나 눈에 자주 띄는 것,*

*너무 자주 보므로 낮익게 되고,*

*처음에는 참으나, 동정하게 되고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다.”<sup>14</sup>*

외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sup>15</sup>

우리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양심은 판사로서 우리를 벌하기 전에 친구로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sup>16</sup>

형제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향이 남는 결과입니다.

각 가정 어디서나 우리 개인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아버지들은 자신도 한 때 소년이었으며, 아이들은 때때로 부모를 화나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어린 소년 시절에 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웨곤에다 오렌지 나무 상자를 싣고 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보행도로, 공터 등 어디에나 개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저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하여 잡은 다음 나무 상자에 싣고 집으로 데려와서 석탄을 저장하는 헛간에 가두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 날 저는 아마 크고 작은 개 여섯 마리를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들을 석탄 저장 헛간에 가두고 포로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와서는 늘 하시던 대로 양동이를 들고 석탄을 담기 위해 헛간으로 가셨습니다. 헛간 문을 열고 여섯 마리의 개를 보자 기겁을 하셨습니다. 개들도 놀라서 모두 달아나려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버지께서 얼굴을 약간 붉혔고, 진정하신 후에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미, 석탄 헛간은 석탄을 저장하는 곳이다. 개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안내와, 일을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잘 한 일이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 클라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클라크는 새, 파충류 등 살아 있는 동물이려면 무엇이든 좋아했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이 아수라장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프로보 캐논에서 물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는 그 뱀의 이름을 허만이라고 지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직후 물뱀이 없어졌습니다. 몬슨 자매는 물뱀을 수저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물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버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물뱀을



욕조에 옮긴 다음, 배수구를 고무마개로 막고 욕조에 물을 조금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욕조 뒤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붙였습니다. "이 욕조를 사용하지 마시오. 이 욕조는 물뱀의 것입니다." 그래서 물뱀이 이 욕실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른 욕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놀랍게도 물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뱀에게 차라리 헝가리 마술사의 이름을 따서 후디니라고 지어 주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문손 자매가 욕조를 청소한 다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가롭게 목욕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욕조에 온수를 가득 채우고 느긋하게 욕조에 누운 다음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욕조에 그대로 누워서 비눗물이 오버플로우 배수구에 도달하여 배수구로 빠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배수구에서 물뱀이 헤엄쳐 나와 바로 제 얼굴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내에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물뱀이 나타났어요!"

물뱀을 다시 잡아 안전 상자에 집어 넣고는 프로보 개년에 있는 비비안 파크로 가서 아름다운 사우스 포크 개울에다 놓아 주었습니다. 그 후 물뱀은 다시 우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에 신권 소유자에게 전하는 간단하면서도 직설적인 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저는 이 계명을 언제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명대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존 테일러 대관장님이 신권 형제들에게 주신 지침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듣습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sup>13</sup>

저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조용하게 들려 오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지체 없이 그 속삭임에 따라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삭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큼 달콤한 경험이나 소중한 느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일 년 전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의 성 요셉 빌라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나이 많은 미망인을 방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그녀가 간 곳을 묻자 간호사는 저를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미망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여동생과 다른 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휴게실 문으로 오더니 자판기에서 소다수를 꺼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뚝 문손 형제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형제님은 헤밍웨이 형제님을 닮았군요."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제가 오래 전에 감독이었을 때 저의 보좌였고 제가 진이라고 불렀던 알프레드 유진 헤밍웨이

의 아들인 스티븐 헤밍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은 아버지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곧 돌아가시게 될 것 같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알아 누워 있으면서 줄곧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가족은 저와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저의 선화 번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망인에게 실례한다고 말하고 즉시 스티븐과 함께 저의 옛 보좌의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에는 그의 나머지 자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러 해 전에 별세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병원 휴게실에서 스티븐을 만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나를 만나고 싶었던 저의 옛 보좌의 소망을 들어 주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스티븐이 제가 병원을 찾은 바로 그 시각에 제가 있었던 휴게실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이 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곧 평온한 분위기가 그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방문을 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진 헤밍웨이는 저와 그의 아들에게서 축복을 받고 나서 정확하게 20분 있다가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병원으로 인도하신 영향력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속삭임을 통한 인도의 권고가 있었기에 저는 성 요셉 빌라 병원에 입원한 저의 사랑하는 친구, 알프레드 유진 헤밍웨이를 방문할 수 있



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영의 영향을 받아 겸손한 기도에 참여하고 신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때 진 헤밍웨이 머리에 떠올린 생각은 제가 말씀이 서두에서 인용한 찬송가 "주여 큰 폭풍우 일고"의 가사 중에서 다음 내용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주여 이제는 떠나지 마소서

행운의 항구에 기항하여 기쁘게 편히 쉬리

저는 지금도 이 찬송가를 좋아하며, 이 찬송가를 통해 받은 위로에 대해 오늘 밤 이런 말로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바다나 귀신이나 인간 그 어느 것들의 진노이든지,

대양과 천지의 주 계시는 그 배를 삼킬 파도 없도다.

모두 순종할 잠잠하란 주의 뜻."<sup>14</sup>

거룩한 경전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sup>15</sup> 저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윌 엘 톨슨(1847~1909), 찬송가 161장, "세상은 즐거워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2. 마리 엘 베이커(1874), 찬송가 59장, "주여 큰 폭풍우 일고".
3. 전도서 5:10.
4. 누가복음 12:15.
5. "칭찬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야호나, 1999년 1월호, 51쪽.
6. 고린도전서 3:16, 17.
7. 니파이일서 12:17.
8. *The Abundant Life* (1965), 65.
9. 요셉 스미스, "Unchastity the Dominant Evil of the Age," *Improvement Era*, June 1917, 742쪽.
10. In John Bartlett, *Familiar Quotations*, 14th ed. (1968), 409.
11. 고린도전서 10:13.
12. 교리와 성약 133:5.
13. Quoted in Hugh B. Brown, *The Abundant Life*, 37.
14. 찬송가 59장.
15. 시편 46:10.

# 신권 형제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 고귀한 신권을 소유한 남성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항상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주님의 영이 저를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매우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과 회원 수는 너무도 광대에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평신도 지도자의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일입니까! 이 방식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합니다. 결코 대규모의 유급 목회자들을 갖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독님들과 스테이크장님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분들의 어깨에는 너무도 무거운 행정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는 일부 길고 흥미로웠던 몇 번의 모임을 가졌으며, 그 모임에서 교회와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폐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분석해 갈 때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를 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중 한 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여러분이 지고 계신 짐과 소비하는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권 모임에서 저희가 토의한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작지만 저희가 약간 발전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1일부터 성전 추천서의 유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감독님, 스테이크장님 및 그분의 보좌들은 성전 추천서 집전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전 추천서 소유자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 어느 때든지 그분들의 추천서를 회수해야 하는 책임이 감독님과 스테이크장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볼 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추천서 상에 적혀 있는 날짜와는 무관하게 유효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입니다. 그 후로는 추천서가 현재의 1년에서 매 2년마다 갱신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다른 사항입니다.

벨라드 장로님이 말씀드린 선교사들과 관련 된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젊은 청년, 청년들이 자신들이 설명한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봉사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합당성과 자질의 표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현재 교회 안에는 흥미로운 관행이 있습니다. 임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위한 송별회입니다. 일부 와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위한 송별회와 환영회에 대부분의 성찬식 시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송별회를 갖지는 않습니다. 새로 부름 받는 감독, 스테이크장, 상호부조회 회장, 총관리 역원, 또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부름을 시작할 때 송별회와 같은 특별한 모임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교사들을 위한 송별회를 해야 합니까?

대관장단과 심이사도는 심사 숙고한 끝에 현재와 같은 선교사를 위한 송별회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임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은 성찬식에서 15분 내지 20분 동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들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말씀 부탁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같은 성찬식에서 임지로 떠나는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선교사들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 그 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감독님의 계획과 감리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음악이나 그와 유사한 순서도 없을 것입니다.

서회는 이것이 많은 가족들에게 큰 실망이 될 것임을 압니다. 이전에는 이 송별회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 결정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송별회가 계획된 경우에는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전통적인 송별 모임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이것이 현명한 결정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결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자매님들, 특히 어머니들에게도 똑같이 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그 선교사가 말씀하는 성찬식 후에 집에서 정성을 들여 환송 파티를 여는 것이 유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는 대대적인 환송 파티는 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업은 그 자체가 후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 매우 훌륭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가족과 와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성찬식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년 반 전 4월 연차 대회에서 설립된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금은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기부한 것으로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와 합당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5,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충실한 말일성도들에게는 현재 그들이 살고 있고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살아온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입 능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인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은 첫 번째 여성은 1년간의 교육을 마쳤으며 남은 1년의 교육을 위해 다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치과의 보조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그녀는 식당에서 월 130불을 받고 일했습니다. 곧 교육을 마치고 나면 즉시 500 퍼센트 인상된 월 650불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적은 돈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5,000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학생들은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자, 경영 상담가, 간호 기술, 정보 시스템 기술사, 간호사, 병원 근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엔지니어, 패션 디자이너, 경리, 전기 기사, 영어 교사, 제빵 기술자, 호텔 경영인 및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가정의 밤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많은 지역에서 시들해지고 있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다. 형제 여러분,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7년 전인 1915년에 시작되었으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말일성도들에게 가족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비워 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가르치고, 경전을 읽고, 재능을 개발하고, 가족의 일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행사나 그와 비슷한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이러한 가족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늘어나고 있는 시급한 활동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앉아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가족의 문제를 염려하고, 자녀들에게 재능을 발표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교회 가족들 사이의 필요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계시 아래 시작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87년 전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 그러한 필요는 분명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활동을 위해 월요일 저녁을 활용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회 회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 당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존중하여 그 날 저녁에는 일체의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월요일 저녁에 다른 행사들을 계획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립학교 당국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월요일 저녁에 자녀들의 시간을 요하는 행사를 계획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쪽에 더 충실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없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에 협조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월요일 저녁을 가족을 위

한 신성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 기회와 과제를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저는 이런 저런 형태로 지역 사회에서 갖는 월요일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적잖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월요일을 가정의 밤 시간으로 비워 두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러한 초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의 모든 회원 개인과 가족이 자립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언제 큰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질병, 상해, 실직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역에 곡물 저장소와 같은 것을 위한 시설을 갖춘 훌륭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돈과 더불어 식량을 보관해 두는 가장 좋은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 프로그램은 우리 자신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집에 있는 말가루 다섯이나 여섯 통이 복지 센터에 있는 많은 양보다 낫습니다.

저는 임박한 재앙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신중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 보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화재가 없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앙이 일어날 경우 보상 받기 위해 보험을 듭니다.

우리는 가족의 복지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분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 달분으로, 그런 다음 석 달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식량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권고는 새로운 것이 아닙

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식량 비축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됩니다.

형제 여러분,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여 점차 알맞은 목표를 향해 나가십시오. 돈을 정규적으로 조금씩 모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놀랄 것입니다.

부채를 청산하고 부채가 가져오는 무서운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집을 두 번씩 정당잡히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 번씩 정당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출에 관한 문제,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문제, 파산으로 이끌고 그와 더불어 오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행동에서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회에서 벨라드 장로님과 몬슨 부대관장님이 다른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한 것을 제가 다시 강조하려는 것에 대해 그 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원들의 도덕적인 기강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일과 그로 인해 비롯된 쓰디쓴 모든 결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있는 소년들, 즉 청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죄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부도덕한 일에 관여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행동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집에 가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기에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피하도록 간청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제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유혹은 강력하고 매혹적입니다. 그것은 영리한 악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외설물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밑으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침례 요한이 요셉 스미스와 율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할 때 그는 이 신권이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3편)

여러분은 천사의 성역을 원하십니까?

그 성역은 비길 데 없는 보상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양육하시며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12:10)

저는 성인 여러분에게 똑같은 청원과 똑같

은 경고를 드립니다, 큰 비극도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상심, 후회, 환멸 그리고 이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다루었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악하고 경멸스러운 아동 학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교회의 징계뿐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 학대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의 아름다움과 천진난만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아동 학대에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있는 모든 사람을 훈계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파멸을 부르기 전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고귀한 신권을 소유한 남성 여러분, 그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항상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빌립보서 4:7)

젊거나 나이 드신 저의 사랑하는 신권 형제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아들들은 아버지들에게서 지혜와 인도 그리고 지식을 구하십시오.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큼니까! 여러분께 저의 축복과 사랑 그리고 간증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하나로써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신권은 선을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따라야 할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오늘날의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는 표준, 즉 따라야 할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한 교회 잡지의 표지에 칼 블로흐의 훌륭한 그림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화가가 그의 머릿속에 그려 두었다가 나중에 장인의 손길로 캔버스 위에 옮겨 놓은 그 장면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환영하는 사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기적적인 잉태로 태중에 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침례 요한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경우에도 유년 시절에 대해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서 성역을 베풀게 될 때까지 요한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 한 구절의 글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요한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그는 신앙,

회개, 침수에 의한 침례 및 자기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해 성신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그를 따르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오늘날의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는 표준, 즉 따라야 할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뒤에 오실 분, 즉 인류의 구세주에게 항상 경의를 포함으로써 참된 겸손의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다른 사람들에게 관해 아는 일은 우리 영혼에 다음과 같이 속삭여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단호하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신뢰할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를 때, 이 시대에 비슷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불 땀 나무를 주워 모아 들고 정해진 장소

까지 가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삭을 묶어 제단에 있는 나무 위에 눕히고 손을 뻗어 그를 죽일 칼을 잡았을 때 분명 그의 몸과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온 영광스러운 명령을 그는 기쁨 섞인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의심 없는 순종의 귀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용기를 잃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은 느낌이 올 것입니다. "용이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행동이 경건하고, 재물이 많은 욥은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시킬 만한 시험에 당면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가족을 잃어 좌절한 그는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고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외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나니"

욥은 끝없는 인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을 가리켜 "욥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줍니다.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은 예언자 노아였습니다. 어렸을 때 신권에 성임된 그는 의의 전도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신앙, 회개, 침례 및 성신을 받음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흥수가

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좇아 그와 가족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모아 그들도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질 만한 징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경고는 얼토당토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햇빛이 내리쬐고 생명체가 평상시대로 움직이고 있는 메마른 땅에서 방주를 짓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다. 홍수가 났다. 손종치 않은 자들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 방주의 기적은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보여진 신앙에 따라 나타났다.”

노아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올바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여성의 모범은 롯입니다. 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훌륭한 두 아들을 잃어 고통 당하고 시름에 잠긴 마음을 이해하고, 나오미의 영혼을 괴롭혔을 절망과 외로움의 고통을 느끼며 충절에 대한 고전적인 말씀이 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sup>14</sup> 롯은 그녀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롯의 변함 없는 충성을 통해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외국인이요 모압 출신의 개종자인 그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구세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물론경에서 리하이와 세라이아의 아들인 위대한 예언자 니파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순종했으며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벤에게

서 늦쇠판을 가져오라는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sup>15</sup> 어찌

면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찬송가 “최막대”에 있는 권고의 가사를 쓰도록 영감을 주었는데도 모릅니다.

옛 신지 니파이에게 한 시현 보았네  
잡으라 강한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막대기 우릴 안전히 인도하여 주네<sup>6</sup>

니파이는 지치지 않는 결의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예언자였던 요셉 스미스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열네 살밖에 안 되었을 때 이 용감한 소년은 후에 성스러운 숲이라고 불린 숲으로 들어가 그가 드린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숲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요셉에게는 박해가 끊이지 않고 뒤따랐습니다.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sup>7</sup>

단계적으로, 거의 계속해서 반대에 당면했지만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요셉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에서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그의 형 하이람과 함께 카테지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앞으로 다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용감하게 직면했으며 그의 간증을 피로 인봉했습니다.

인생의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보여 준 담대한 용기를 닦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님입니다. 그분은 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큰 확장을 관리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가 본 적이 없는 나라들을 방문하셨으며, 세계 전역에 있는 정부 지도자들과 회원들을 만나 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분은 예언적인 비전으로 영구 교육 기금을 제정하여 세계 많은 지역에 있는 회원들의 빈곤의 사슬을 깨뜨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과 훈련을 습득하여 보수가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영감 받은 계획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으며, 이제 그들은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힐클리 대관장님은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위치에 성전을 지어 주시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성스러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 오셨습니다. 그 분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던 그에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상황과 배경에 처해 있는 그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확실한 낙천주의의 모범이시며, 우리는 그를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로 존경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지닌 독특한 성품은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시련에 당면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있는 제롬 케니스 플라드 가족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타빌리 조셉 사무엘 플라드 장로는 짐바브웨에서의 선교 사업 마지막 날에 선교부 사무실로 오던 중 그가 운전하고 있던 선교부 차에 뭔가 고장이 난 듯 나무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플라드 장로의 동반자는 구출했으나 플라드 장로는 의식을 잃고 차에 끼여 있었는데 차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플라드 장로는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형제는 서 인도 제도 선교부에서 봉사 중이었습니다.

플라드 장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그의 부친에게 전해졌을 때 이미 아내를 잃은 이 겸손한 사람은 서인도 제도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형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분명 비탄에 빠지고 상심했을 플라드 형제와 그 아들은 장거리 전화를 통해, “난 하나님의 자녀”<sup>8</sup>를 불렀습니다. 통화를 끝내기 전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며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분의 위안을 간구했습니다.

후에 플라드 형제는 그의 가족이 복음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때가 찬 이 놀라운 경륜의 시대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할 때,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범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참된 겸손, 아브라함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순종, 욥의 끝없는 인내, 노아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롯의 변함 없는 충성, 니파이의 지치지 않는 결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담대한 용기, 힐클리 대관장님의 확실한 낙천주의를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품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힘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최고의 모범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를 요람으로 받으신 주님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주님은 인간에게 더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세상의 사고를 바꾸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축복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장님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 동쪽 바로 옆 광장에 있는 반시되는 연못 주위에 모여 있는 회원들. 키파린스 센터가 배경에 보인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2002년 11월

## 대관장단



토마스 에스 뮌슨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엘 로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고든 비 힝클리



머러셀 배틀먼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엠 홀런드



벤리 비 아이어링

## 철심인 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대회의 모든 모임을 감리하는 동안 힝클리 자매가 함께했다.



#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그분의 자비의 메시지, 그분의 지혜의 말씀, 그분의 인생의 교훈에 대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았습니까?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을 썼으며 그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sup>19</sup>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sup>20</sup>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식초를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갈대로 때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여러 세대를 통틀어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sup>21</sup> 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sup>22</sup> 고 명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sup>23</sup> 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가 경청만 한다면 이와 똑같이 "나를 따르라"는 권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누가복음 1:80.
2. 요한복음 3:28.
3. 누가복음 3:16.
4. 마태복음 11:11.
5. 시편 46:10.
6. 창세기 22: 9~10, 12.
7. 욥기 1:1.
8. 욥기 2:9.
9. 욥기 16:19.
10. 욥기 19:25.
11. 창세기 6:9.
12. 성경 사전 "노아" 738~739쪽.
13. Conference Report, 1952년 10월, 48.
14. 루기 1:16.
15. 니파이일서 3:7.
16. 찬송가 170장.
17. 요셉 스미스서 2:25.
18. 찬송가 187장.
19. 마태복음 27:22.
20. 마가복음 15:13.
21. 마태복음 4:19.
22. 요한복음 1:43.
23. 누가복음 5: 27.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종하는 것의 정도는 그분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을 통해 가장 잘 측정됩니다.



저는 여러 세대 동안 주님의 충실한 종들에게 영감을 주어 온 찬송가에서 주제를 택했습니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높은 산 바다나 전쟁터

아닐지 난 모르나

내 모르는 좁은 길 가라는

주 음성 내게 들릴 때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대답하리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  
송가, 146장)

말일성도 여러 시인이 쓴 이 가사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의 결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슴 아픈 여행을 했던 아브라함은 주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곳으로 충실하게 갔습니다.(창세기 22 장 참조)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 서서, 거인 골리앗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나아갈 때도 그랬습니다.(사무엘상 17장 참조) 에스더가 영감을 받아 그녀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어전에 있는 왕에게 나아갈 때에도 그랬습니다.(에스더 4~5장 참조)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라는 말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니파이일서 2장 참조)와 그의 아들 니파이가 귀중한 기록을 가지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갔을 때(니파이일서 3장 참조)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백 개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충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나타내 보였으며, 그분의 권세와 선하심 안에서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니파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초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에게는 말일성도들의 순종적이고, 충실한 봉사에 관한



고무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 가운데 하나는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16년 이상 제1보좌로 뛰어난 영향력을 보인 후에 대관장단이 재조직되었을 때 그는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겸손과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모범을 보인 그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당연히 부름 받은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어떤 직책을 구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154쪽)

잘 보이지는 않지만 수백만의 회원들이 주님의 포도원 아주 먼 곳에서 이와 비슷한 신앙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심 깊은 연로한 선교사들은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50쌍 이상의 연로한 부부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또 다른 부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적어도 세 번의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들의 고향은 호주에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서 미주리 전역에 있었습니다. 연령은 60대와 70대 초반에서부터 나이를 알리고 싶지 않은 중까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교 사업을 신청한 한 부부는 이미 템플 스콰어, 알래스카, 뉴질랜드, 케냐, 그리고 가나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비슷한 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이 부부들에 관해 추천서에 기록하는 의견은 그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간증입니다. 몇 가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아무리 시간이 길게 걸리더라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삶을 헌납함으로써 교회 회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기를 간구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우리의 연로한 선교사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게 해주는 이러한 부부들의 자격요건에 대해 의견을 적어 보냅니다.

“그는 탁월한 프로그램 운영력과 지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추진하고’ 개발하도록 부탁 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따라서 교회가 개발 중인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임무를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어떠한 부름을 받더라도 기꺼이 봉사할 것입니다.”

“사무실 일보다는 저활동 회원이나 개종자 쪽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좋아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돕고 우정 증진 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이며 그러한 일을 좋아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거동이 느리지만 영적인 일이나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는 대단합니다.”

“이분은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파이이며, 이름에 맞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부인으로서 항상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부름을 받든지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선교 사업입니다.”(그들은 이미 괌, 나이지리아, 베트남, 파키스탄 및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힘들었던 일에서 쉬도록 하기 위해 주님의 종들은 그들을 나부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다른 부부는 다음과 같은 글로 연로한 모든 선교사들을 대변했습니다. "어느 곳이든 가서 주어지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 연로한 선교사들은 특별한 희생과 각오를 합니다. 우리의 선교부장과 성전장들 그리고 충실한 그들의 동반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두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를 하기 위해 가정과 가족을 떠납니다. 이것은 많은 수의 젊은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을 일시 중단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대개 자비로) 그곳이 어디든 주님의 종을 통해 지명 받는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산 넘어나 바다나 끝은 길  
어느 곳이나 주 원하면  
내 가리라 주께 대답하리니  
주 뜻대로 되오리다.  
(찬송가, 146장)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집에 거하면서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26,000명의 감독과 지부장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 아래 봉사하는 충실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및 청년회 회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드, 지부,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많은 충실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 (교리와 성약 20:53) 라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많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영감어린 가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신 말씀  
저기에 있으리  
내가 찾아야 할 죄 중에  
해에는 자 있으리  
오 주여 어둡고 험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사자 되어 말씀 전하리니  
하라신 대로 말하리  
(찬송가, 146장)

예언자며 왕이었던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모사이아서 2:17) 그는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 사람이 제 힘에 겨우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모사이아서 4:2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개종하도록 과제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시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종하는 것의 정도는 그분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을 통해 가장 잘 측정됩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는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의 팔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지역 회원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지역의 스테이크, 지방부 및 선교부에 보수를 받는 혹은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그분의 교회에서의 지도력과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해 자유롭게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15; 교리와 성약 20:19, 42:29, 59:5 참조) 이것이 바로 사람이 궁극적인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결심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스테이크장들에게 스테이크 대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관해 제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할 때 저는 종종 교회 부름을 거부하거나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부름을 완수하지 않는 회원들에 관해 듣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결의를 보이지 않고 충실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릅니다.

구세주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위대한 비유에서 충실한 자와 충실하지 않은 자 사이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받은 준비되지 않은 이유로 신랑이 왔을 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1~13 참조)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은 무익한 종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14~30 참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들은 그분과 이웃을 위해 봉사한 양을 봉사하지 않은 염소로부터 분리했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마태복음 25:40) 사람들만이 창세 이전부터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 그분의 오른편에 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1~46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충분히 결심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부름을 거절했거나 부름을 받아들이고 약속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봉사를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말씀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추수할 곳 너무 많고  
일할 시간 짧지마는  
십자가 박하신 주 위해  
전심하여 일하리  
(찬송가, 146장)

예수께서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와 갈보리로 가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 했지만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

그에 앞서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4~26)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하는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그분 사업의 일부만을 성취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사의 군단”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마태복음 26:53 참조) 그러나 그것은 그분께서 설명하신 봉사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목적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 의지하여  
날 사랑하심 아오니  
성실한 맘으로 주 뜻 행하고  
하라신 대로 되오리  
(찬송가, 146장)

약 10여 년 전에, 저는 한 귀환 선교사의 생활에서 있었던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제가 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보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도록” 선교 사업을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존심 강하고 지적인 배경”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는 미국 동부에 있는 저명한 대학교의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의무와 타성에 젖어 선교사 추천서를 작성했으며, 외국에 나가 외국어를 사용하며 봉사하고 싶다는 강한 의사를 표시하는 의견을 적어 보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잘 하는 우



수한 학생이었으며 러시아인 가운데서 2년을 보내기에 너무도 적절하다는 것이 눈에 띄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위원회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른 문화 속에서 훌륭하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모험을 하리라고 확신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봉사하게 될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이란 그가 배운 외국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어라는 것과, 그가 말한 바와 같이 “함께 일할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평화 봉사단이나 다른 기구에 등록하여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부름을 거의 거절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 자존심 강한 젊은이는 용기와 신앙으로 부름을 받아들여 훌륭한 선교부장의 지시와 권고에 따랐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성

장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봉사하면서 저는 여러 달 동안 고전했습니다만 점차 영의 감미로운 영향은 제 영혼을 강하게 둘러싸고 있던 교만과 불신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의 기적적인 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느낌과 모든 사람에 대한 영원한 형제애는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점점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훌륭한 선교부장의 영향력과 더불어 그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커 가는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으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준에서 적어도 저의 동료요, 어쩌면 저보다 뛰어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저의 소망은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겸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커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총관리 역원에게 보낸 편지, 1994년 2월)

그러한 것이 봉사의 기적입니다. 여류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모르는 좁은 길 가라는  
주 음성 들릴 때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대답하리  
(찬송가, 146장)

저는 우리를 그분의 길과 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또한 그분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 따라야 할 신앙과 각오를 갖고 권세를 지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두 분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 전에는 하나님 및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성역이 저의 끝나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요한복음 13:1)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불러모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끝내고,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한 영이 넘치는 중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 드리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요한복음 17:20~23)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영광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 두 부분이 합쳐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부조화를 이루거나 갈등을 빚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양심, 즉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우침(모로나아서 7:16; 교리와 성약 93:2 참조)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좇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이 욕망과 유혹에 굴복하도록 그대로 두면, 그것은 영을 사로잡고 지배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로마서 7:21~23).

니파이도 같은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부르짖기를, 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

"이는 나를 십사리 뒤엎어 버리는 유혹과 죄 가운데 묻혀 있음이라."(니파이서서 4:17~18)

그러나 니파이는 구세주를 기억하고 이렇게 회망에 가득 찬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의지하여 온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도"(니파이서서 4:19) 그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역시 육과 영으로 된 존재이시지만, 유혹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모사이아서 15:5 참조)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의 갈등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갈등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서 4:1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굴복하여 영혼의 화평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의 내적인 화합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중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고통을 받으시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권세는 죄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없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니파이삼서 27:16~20 참조) 그것



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굴하지 않았던 것과 같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의 영은 육으로 난 인간의 악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내면의 싸움은 진정되고, 유혹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영과 육의 조화를 크게 이룰 때 비로소 우리의 육신은 바울의 말처럼 "죄에게 내 주는 불의의 무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6:13 참조)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육과 영 모두를 아버지의 뜻에 맡기심으로써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역은 언제나 이것에 역점을 두셨는데 이는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해 버릴 수 있게 하는 생각이나 욕구가 그분 안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 (요한복음 8:29)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 (모사이야서 15:7)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마쳤느니라." (교리와 성약 19:18~19)

이 말씀은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포부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께서는 분명 아들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1~2)

우리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면 그 가지가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지, 가지를 깨끗하게 하려 하면 어떤 회생을 치러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처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구세주로부터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21)는 똑같은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제자인 것처럼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라. 어린 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라." (모사이야서 3:19)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과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이 백성을 오랫동안 인도하셨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신뢰 부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요. '브리감 형제

# 신앙의 여성

마가렛 디 네이들드  
최근에 본부 청녀 회장에서 해임

**신앙의 여성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압니다. 그분께서 그녀를 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능한 한 그분의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시대에 이 지상에 회복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베풀어주셨으며,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위안과 희망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과정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고 고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그분의 어머니에 대해 가졌던 신성한 사랑과 염려를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극복하셨기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살 처소를 마련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그 계획에 대한 비전을 주셨으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희생적인 삶의 완전한 모범이었으며,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말일성도 여성은 그녀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여성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저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일성도 자매는 참다운 그리스도교인의 좋은 모범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여성이고 확신에 차 있으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여성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희망을 갖고 역경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압니다. 그녀는 그분께서 자신을 알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능한 한 그분의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녀는 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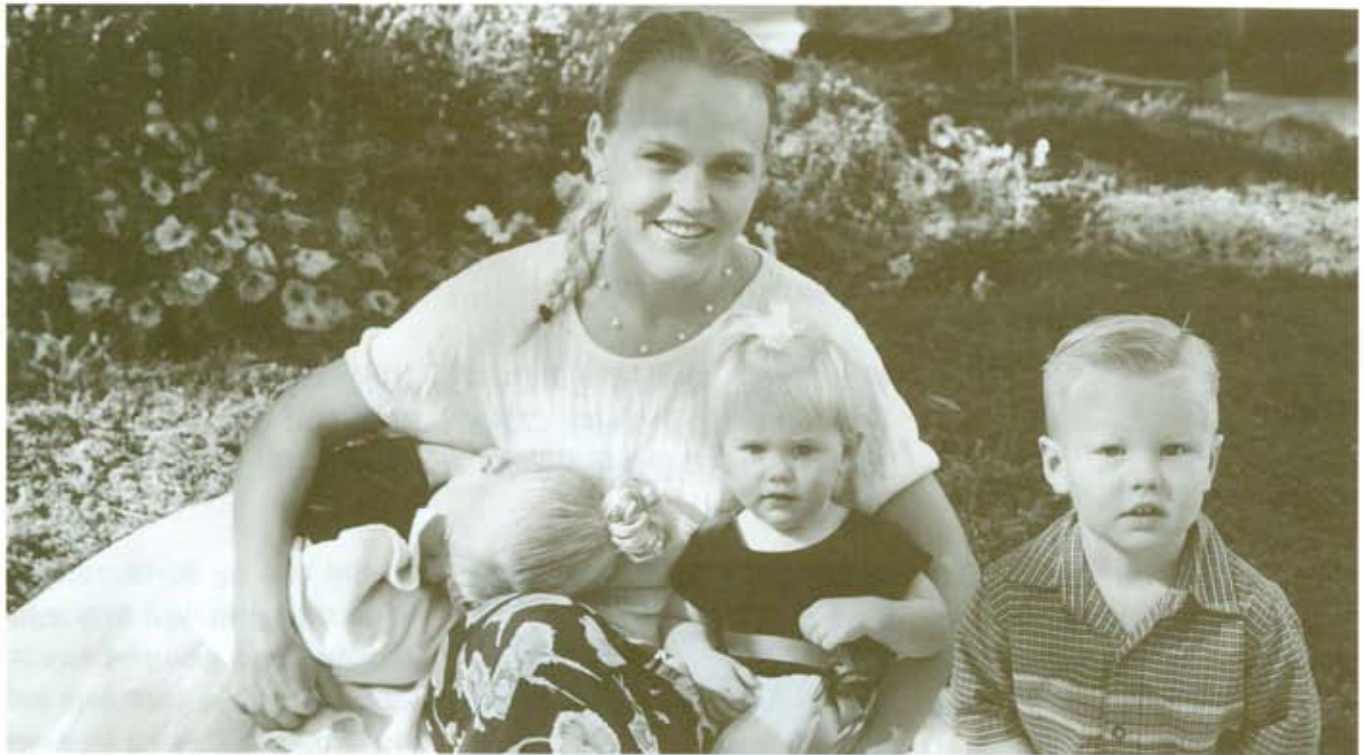
님, 형제님 자신에게서 신뢰 부족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육으로 난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재겐 아직도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의 뜻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제게 일어납니다. 그 일로 해서 저의 뜻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필요한 신앙을 키우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지식을 얻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되, 현세에서나 영원의 세계에서 그 밖의 다른 뜻을 받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Deseret News, 1856년 9월 10일, 212쪽)

우리가 두 분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 전에는 하나님 및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루 아침에 사람이 유순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참여하려 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까지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주로서 존경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뭐라고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중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이 말일에 보내 주신 예언자에 대해 감사하며 그의 권고를 신뢰하고 따를 때 안전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기도드릴 때 친절하고 확고한 인도와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귀를 기울임으로써 양 방향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고요하고 조용한 방법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sup>2</sup>

**신앙의 여성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는 희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구세주의 삶을 알기 때문에 희생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녀가 행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확신은 아름다움보다 더 가치 있는 그녀의 덕, 사랑 그리고 상냥함 때문에 커 갑니다. 그녀의 동기는

순수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많고 온화하며 친절합니다.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은 그녀를 믿습니다.<sup>3</sup> 또한 그녀가 가르치고 지도하며 봉사하고 사랑하도록 부름 받은 어린이나 청소년 및 여성들도 그녀를 믿으며, 그들 모두 그녀가 발하는 특별한 영 때문에 그녀에게 끌립니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sup>4</sup>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서기 위해 초대 받을 수 있도록 의로운 성품을 계발하고 의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온전히 속해 있으며, 그분이 그녀를 알고 사랑하시며 영원히 그리고 항상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성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sup>5</sup> 그녀의 인생에는 모호함이나 혼동이 없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교사이신 주님의 교리와 가르침을 공부하기 때문에 원칙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고귀한 모범입니다. 물론 그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완전한 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범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악의 영향이나 불결한 것을 멀리 하며, 만약 그러한 것이 그녀의 영역을 침입하면 그녀는 마치 암사자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 합니다. 두려움 없는 신앙의 여성은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을 파괴시키는 행동에 대해 말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결심에 대한 토론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그녀의 행동, 즉 그녀가 옷을 입는 법, 무엇을 입고 보며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 좋아하고 웃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어떻게 행동하는 가를 통해 그녀의 결심을 봅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즐겁고, 밝고, 선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소녀들과 청년들은 안전하게 그녀의 모범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기에 그들이 고상하고, 행복하며, 예절 바른 것을 구하고 축진할 때 그들 또한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여성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성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 모습, 자신이 사용하는 말, 주님의 자녀들에게 쏟는 봉사, 그리

#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서도 정원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같이 그분은 계시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해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잘 모르는 한 젊은이가 군중을 헤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말투로 제게 "아이어링 장로님, 제가 막 장로 정원희 회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해 주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연차 대화를 통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만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천 명의 교회 회원들이 매주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는데 그 중에는 새로운 개종자도 많습니다. 그들이 받

는 부름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부름은 그보다 더 다양합니다. 혹 여러분이 그들에게 부름을 주거나 그들을 훈련하거나 또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듯이 그들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지침서, 공과 교재 또는 작성해야 할 기록들을 전해 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할 모임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는 목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부름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눈가에 보이는 근심어린 표정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개종한 회원조차도 봉사하라는 부름은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지키으로써 가능합니다. 때가 이르면 속죄의 권세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는 것 이상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을 도와 줄 더 나은 방법이 불림없이 존재합니다.

임무에 대해 훈련 받는 것 이상으로,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

고 자신의 모든 행동에 의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불안 전하고 아직도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지라도 그분이 그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형클리 대관장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경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sup>1</sup>

신앙의 여성은 그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이 특권을 존중하는 충실한 남자들 즉, 그녀의 아버지, 남편, 감독, 남자 형제들, 아들들에 의해 축복 받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딸에게 주신 성스러운 은사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생의 위대한 사명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면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이 신앙의 여성으로 인해 축복 받습니다. 그들은 경전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 .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리라."<sup>2</sup>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애 동안 저를 격려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훌륭한 신앙의 여성들과 위대하고 고결한 남성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들은 특별히 제가 본부 청녀 회장이라는 주님의 신성한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때 큰 축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깊은 감사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원히 그분들을 존경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그 특권에 대해 감사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2:52.
2. 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3. 잠언 31:11 참조.
4. 열매서 5:14 참조.
5. 시편 23:4 참조.
6. "교회의 여성들",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67쪽 참조.
7. 전도서 4:9-10.

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이미 부름을 받았거나 또 앞으로 부름 받게 될 성인 남녀와 소년 소녀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참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성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속 깊이 새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며, 그분의 교회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부름을 주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며, 여러분에게 부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신권의 열쇠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 열쇠는 끊기지 않고 헝클러 대관장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와 같은 신권의 열쇠를 통해, 신권을 소유한 주님의 다른 종들이 스테이크와 워드, 지방부와 지부를 감리할 열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열쇠를 통해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그 열쇠는 계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그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추천한 사람은 단지 그가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그 일을 해낼 누군가가 필요해서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드렸으며 여러분이 그 부름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른 사람은 접견을 통해 여러분이 합당하며 기꺼이 봉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니고 계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이 곳으로 데려 온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주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계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름은 주님의



교회가 지닌 독특한 권세의 출처를 보여 주는 한 예입니다. 인간은 예인과 관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를 대표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음성은 그분의 음성과 동일한 것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여러분의 손길은 주님의 손길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주님의 사업은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부름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며, 여러분이 가장 평범한 임무를 맡고 있거나 부름과 관련 없어 보이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미소와 누군가를 돕기 위한 행위로도 그들의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가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언행이 그들의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결과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며, 심지어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이 곳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이나 모범 때문에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의 조상과 자손들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그릇된 행동을 통해 누군가 구세주의 초대를 거절했다면, 그들의 슬픔은 곧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에는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

러분의 부름은 너무도 중요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부름에는 또한 위대한 약속이 함께 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같이 계시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려 줄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부름에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신하실 때에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 둘 때 하늘의 계시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성신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은 종종 그 인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다는 소망과 신앙으로 간구하는 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종종 그 응답은 경전 공부를 통해 옵니다. 경전은 주님의 지상 성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행적과 그분께서 종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전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적용할 수 있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기도로 옳은 질문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신앙으로 경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 후에 그에게 하늘 문이 열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진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여러분의 능력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름은 반대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중으로서 일하고 있으며 그분의 대표자입니다. 사람들의 영생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반대를 경험하셨기에 반대에 직면하는 것은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름을 어떻게 하기 위해 조직된 세력들은 부름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파멸시키려고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 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은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때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부름에 응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능력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으며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행을 고양시키고 향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신을 보내 여러분의 말이 참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과 이해력을 훨씬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며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기적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 있어 주님의 교회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는 부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해임되는 날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독에서 해임되던 날, 와드의 한 회원이 저희 집에 와서는 “형제님 이제 더 이상 저의 감독님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없나요? 형제님은 항상 제가 필요로 했던 말씀과 너무도 훌륭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새로 부름 받은 감독님은 형제님과과는 달리 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없나요?”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지못해 동의하고, 그 회원은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와드 회원들을 수백 번 접견했던 순간과 같았습니다. 대화는 시작되었으며, 저의 권고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 회원에게 전해 줄 아이디어나 말씀 또는 느낌들이 제 마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마음과 정신은 텅 빈 동굴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입을 열고 “미안합니다. 저에 대한 신뢰와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름에서 해임될 때 여러분은 그 때 제가 배웠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고 두드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의 능력을 증대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봉사가 확대되는 것을 보는 은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은사가 떠나버린 뒤에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가치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노력의 힘을 증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친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임무를 위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부름 받은 네 명의 선교사들에게 전해 준 그분의 음성은 자신의 왕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 나도 몸소 저들과 함께 가며 그 가운데 있으려니와 나는 아버지께 향한 자들의 변호인이니, 저들을 이길 자는 결단코 없으리라.”<sup>2</sup>

구세주께서는 부활하신 영화로운 존재이기에 매 순간 그분의 모든 종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종들과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그분의 권세로 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sup>3</sup>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돕도록 여러분을 부름에 있어 여러분의 능력을 증진시킬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어쩌면 자주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책임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교회 부름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힘을 비축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의무를 다 이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낙담과 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날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 일에만 집중하면 제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세가 저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할 때, 저는 제가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의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적인 눈으로 그분의 권세의 결과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언제나 저의 도움을 받았거나 제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제 자녀의 눈에서 본 빛과, 제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공과반의 교실 뒤쪽에 앉아 있던 한 소녀의 얼굴에 비친 행복한 눈물, 또는 제가 미처 해결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마무리 된 문제를 기억합니다. 그 때 저는 요셉 스미스가 준 다음과 같은 약속이 다시 성취되도록 충분한 일을 해 냈을

을 알게 됩니다.

“... 사랑하는 형제들아, 있는 힘을 다하여 만사를 기쁨으로 행하자. 그리하여 확고 부동한 믿음으로써 견디어 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자.”<sup>1</sup>

여러분의 권세가 주님에 의해 몇 배 커지리라는 확고한 확신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의 노력과 기꺼이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기도로 기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성신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처럼 보이는 것들은 후에 돌이켜보면, 축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을 위해 여러분이 대신 봉사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고양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성결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권의 열쇠는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행사하고 계십니다. 구세주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살아 있는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한, 그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부름을 주시고 맡기신 일에서 여러분이 충실히 봉사하고 계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감사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에베소서 6:12.
2. 교리와 성약 32:3.
3. 교리와 성약 84:88.
4. 교리와 성약 123:17.

##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관련된 간증, 권능 및 교리를 부여해 주신 놀라우신 일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데 있어 주님의 영감을 구합니다. 저는 말일성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편안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계속 기도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여행이었지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하는 교회의 사무적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커다란 스테이크는 물론 작은 지부를 방문하면서 회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은 방문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더 이상 모든 회원과 악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여행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은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의 재헌납과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의 헌납식이었습니다. 저는 17년 전 프라이베르크 성전을 헌납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당시 분단된 독일의 동부 지역인 독일 민주 공화국에 지어진 비교적 작고 단순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축은 문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문슨 부대관장님과 한스 링거장로님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독일 정부 관리들의 호의로 건축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 동안 잘 활용되었습니다. 이제 그 악명 높은 장벽은 없어졌습니다. 회원들이 프라이베르크까지 여행하는 일은 쉬워졌습니다. 건물은 그 이후 몹시 남게 되었으며, 사용하기에 부적절해졌습니다.

성전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더 아름답고 쓸모 있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한번의 헌납 모임만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광대한 지역으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방에 앉아 정부에서 부과한 제한 조치 아래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을 거치면서,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





게 되었습니다만,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거인처럼 우뚝 선 채 지난 세월들을 견디어 온 소박하고 굳건하며 훌륭한 말일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웅과도 같은 형제 자매들을 안아주며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섭섭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저의 그러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들 가운데서 급히 떠나 온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 곳에서 바로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로텔담으로 가서 차를 타고 헤이그로 갔습니다. 하루에 세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은 노인에게는 벅찬 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네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훌륭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성전은 좋은 지역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집이 네덜란드, 벨기에 및 프랑스 일부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처음으로 파견된 것은 오랜 전인 1861년이었습니다. 수 천 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집을 갖기에 합당한 소중하고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프로 갔습니다. 저는 21년 전에 그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새로운 자유가 있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만난 일은 참으로 영광에 찬 일이었습니다. 회원들은 많은 불편과 경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한 가족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올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 남아 있고 자녀들을 보내 우리의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도 21년 전에 간 일이 있었

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훌륭한 모임을 가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요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성읍에서 떠나와 족속 중에서 돌"이 시온의 울타리로 모인 이 훌륭한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특권이었습니다. (예레미야3:14 참조) 그들에게 삶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 짐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강하고 간증은 활력이 넘칩니다.

이 먼 곳에서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에게 낯선 복음의 불꽃은 강하게 다울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그 곳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대통령과 오랜 시간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탁월하고 능력 있

는 분으로 유태에도 온 적이 있었으며 우리 회원들에 대해 상당히 좋게 말해 줍니다.

다시 우리는 성도들과 만났습니다. 레이카 비크 시티에 있는 우리의 집회소에 모인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영감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 중에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맴도는 것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한 경이로움, 절대적인 경이로움입니다. 방금 전에 합창단이 불러 준 노래의 가사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굳도다 그 기초 주님의 성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놓인 터”  
(찬송가, 35장 “굳도다 그 기초”)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위상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그것은 독특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육 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없이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교 조직입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며 서로 즐기는 친구들의 거대한 가족입니다. 상부상조 사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자립을 가르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고 인도되는 교회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그 율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월

리스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는 제게 그것을 실제로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끼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그 시현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사기입니다.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늘 아래 가장 기이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훌륭한 남녀들이, 그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만,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 체제와 가르침을 수정하고, 강화하고,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 세상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들의 업적이 영감 받았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더불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 1820년에 자신의 가족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야고보의 말씀을 읽은 한 소년의 기도의 응답으로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그 독특하고 놀라운 경험 위에 이 교회의 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종교적 역사 가운데 그것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평범한 십대 소년에게 오신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가 하나로 집합하는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를 여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과학과 의학, 통신, 교통 등의 분야에서 비할 데 없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지식의 르네상스의 일부로 영적인 지식이 꽃피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에서 도구가 된 것은 인간의 철학으로 어지럽혀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습니까. 그 마음은 깨끗했으며 당시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관습에 때묻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비교적 단순한 시대에 예언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압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부활하신 아들이 세계 역사상 이 복잡한 시기에 나타나신 것을 정당하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두 분이 오셨다는 사실, 빛나는 영광 속에서 요셉이 그분들을 보았다는 사실, 그분들이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해 간증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 역사로 인해 함정에 빠졌다고 말하는 소위 지식인을 압니다. 저의 대답은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독특하고, 유일하고 특이할 만한 사건의 진실함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로운 시현은 이 사업의 초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나타내심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현이 인류의 구속주의 개성과 실재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물문경의 출현이 있따왔습니다. 여기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증인이 기도로 간구할 경우 성신이 그것의 참됨을 알려 주시겠다는 약속이 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책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성에 대한 간증입니다. 성경은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마태복음 18:16)고 선언했습니다. 구세계의 성약인 성경이 하나의 증인입니다. 신세계의 성약인 물문경은 또다른 증인입니다.

저는 기독교계가 왜 이 책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세상의 구세주의 실제와 신성을 조금의 의문도 없이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모든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신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침례 요한의 손으로 아론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즉 그들이 땅에서 때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능과 더불어 "천국의 열쇠"를 이 시대에 부여해 주었습니다.(마태복음 16: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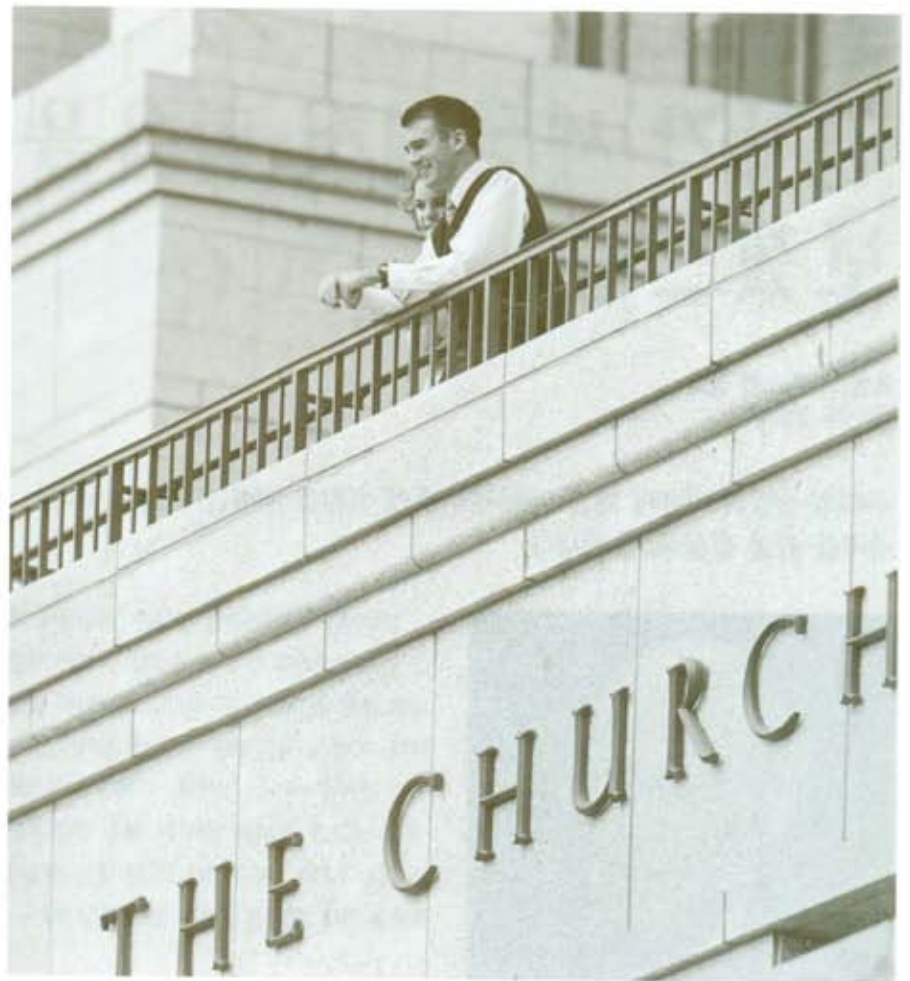
그 후에 모세, 일라이어스 및 엘리야의 손으로 신권의 열쇠들이 더 주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의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말일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후에 신성한 권능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업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며 그 사업은 "사도와 예언자들의 ... 기초"(에베소서 2:20)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은 우리를 관용과 친절함,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친절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



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래야 하듯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좋은 동기를 갖고 일합니다.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연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초의 진실함에 대한 엄숙한 확신을 자신들의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온 세계의 남녀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영감을 주는 일입니까.

신성한 권능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은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관련된 간증, 권능 및 교리를 부여해 주신 놀라우신 일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위대하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엄숙함과 절대적인 진지함을 갖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기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실함을 평가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한 나타내심을 믿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지식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는 사랑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덕성과 선함을 존중합니다. 그대로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남녀에게 이 권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성신의 권세로 이 사업이 진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일치할 때에만 우리는 구하는 축복을 받을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언자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이 가장 좋아했던 "슬픔에 잠긴 나그네"라는 장엄한 노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너무도 아름답게 공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 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셔서 교회 회원이나 비회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겸손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약 2천 년 전에 구세주께서 하셨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복음의 첫번째 원리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충성 ...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는 것이며 ... 예수 그리스도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sup>1</sup>

## 미망인의 신앙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활짝 열기만 하면 신앙에 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남편을 잃은 어느 여인입니다. 혼자 남아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자활의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당시 그곳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식량은 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식량이 줄어들면서 그 여인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렸으나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던 여인은 마침내 마지막 한 끼를 위한 음식밖에 없는 날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 오라"

여인은 돌이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

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이제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그것으로 마지막 한 끼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엘리야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예언자가 한 말은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자못 놀라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미처 말할 틈도 없이 그 사람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는 이 예언적인 약속을 들은 후에 신앙을 가지고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sup>2</sup>

오늘날 사람들의 지혜에 따르면 그 예언자의 요구는 부당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부의 행동은 어리석고 지각 없는 행동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대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 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즉각적이고도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sup>3</sup> 신앙은 어둠을 꿰뚫어 멀리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갖



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 신앙을 행사하지 못함

오늘날 우리는 종종 신앙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현대 의학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 거리도 짧은 시간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500년 전 같으면 거지도 왕자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참된 신앙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듭 묻습니다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행동과 하나가 될 때 존재합니다. 첫

째 신앙, 둘째 행동, 셋째 절대적인 순종,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모방의 신앙, 즉 약하고 힘 없는 신앙일 뿐입니다. 이 신앙의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 봅시다.

첫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세주의 못자국을 먼저 보고 손을 열구리에 넣어 본 후에야 결국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초기 제자들을 칭찬할 때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둘째, 신앙이 변화를 가져오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동적인 믿음을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힘 닿는 데까

지 행동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sup>10</sup>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님은 이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분은 지난 밤 신권 모임에서도 동일한 경고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을 다 써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빛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큰 액수의 할부금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sup>11</sup>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예언적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일부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신앙을 복돋우어 예언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이 옳다고 믿었지만 겨자씨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일부는 개인과 가족이 재정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셋째, 사람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자연 법칙을 위시하여 그분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폭풍 속을 나는 참새는 그것을 잘 헤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단순한 자연 법칙은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현명합니까? 종종 세상에서 신앙이라고 일컫는 것은 고작 쉽게 속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들과 세상적 이론은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한 원리는 거절하거나 믿지도 않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어리석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행동이 빛이 난 피치 못할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늘의 축복까지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때와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인간과 관계를 맺어 오신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이 경전에 위배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말일의 예언자들이 영감 받은 가르침으로 주시는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깊이 숙고하고 기도하며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성신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sup>14</sup>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일치할 때에만 우리는 구하는 축복을 받을 힘을 갖게 됩니다.

### 권세의 원리

온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사한다면, 신앙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권세의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sup>15</sup>졌습니다. 믿음으로 물이 갈라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자가 잠잠해지고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모든 생활이 근거를 두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 이상이며, 우리는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구세주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sup>14</sup>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sup>15</sup>

### 원리를 가르침

신앙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늘의 빛과 축복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해할 것입니다. 영의 일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신앙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합니다.<sup>16</sup>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나타내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신앙이 없음진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이시지 못하실 것이라. 저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친히 나타내어 보이지도 아니하시느니라.”<sup>17</sup>

그러나 역사를 통해, 심지어는 암흑의 시기에도 신앙의 눈을 통해 어둠을 뚫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독한 신앙을 가졌던 자가 많았던지라, 장막으로 가려지지 아니하여 저들의 눈 곧 신앙의 눈은 실체를 보고 기뻐하였으니.”<sup>18</sup>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조부모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모이게 되면 적절한 때를 봐서 손주 가운데 몇 명과 일 대일로 토론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어떻게 지내느냐?” “학교 생활은 어때니?” 등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 복음과 세계 너무나 큰 의미를 주는 침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과 간증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알게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목표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다음 저는 매일 경전을 읽을 것을 제안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무릎을 꿇고 아버

지와 어머니와 함께 기도드릴 것과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하기를 권고합니다. 항상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항상 모임에 참석하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늘 주님의 속삭임에 민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손주인 요셉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덟 살 된 손주가 제 눈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기도해요?" 손주가 제 팔에서 달아나고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긴 했나?" 그레 보이는 것은 다음 날 아침 손주가 제게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나마 얘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들에게 꾸중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갈 경우, 우리는 손자와 손녀들의 신앙이 구세주와 그들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영향력과 간증의 결과로 커 가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시련

때로 세상은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늘이 우리를 향해 닫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제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에 있는 글자들을 읽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전구의 품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으며 왜 요즘 회사들은 전처럼 물건을 만들지 못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구를 더 밝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침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애꿎은 램프와 전등의 디자인만 탓했습니다. 심지어 태양빛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다가 문제는 방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제 시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안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는 세상이 결코 어두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백내장이 빛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를 믿었으며 백내장은 제거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밝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은 제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종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하늘이 멀어 보일 때, 우리는 어둡게 보이는 진짜 요인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신앙의 결핍인 것은 모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비난하려 합니다.

즐거워 하십시오. 신앙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만일 올바르게 행하며 너희가 서로 맺은 성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sup>18</sup> 고 주님께서는 이 말일에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고대에 살았던 엘마가 말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높이 들어 올리시리라."<sup>20</sup> 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비통함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안내라고 하는 신앙의 시련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 그리고 인생이 어둡고 적막할 때, 신앙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sup>21</sup>

언젠가 우리는 어둠을 뚫고 온전하게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이해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회원들이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소망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애쓸 때, 2,000년 전에 구세주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힘차게 울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앙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 간증

저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통해 우리의 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충만한 복음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영원한 권세인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누가복음 18:8.
2.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4년), "Faith," 446쪽.
3. Bible Dictionary, "Faith," 669~670쪽.
4. 열왕기상 17:11~16.
5. 히브리서 11:1; 또한 히브리서 11:1~40; 이터서 12:7~22 참조.
6. 고린도전서 2:5.
7. 로마서 1:17.
8. 요한복음 20:29.
9. 베드로전서 1:8, 9.
10. 야고보서 2:17.
11.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65쪽.
12. 교리와 성약 8:2.
13. 히브리서 11:3.
14. 마가복음 9:23.
15. 요한복음 14:12.
16. 고린도전서 2:14.
17. 이터서 12:12.
18. 이터서 12:19.
19. 교리와 성약 90:24.
20. 엘마서 36:3.
21. 로마서 5:1.

#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구세주께서  
그분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치유의 권세에 대해 자신들의 마음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성신의 속삭임을 느끼도록 격려하여 여러분이 가혹한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인도되는 변화를 갖기 바랍니다. 구세주께서는, "... 너희 어깨에 매어진 고난의 짐을 가변케 하여 ... 너희가 느끼지 않게 하리니, 내가 이렇게 행하려는 것은 ... 너희가 진실로 내가 주 하나님이요 나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 위로하는 이 입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어긴 불가피한 결과로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흐느껴 울던 한 남성이 절망에 빠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제는 문제로부터 피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평온도 없고 행복한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은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택으로 인해 그는 자신을 도와 줄 수 있었던 진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는 주를 믿는 신앙뿐 아니라 기도의 권세를 믿는 신앙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정들은 자신의 열망을 빠르게 만족시켜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그에 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관대한 부모님과 친구들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했을 때 저는 문득 그가 세상을 실제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기쁨과 행

복,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장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주는 성신이 함께 하는 곳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이 현명한 권고가 그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권고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인생관이 그에게는 현실입니다. 그 왜곡된 인생관은 "어서 해 봐. 아무도 모를거야. 네 인생이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구. 어느 누구도 네 삶을 강요할 순 없어. 그건 도덕적 선택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탄의 교활한 유혹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삭임과 금지된 것들에 대한 소망과 호기심은 그를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는 길로 끌어내렸습니다. 죄로 가득 찬 그의 인생과, 자신의 욕정과 열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소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가책 그리고 후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뒤 사탄은 다음과 같은 다른 충고를 주었습니다. "이제 네 행동을 돌이킬 순 없어. 이제까지 해 온 대로 계속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야." 자신의 죄 때문에 그는 과오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에 필요한 도구들을 발견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이고 제한된 세계는 영원한 율법을 어김으로써 생겼으며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자신을 보십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해도 언제나 가혹하게 그리고 무겁게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짐이 있습니까? 강력한 감정과 자극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걱정 없어 보이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필연적



으로 찾아오는 조용한 반성의 순간에 그것이 자신이 원한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친구들, 심지어는 주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들을 버린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 제발, 지금 이 순간은 잠깐의 사이에 지나쳐 버리는 죄의 쾌감과 그 후에 일어나는 변민과 공허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평온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경전 구절을 확인하셨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다.]"<sup>2</sup> 이제 깨끗하며 목적 있는 삶으로부터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얻으십시오.<sup>3</sup>

저는 여러분이 사탄이 지배하는 영향력과 여러분의 삶을 구축하는 죄와 사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러분이 겪는 개인적인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해결책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구세주께서 그분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에게 화평과, 항상 여러분의 능력 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좀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겪고 있는 침울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비록 지금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더 나은 길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변화하겠다고 완전히 결심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는 동정심 많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복의 계획에 놓여졌기에 인생에서 그 비극적인 길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죄인은 이 생에서만 고통을 당할 뿐이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 용서받지 못한 죄는 장막 저편에서의 고뇌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탄은 죄란 다른 사람에게 감출 수 있다고 확신시키려 하지만, 가장 부끄럽고 당혹한 순간에 죄를 폭로해 버립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매혹적인 유혹은 개인을 파멸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조그마한 잘못을 범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죄를 짓더라도 구세주의 은사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계속해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개한다면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의 죄의 결과를 친히 짚어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몸소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은 도와 줄 사람에게로 인도될 것입니다.<sup>4</sup> 회개는 죄를 씻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적과 화평 그리고 용서를 위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고백은 중요한 단계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감독님은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커다란 치료의 권세를 가져다 주는 회개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주님이 선포하신 다음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 주는 텅빈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 받으리라."<sup>5</sup>

이 구절은 주님이 죄를 묵과하실 수는 없지만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회개한 죄인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또한 여러분이 어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므로써 회개의 과정에서 더 많은 힘과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 그분의 역할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이 속죄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요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기도하고 숙고할 때, 여러분은 커다란 동기 부여와 격려를 얻게 되어 회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엘마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 심한 영육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냈으며,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간구할 때까지 죄사함을 얻지 못했었나니, 보라 주께 간청하에 영육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느니라.

"... 내가 ... 이른 대로 너희가 배워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니, 너는 지혜를 배우라. 또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게서 배우라. 보라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sup>6</sup>

여러분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그와 같은 훌륭한 설명을 공부하고 물문경에서 엘마가 방탕한 아들 코리엔톤에게 권고할 때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공부함으로써 도움

을 받을 수 있습니다.<sup>8</sup> 행복의 계획과 구세주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죄의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며, 주님의 방법을 알게 될 때 합당한 삶의 기쁨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함께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겸손하게 회개하십시오. “주는 죄 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뜻을 이루시니, 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sup>9</sup> 지금 회개하도록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을 심하게 모욕한 사람에 의해 상처 받았다는 느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욕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이해력을 왜곡시켜 고통이 없게 되도록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sup>10</sup>

마음의 짐을 더 이상 지니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모욕한 사람에게 순수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한 노력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며 심각한 오해가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죄로부터 벗어날 경우 자신은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 남편, 부모 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죄로 인해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 동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을 때 그 짐을 구세주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근심과 좌절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권고하십니다.<sup>11</sup> 그 짐을 구세주께 맡길 때, 여러분은 평온을 찾을 뿐만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죄의 짐을 거두어 줄 수 있는 구세주의 권세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끔찍한 학대의 죄로 인해 상처 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또는 성적 학대는 주님께 의해 치유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지지지 않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 좌절, 죄의식, 자기 혐오 그리고 결국에는 치유를 저해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받아 온 학대는 여러분의 의지에 반하여 여러분의 선택 의지를 그릇되게 공격한 사람에 의한 결과입니다. 주님은 공의로 여러분이 학대의 파괴적인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모, 신권 지도자 및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조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일생 동안 권고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불의하고 부당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세,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느낌으로 그것을 믿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세주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끔찍한 학대의 결과를 치유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속죄의 권세를 속고하십시오.<sup>12</sup>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sup>13</sup> 주님께서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지지 않은 짐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감독님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게 된 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속삭임을 받을 경우, 그러한 속삭임이 구세주로부터 오는 권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곧 그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해 줄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모사이사서 24:14.
2. 열마서 41:10.
3.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4. 교리와 성약 19:4, 15-24 참조.
5. 해롤드 비리, *Stand Ye in Holy Places* (1974년), 220-221쪽 참조. 또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용서가 낳는 기적* (1969년), 175-190쪽; 201-212쪽 참조.
6. 교리와 성약 1:31-32.
7. 열마서 38:8-9.
8. 열마서 39-42장 참조.
9. 니파이서 2:7; 또한 시편 34:18 참조.
10. 교리와 성약 64:9-10 참조; 또한 마가복음 11:25-26; 누가복음 6:37; 모사이사서 26:29-32; 니파이서 13:14-15 참조.
11. 마태복음 11:28-30.
12. 존 테일러, *The Mediation and Atonement*, (1882년) 참조.
13. 리처드 지 스킵트 장로, “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를 치유함”,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31쪽 참조.

#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케네스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이러한 거룩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동요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에 따르면 제 길을 갈 수 있고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위험한 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예비된 가정에서 자라신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열아홉 번째 생일이 막 지난 1959년 8월에 침례 받았습니 다. 개종 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제 생각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집 근처에는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주위에

는 제게 높게만 느껴지던 목재 판넬로 된 울타리가 둘러 있었는데, 높이가 2미터는 족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무 옹이가 떨어져 나가 생긴 판벽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을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게 정돈된 잔디밭, 잘 관리된 꽃밭, 조그만 과수원이 멋진 집과 어우러져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구경은 항상 금세 끝나버렸는데, 잠도 없이 정원을 어슬렁 거리며 걷다가 담장 근처에 누가 서 있기만 하면 즉시 짙어 대는 영국산 불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나운 개가 있는 곳은 정원 안이었지만, 담장쪽으로 달려들며 짙어대는 소리에 온갖 상상이 다 떠올라 그만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때에 살았던 라이온스 씨 부부는 교사였습니다. 그 분들은 위엄을 갖춘 분들로 그 집 분위기가 그렇듯이 호젓한 생활을 즐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라이온스 씨는 오른손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쇠감고리를 사용했는데 윗옷 소매부리 밑으로 그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 저는 라이온스

씨가 저를 쫓아와 목덜미를 잡고리로 잡아서 데러가는 상상도 했었습니다.

열 살인가 열 한 살인가 되던 8월의 어느 날 아침, 밤새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고 난 뒤였는데, 마침 집을 나서려 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인가 몹시 흥분한 채 물었습니다. “어젯밤 바람 소리 들었니?” 들었다고 하자 친구들은 자기들이 본 일, 즉 바람에 그 라이온스 씨 태의 담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일로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요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훨씬 더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과 과수원까지 들어가 봤다구!”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이온스 씨가 가만히 계셔?”

“그 분들은 집에 없어. 친척 집에 가셨대.”

“개는 어디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동물 보호소에 맡겨 뒀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살살이 조사해 본 게 틀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즉시 친구들과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원으로 들어선 뒤 나무에 올라가 급히 과일을 따 주머니에 가득 넣고 옷 안에도 가득 집어 넣었습니다. 개가 되었던 라이온스 씨가 되었던 아니면 둘이 다든, 갑자기 나타나 우릴 붙잡을까 봐 겁이 나서 가슴이 쿵쿵거리고 맥박이 마구 뛰었습니다. 우리는 침입 현장에서 달아나 미리 정해 놓은 근처 숲속으로 들어가 숨을 고른 뒤 사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8월이라 사과는 아직 덜 익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훨씬 쓴 맛이 났지만, 아무리 시큼하다 해도 전리품을 열심히 해치워야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 그건 아마 지금은 설명하기 힘든 어떤 심리적 압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사과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운 다음부터는 사과를 한 입만 베어 먹고 나머지는 근처 담뭍에다 던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침입에 내장이 점차 반응을 나타



내기 시작하면서 그런 재미도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위액과 덜 익은 사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위경련이 일어났고 메스꺼움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사과보다 마음속 느낌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훨씬 더 불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그 집 정원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을 때부터 불편하기는 했지만, 안돼 라고 말할 용기가 부족해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행동을 마친 뒤에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스럽게도 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속삭임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장애물과 외부의 강압 때문에 비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요하고 작은 음성<sup>1)</sup>으로 설명되는 우리 내부의 느낌이 인식하고 반응을 보이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저의 심금을 울렸습

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시작했다면 먼저 경고를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고,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오게 되는 느낌과 통찰력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언자 물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그러한 느낌의 근원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줍니다. "...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 즉"<sup>2)</sup>

우리 모두 이런 인도의 은사를 받는다는 개념은 사도 요한이 구세주에 관해 기록한 다음과 같은 복음서 내용으로도 뒷받침 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sup>3)</sup>

이러한 거룩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동요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에 따르면 제 길을 갈 수 있고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위험한 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에 저는 집 근처 숲속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에게 가면서 어떤 놀이나 게임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친구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머리 위로는 연기가 피어 오르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담배 한 갑을 가져와서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도 권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겁쟁이의 표시라며 자꾸 권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은 조롱으로 변해 갔으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회복된 복음에 대해 배운 것도 아니고 지혜의 말씀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느낌 때문에 자제했던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단에 대해 생각하면서 집으로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그날 기대했던 즐거움이 실현되지도 않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제 자신에 대해, 다시 말해 진정한 행복의 근원과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온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난 뒤의 유쾌함에 대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다음 계시는 이 내면의 나침반에 잘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설명해 줍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sup>4)</sup>

다음 구절은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인도의 근원에 다가갈 수 있다는 증거를 더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삭임에 귀기울이고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다음 약속은 제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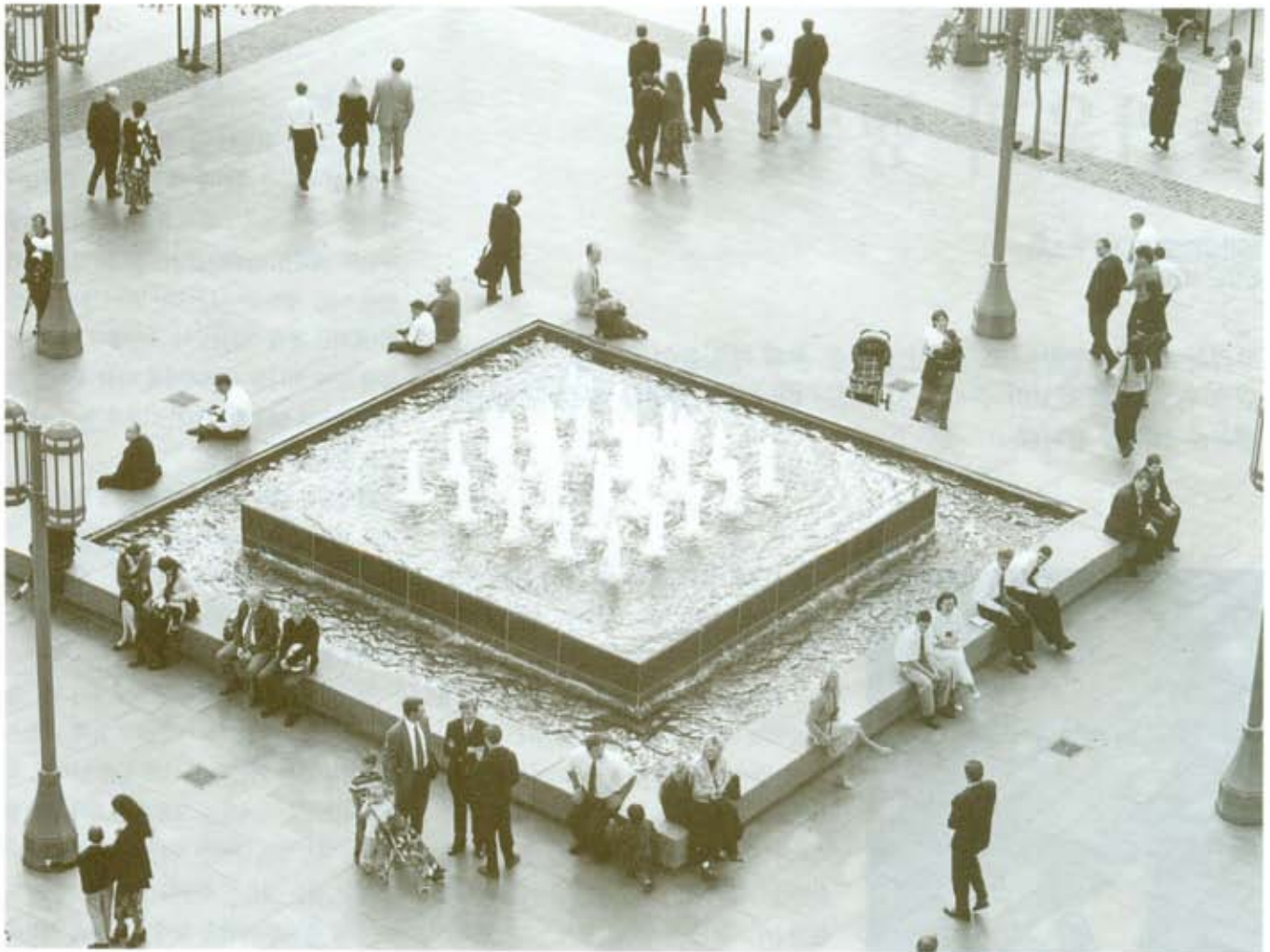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sup>5)</sup>

양심이라고 불릴 때도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정의되는 이러한 속삭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를 경우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나오는 그 빛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sup>6)</sup>

구세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울러 이 은사를 "보혜사 곧 ... 성령성신"<sup>7)</sup>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 성신의 나타내심을 경험할 수 있으나 오직 그 은사는 침례 후 안수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sup>8)</sup>

서반구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된 이유를 알고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각기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성신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였더라."<sup>10)</sup>

그는 온전한 진리의 사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 보면 많은 결정들, 어떤 것은 당시에는 사소해 보인 것도 있었고 그 중요성 때문에 무척 고심했던 것도 있었던 그 결정들로 인해 성령의 속삭임을 거부했을 경우보



다 더 높은 영적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sup>11</sup>

이 영광스러운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나 영원하신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sup>12</sup>

“인간은 도무지 주님의 행하시는 바 만가지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주께서 계시하여 보이시기 전에는 주의 뜻을 인간들이 알 길이 없는 지라”<sup>13</sup>

논리와 지성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말로서는 알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자기 앞에서 순결하게 된 자에게 내리시는 성령의 권능으로써만이 보여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시는 것임이라.”<sup>14</sup>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은사에 관한 제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sup>15</sup>

구세주께서 바운티풀 땅에서 십이사도에 관해 아버지께 하신 다음과 같은 간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택한 자들에게 성신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였음은 나를 믿는 저들의 신앙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간구하옵기는 저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신을 내려 주옵소서”<sup>16</sup>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고 보혜사와 함께 함으로써 확신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17</sup>

이러한 진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조지 큐 캐넌, *Gospel Truths*, vol. Jerreld L. Newquist (1987년), 250쪽.
2. 모로나이서 7:16.
3. 요한복음 1:9.
4. 교리와 성약 84:46.
5. 교리와 성약 84:47.
6. 조셉 에프 스미스, *Gospel Doctrine*, 5th ed. (1939년), 60쪽 참조.
7. 요한복음 14:15~17.
8. 요한복음 14:26.
9. 조셉 필딩 스미스, *Answers to Gospel Questions*,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제5권. (1957~1966년), 2:154 참조; 또한 사도행전 2: 38, 8: 12~17, 19: 1~6.
10. 니파이삼서 19:9.
11. 모사이아서 3: 19, 모로나이서 7: 13 참조.
12. 앨머서 34: 9.
13. 야곱서 4: 8.
14. 교리와 성약 76: 116.
15. 시편 119: 105, 또한 *Answers to Gospel Questions*, 2:149~151쪽 참조.
16. 니파이삼서 19: 20~21.
17. 고린도전서 12: 3 참조, 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편(1976년), 243쪽.

# 즐거움과 행복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질십인 정권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 매일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명을 지킬 때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약 넉 달 전쯤에 콜롬비아 공화국의 수도인 보고타에서 봉사하러는 제명을 받아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루는 저의 새로운 와드로 가는 길을 잘 몰라 헤매다가 길을 물어 보기 위해 한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는 많은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그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특별한 빛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았으며, 햇빛과 자신들이 몰두하고 있는 놀이로 인해 뺨들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그 순수한 어린이들은 즐거운 시간 그 이상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저는 침례 받았던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 한 명이 제게 와서는 그 교회에서 찾은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난 참된 행복을 찾았어.” 그러자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없어. 그저 행복한 순간이겠지.”

제 친구는 즐거움과 행복의 차이를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행복한 순간”이란 사실 우리가 가졌던 즐거운 때를 의미했을 겁니다. 그 당시 제 친구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행복이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즐거움은 그저 지나쳐 가는 순간이지만 행복은 오래 지속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행복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즐거움과 행복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뒤져 보았습니다. 즐거움은 놀이, 기쁨, 유쾌함, 흥겹게 떠들, 유쾌함의 근원, 쾌활하게 행동하다, 명랑한, 종종 시끄러운 활동, 놀리다 등입니다. 행복은 만족, 즐거움,

기쁨입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이후 즐거움과 행복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침례 받기 전에 이미 배웠습니다.(니파이아서 2:9 참조) 이 계획을 통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성취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 영원한 행복의 상태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 이 두 가지는 다 좋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행복이란 가장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행복의 일부분이며,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했으며, 이 젊은이는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이 참된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그에게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그의 친구들이라 불린 사람들과 함께 보낸 모든 즐거움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나자, 그들은 모두 그로부터 등을 돌렸으며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상당한 고통과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심지어는 돼지도 먹으려 하지 않는 옥수수 껍질까지도 먹으려 합니다. 그는 먹고 남은 만큼의 충분한 빵을 지닌 자신의 아버지의 종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아버지가 고용하고 있는 종들처럼 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를 반성하고 자신을 특별한 아들로 맞이해 주는 의로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

측과 함께 보내는 소박한 삶이 바로 참된 행복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 모두를 위해 제정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모두는 축복 받으며 참된 행복을 알게 됩니다. 행복이란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켜 주거나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키워 주는 조그마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오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일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가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신의 속삭임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우리 생애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영을 느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가족의 팔에 안길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행복하며, 가정의 밤을 함께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 매일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옵니다. 우리는 니파이서서 2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 또는 다른 말로는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저는 이 행복을 수많은 교회의 회원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콜롬비아의 칼리라는 곳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 교회의 회원이자 참된 행복의 의미를 실제로 보



여 주는 매우 특별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비안으로 가족은 모두 교회의 회원이었으며, 그는 아주 어렸을 적에 이 행복의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가 세 살이던 1984년에 그의 가족은 복잡하고 분주한 거리에 인접한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많은 도시 버스가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린 파비안은 거리를 가로질러 가려다가 버스에 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덕분에 파비안은 그 사고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파비안을 세 군데의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다녔으나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구했으며 적절한 의료 시설을 찾자마자 파비안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소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 후, 의사들은 가족에게 파비안의 발과 다리에 난 상처가 너무 광범위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어린 파비안은 그 때부터 한 발로만 살아야 하는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몸의 균형을 잡게 되고 목발을 짚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학하여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놀리기도 했지만 그는 곧 자신을 놀리는 그러한

농담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체육 활동에 참여하길 원했으며 또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승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언제나 용감했으며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재 파비안은 스테이크 청남 회장단의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고 있으며, 학생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구와 축구도 즐깁니다. 또한 종교 교육원의 친구들과 함께 탁구도 칩니다. 자전거 타기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빈곤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재단에서 자원 봉사자로서 영어를 가르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파비안은 그의 온 힘을 다해 친구들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넘쳐 흐르며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비안은 정말로 행복한 젊은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과 신뢰로부터 오는 엄청난 힘으로 인해 그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복은 매일을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데서 옵니다. 그는 제게 모사이아서 2장 41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더욱더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

# 시온에 모두 오라!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사랑, 일, 자립 및 헌납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을 다스릴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회원들을 만나면서 생각하게 되는 한가지 보편적인 난제는 꼭 해야 할 일을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사람은 생활용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우아한 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난제는 아쉬움만 남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탓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칫 세상적인 일을 따라가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은 시간과의 투쟁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의 투쟁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 까다로운 결정 사항에 속합니다. 1872년 예언자 브리감 영은 성도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멈추고 잠깐 기다리시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 전에, ...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유혹과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그 날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유일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있으시지요? ... 저는 오늘 말일성도들에게 이 같은 권고를 드립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멈추십시오. ... 여러분은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임에 충분히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전도 충분히 읽지 않고 있습니다. 묵상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언제나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부터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십시오. ... 저는 단순한 한 마디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정 생활에 관계되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릴 때, 음식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sup>1</sup>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복음 계획을 이용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또는 시온과 의를 세우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sup>2</sup>

남부 유타에서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내던 당

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법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이다. 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이 진실함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엘마서 4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며, 그분의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진실로 행복하게 되기를 권고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이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권고에 귀기울이는 것임을 압니다.

저의 간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며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사를 위해 그분의 소중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껍이 행복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안내, 그리고 이 생과 다가올 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리에 대한 제 간증의 일부이며 그것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시, 저는 현재 알고 있는 것만큼 시온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온 국립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찬송가를 종종 불렀습니다.

애똥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시네  
 바빌론도 무너지고 모든 탑도 헐리리  
 주의 진노 있기 전에 시온에 모두 오라  
 주의 진노 있기 전에 시온에 모두 오라

어린 소년 시절에 저는 마음 속으로 국립공원의 장엄한 절벽과 우뚝 솟은 뾰족한 산봉우리를 보았습니다. 높은 성벽처럼 꺾이지는 듯한 협곡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강물은 때로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때로는 성난 폭포수처럼 요동치며 흘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제가 국립공원의 낮익은 주위 경관과 찬송가 가사를 연관시키고자 할 때 경험했던 혼란스런 기분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상상은 역지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아무튼 시온은 장엄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인상이 제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해력이 커졌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므로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기뻐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 ..."4

시온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모든 회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시온을 세우려 할 때, 시간 타령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숭고한 대업에 참여할 때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개인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은 잠시 묵었다가 가는 호텔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 자체도 변화됩니다. 시온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멈추고 차별과 증오가 사라지며,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변동, 우상숭배 및 온갖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였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을 것입니다.5

고대의 예언자인 예녹은 백성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녹의 백성들도 증오, 악, 전쟁 및 유혈로 얼룩진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6

위에 인용한 성구에서 "이"이라는 말을 특별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세워지고 번성하는 것은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생활을 하며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는 유덕한 성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시온을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시온에 모두 오라'는 말의 뜻은 와드, 지부, 선교부, 스테이크로 와서 시온을 건설하는 일을 도우라는 것입니다."7 따라서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모인 말일성도들은 주님의 재림8에 앞서 "우리의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9으로서의 시온을 가져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헝클러 대관장님은 다음의 얘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동기는 일상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했던 동기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 시온을 건설하는 일입니다."10

"예언자들이 말씀하였으며 주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하신 시온을 우리가 세우려면, 우리들은 파괴적인 이기심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안락과 안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노력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11

신권 사회에서 가장 높은 반치에 속하는 교리 중에는 사랑, 봉사, 일, 자립, 청지기의 직분, 헌납이 있습니다.12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시온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sup>13</sup>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더 큰 사랑과 헌신의 불꽃이 피게 됩니다. 시온에서는 “모든 자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합니다.”<sup>14</sup>

두번째는 일입니다. 일은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인 수고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고”<sup>15</sup> 행복, 자존심 및 번영은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리 체제에서는 속이거나 욕심을 부릴 여지가 없습니다. 일은 포괄적이며 거룩한 목적을 지닌 정직한 수고이어야 합니다. “시온의 일꾼들이 시온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리니, 저들이 금전을 위해 일을 하면 멸망당하겠음이라.”<sup>16</sup>

세번째는 자립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의지와 안전에 앞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준비를 하고 자립을 하며 독립을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sup>17</sup> 풍요로운 시기는 신중하게 생활하고 비축을 할 때입니다. 빈곤의 시기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비축한 것을 꺼내 쓰는 때입니다.

“창된 말일성도라면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에 대한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인도와 자신의 노력으로써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필요 사항을 자신과 가족에게 충족시킬 것입니다.”<sup>18</sup>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우리가 지닌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신 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것들을 우리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데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립하게 되는 것입니다.<sup>19</sup>

마지막으로 헌납이 있습니다. 헌납의 성약은 희생을 전제로 하며 사랑, 일 및 자립을 요구합니다. 이 성약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sup>20</sup> 헌납의 성약은 해의 왕국의 율법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온전히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헌납이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또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바치는 것”<sup>21</sup> 포함합니다.

사랑, 일, 자립 및 헌납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을 다스릴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 사회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와 조화는 만방에 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 건설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예언자, 제사장 및 왕들이 특별한 기대를 갖고 주목했던 주제입니다. … 우리는 다만 말일의 [시온의] 영광이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참여하며, 보면 되는 것입니다 … 이것은 암흑의 권세를 파하고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업입니다.”<sup>22</sup>

저는 이러한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요셉 스미스 2세가 그랬던 것처럼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말하며 아름다운 시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Deseret News Weekly*, 1872년 6월 5일, 248쪽.
2.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
3. “예몽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
4. 교리와 성약 97:21.
5. 니파이사서 1:16 참조; 또한 니파이사서 1:16-18 참조.
6. 모세서 7:18.
7. 대회 보고, 파리 지역 대회 1976년 3쪽.
8. 교리와 성약 105:32; 또한 68:25-31; 82:14; 115:1-6 참조.
9. 교리와 성약 65:2, 6 참조.
10.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69쪽.
11.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64쪽.
12. 스펜서 더블류 김볼, “And the Lord Called His People Zion.”
13. 마태복음 22:37-40.
14. 교리와 성약 82:19.
15. 모세서 4:25; 또한 창세기 3:19 참조.
16. 니파이사서 26:31.
17. 교리와 성약 78:13-14; 38:29-31 참조.
18. 스펜서 더블류 김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시니”, 성도의 빛, 1984년 12월호; 또한 디모데전서 5:8 참조.
19.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복지에 대한 지도자 지침 (복지 지침서, 1990년), 5쪽.
20. 교리와 성약 105:5.
21. *Ensign*, 1984년 8월호, 4쪽; *Tambuli*, 1984년 12월호, 7쪽.
22.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편(1976년), 217쪽.

# 아빠, 깨어 있으세요?

에프 엘빈 하몬드  
찰십인 정원회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아버지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 장로님과 콘디 장로님, 그리고 제가 대관장단과 만났습니다. 저희가 방에 들어가자 형클리 대관장님은 저희를 주의 깊게 보신 후에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허약해 쉰 세 노인들이 어떻게 이 교회의 청남 회장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대관장님이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청남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이란 소책자에 관해 기뻐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소책자는 전세계의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축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달성할 요건들은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을 능력의 한계까지 이끌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목표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훌륭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회 전역에서 굉장한 흥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저는 독자인 아들을 그에게는 첫 번째 캠핑이 될 낚시 여행에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아들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험곡은 가파르고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낚시는 잘되었습니다. 미끼로 쓸 고기를 낚시 바늘에 끼워 낚싯대를 아들의 손에 넘겨 주면 그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멋진 송어를 낚아 올렸습니다. 늦은 오후의 그들과 서늘함 속에서 우리는 까마득한 험곡의 정상에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아빠, 누가 빨리 정상에 올라가는지 내기해요." 하며 산 위로 재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도전의 그 목소리는 들었지만, 짐짓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들의 작은 몸이 말 그대로 모든 장애물 위로, 아래로, 돌레로 날아 다니는 듯했지만, 제가 밟는 발걸음은 걸음마다 마치 마지막 걸음 같았습니다. 아들은 정상에 올라 제게 어서 올라 오라고 기운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며 하늘로 감미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큰 침낭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약간 밀고 당기고 한 끝에 아들의 작은 몸은 온기와 안전을 위해 제 몸에 바짝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들이 내 곁에 누운 것을 보면서, 돌

연 강한 사랑의 느낌이 제 몸을 타고 흐르며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들의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응, 아들이"

"깨어 있으세요?"

"그래, 아들이, 깨어 있다."

"아빠, 전 아빠를 백만 배, 천만 배 사랑해요!"

곧바로 아들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아들의 몸을 빌어 주어진 그 같은 훌륭한 축복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자신의 아들을 둔 성인입니다. 이따금 우리 세 명은 낚시하러 갑니다. 빨간 머리의 어린 손자가 제 아빠 옆에 선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의 눈으로 오래 전에 있었던 그 훌륭한 순간을 다시 봅니다. 천진난만하게 물었던 "아빠, 깨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여전히 제 가슴에 울립니다.

모든 아버지에게 "아빠, 깨어 있으세요?" 라는 진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아버지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아들들의 눈에 여러분이 "깨어 있는지" 또는 "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몇 가지 분야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정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임.** 수년 전에, 한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신권 소유자인 한 형제를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찾아갔을 때 그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찾아보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종인 하몬드 장로입니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처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눈 후에 그의 작고 아름다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 세 명을



불렀습니다. 잘생긴 두 명의 청년과 아름다운 청년이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장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교회에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필요로 하시며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간증을 전한 후에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교회에 잘 다닙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워하며 모두 행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에서 축복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위임하거나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과 경전 읽기와 가정의 집회를 주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이며, 수호자이며, 기강을 세우는 친절한 원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받아들이고 신권 권능과 관련된 부름과 특권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족을 이끌고, 단합시키고, 강화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는 아들들과 딸들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인도하는 동대입니다.

만일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아들들은 밤이 낮을 따르듯 아빠를 따를 것입니다. "아빠, 깨어 있으세요?"

**둘째: 우리가 아이들의 어머니인 아내와 갖는 관계.** 우리가 행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아들들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동반자에게 말로 학대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하는 죄를 짓는다면, 아들들은 그로 인해 아버지를 미워하며, 심지어 아버지를 경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들이 성장하여 결혼하면, 그들도 자신의 아내에게 똑같은 학대를 할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내를 존경하고 그들을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들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를 그녀가 영겁결에 행한 실수 때문에 가장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명칭하

다"고 말한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어떨지 당황해하며 두려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경시당했습니다. 비록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졌지만, 그 구분별한 순간의 상처와 부끄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냉담하고, 잔인하다면,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훌륭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존경하고 부드럽게 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quoted from Theodore Hesburgh, *Reader's Digest*, Jan, 1963, 25; in *Richard Evans' Quote Book* [1971], 11). "아빠, 깨어 있으세요?"

**셋째: 공정하고 사랑이 담긴 훈육을 제공함.**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우리 자신의 좌절감과 약점으로 인해 아이들을 때리려고 손을 듭니다. 대체로 이러한 행위는 우리 자신의 이기

적인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아이들은 훈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훈육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원합니다. 훈육은 방향을 세우며 자제력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든 훈육 속에는 의로운 판단과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미망인이 되셨던 어머니는 제게 가능한 한 가장 혹독한 훈육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게 정말 실망했다." 제 마음 속에 느껴진 고통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매를 친 대 맛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꾸지람이 오직 순수한 사랑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천사 같은 어머니가 저로 인한 실망과 애통으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결심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믿습니다.

훈육을 할 때, "아빠, 깨어 있으세요?"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려면 우리 삶에서 제가 언급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기꺼이 구세주를 섬기며 자신의 뜻을 굽히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영예롭고 존경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영원토록 우리 자녀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빠,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응, 아들아, 깨어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화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가정과 일상 생활로 돌아갈 때 이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연사들이 아주 잘 해 주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영감에 찬 것이었습니다. 음악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의 결과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더

친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뢰를 받기에 좀더 합당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 그리고 더 나은 할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이웃뿐 아니라 더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광된 복음의 훌륭한 면들에 대해 더욱 더 잘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말일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높이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내면에 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말일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관대하고 친절하며, 사려 깊고 참을성이 있으며, 유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임에 틀림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억누르거나 감추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전면에서 드러낼 수도 있으며, 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것이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일성도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우리가 본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고요하며 자랑치 않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실천해 온 복음의 아름다움에 관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 방법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좀더 조용히 다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통해 훨씬 더 쉽게 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제심과 자기 수양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어떠한 모욕이나 조롱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영을 키운다면

삶의 짐은 더 가벼워지고, 걱정은 줄어들 것이며 시련은 덜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가진 책임을 좀더 열심히 행합시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족은 교회의 기본 조직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부모와 자녀로서의 우리 회원들의 삶의 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와 고성을 내며 비난하고 흠잡는 일이 너무 많습니 다. 우리가 매일마다 느끼는 압박감은 엄청납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매일마다 지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집에 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일을 합니다. 그들도 역시 돈의 가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 스스로 대부분 좋지 않은 오락거리를 찾도록 방치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얼마나 잘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 누구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 특별히 부탁 드립니다. 잠시 멈추어 자기 자신이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얼마나 잘 완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도움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영의 속삭임에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지도력의 결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평화와 사랑의 영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화목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풍성한 축복에 대해 그분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힘차게 일어나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겸손히 기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축복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 씀드립니다. 아멘. ■

# 비디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 보니 디 파킨 자매

161년 전 말일성도들은 일리노이 주 나부 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주님의 집을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 년 후에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여성들을 위한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으며, 요셉 스미스는 그것이 교회의 조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들의 그 조직은 이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성전의 건축과 완성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 받은 조직 안에서 성약을 맺는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의 영적인 유산은 바로 이곳 “아름다운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부 성전은 우리가 성취한 것,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충실한 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의 명확한 상징입니다.

## 캐서린 에이치 휴즈

최초의 상호부조회 모임에는 단지 20 명의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몇 명은 심대 후반이었고, 몇 명은 새로운 개종자였으며, 몇 명은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고, 몇 명은 독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상호 부조회와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의 모든 자매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매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자매들은 자녀의 죽음, 식량의 부족, 가족의 배척, 핍박, 신앙의

부족 등과 같은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맺은 성약 때문에 그들은 서로 귀 기울이고, 서로 양육했으며, 서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 그리고 느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젊은 낸시 트레이시 자매가 받은 축복에서처럼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이 그분의 양들을 모으러 오셨을 때 그분의 메시지를 깨닫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sup>1</sup> 이 자매들의 결심과 개

종은 사랑과 동정 그리고 단합된 자매애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 앤 시 핑그리

우리의 초기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우리들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젊은이나 노인 그리고 이민자나 새로운 개종자들은 외롭고, 소외되고,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가득 찬 이 자매들은 앞으로 전진했으며,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해 자신들이 맡은 일을 행하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부족한 천을 기부하고, 천을 꿰매고, 일꾼들을 먹이고, 가족의 유물을 기증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병자와 노인을 간호하고, 심지어 성전의 휘장을 바느질 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적은 돈으로 음식과 옷을 사는 대신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못과 성전의 창문을 위한 유리를 샀습니다. 한 자매가 그녀의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의도로 현금을 내





려고 성전 사무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돈으로 현재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때 저는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저는 내게 단지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조각의 빵만 있다면, 이 돈을 성전 건축 기금으로 내겠다<sup>2</sup>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초기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주님의 집을 짓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정성껏 자신의 적은 돈을 넣는 것을 특권<sup>3</sup>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 보니 디 파킨

초기부터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고,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찾아내고, 탄압 받는 자에게 위안을 주며, 서로 서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기 자매들은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자신의 엔드우먼트를 받을 때 장차 있을 어려운 여행을 위해 필요한 화평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나부에서 주

남께서는 그분의 왕국 건설을 돕기 위해 나이, 교육, 수입, 언어, 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자매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하는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엄숙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영혼을 구하라"는<sup>4</sup>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최초의 요청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어깨에 팔을 얹고 짐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신앙을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초기 자매들 중 한 명이었던 지나 영이 상호부조회의 자매에 대해 했던 다음 말을 좋아합니다. "함께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곳에 있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은 기름이 그릇에서 그릇으로 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sup>5</sup>

자매 여러분, 이 곳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

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복원된 주님의 집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일에 그분의 왕국 건설을 도우라고 명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권을 존중하며 우리의 성약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앞으로 전진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확고히 선언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 주

1. Reminiscences and Diary of Nancy Naomi Alexander Tracy, Family and Church History Department Archive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74~75쪽.
2. Louisa Barnes Pratt, "Journal of Louisa Barnes Pratt," *Heart Throbs of the West*, comp. Kate B. Carter, 12 vols. (1939~1951년), 8:233.
3. Elizabeth Ann Whitney, as quoted in Jill Mulvay Derr and others, *Women of Covenant: The Story of Relief Society* (1992년), 51쪽.
4. *History of the Church*, 5:25.
5. Minutes of the Senior and Junior Cooperative Retrenchment Association, 3 Oct. 1874, Family and Church History Department Archive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 거룩한 마음으로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관용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우리의 성약을 영화롭게 합니다.



**물** 론 우리의 숫자가 초창기 나부의 상호부조회 자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지만, 우리 모임의 영은 그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서로를 고양하고, 양육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왕국에 바쳤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은 우리들을 "신앙과 선행의 엄청난 보고이며 ... 헌신과 충실함과 성취의 표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컨퍼런스 센터에 있든지, 멕시코의 예배당에 있든지, 리투아니아의 지부에 소속되어 있든지, 우리는 위대한 사업을 행해야 할 시온의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다 함께 그 사업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큰 축복인 제 보좌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 또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핑클리 대관장님이 저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르셨을 때 제가 느낀 당혹감이 너무도 컸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 뜻을 이해 하실 테죠?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한 유대인 친구가 제 부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는, 마치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니, 도대체 왜 그 일을 하려 하니?"(이런 경우엔, 종종 제 자신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으며, 그 성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것이며,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하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의로운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대업에 참여하기 위해 전진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수는 최근에 침례를 받았고, 여러분이 맺은 성약이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으며, 여러분의 희생은 아직 여립니다.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면서, 영국 윌트셔에

서 온 프리실라 스테인즈가 기억납니다. 프리실라는 19세가 되던 1843년에 홀로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이웃의 박해와 가족의 불만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그녀는 침례를 받기 위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40미터 정도 떨어진 시냇가로 갔습니다. 물이 공공 얼어 있었기에, 장로님이 침례를 집행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얼음을 깨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시냇가에 선 몇몇 증인들만이 저의 성약을 들었지만, 그 한밤중의 정숙함 속에서 모든 자연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고 기록의 천사가 주님의 책에 우리의 말들을 기록하는 듯했습니다."<sup>2</sup>

"하나님과 천사들 ... 만이 저의 성약을 들었다"는 그녀의 말이 제 영혼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프리실라와 같이—연령이나, 복음 지식이나, 어느 시대의 교회에 속했는가에 상관없이—우리는 모두 성약의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진정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약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약—또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결속력 있는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필수적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가르치십니다. 침례 시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듯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겠다고 성약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서 우리는 순종적이고, 이기심이 없고, 충실하고, 영예롭고, 자비심을 갖기로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기로 성약합니다. 신권의 권능을 통해 맺어진 우리의 성약을 지킨다면 축복들로 우리의 잔이 가득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약이 필멸의 삶 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해 준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성약을 맺는



것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성약을 지키는 것은 충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일을 때는 너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관용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우리의 성약을 영화롭게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취주악단의 반주 없이 조용히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평화를 가져다주고, 영혼을 양육한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 우리는 합당한 여성들의 성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삶을 사는 수많은 장로들과 자매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약을 영화롭게 하고 자녀들이 미래의 선교사로 성장하도록 가르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확대시킨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어머니와 자매들과 고모들과 이모들 및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약은 우리를 편안한 공간에서 나와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

하든지 [너희가 본대로]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sup>5</sup> 주님께서 그분의 성약을 지키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약은 우리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언자의 지시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빚을 피하며, 식품을 저장하고, 자립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의 수입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그 수준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절제, 비이기심을 가르쳐 주며,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평안을 가져다 주며,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등을 채운다”는 것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헌신을 선언할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한 성약은 피로에 지친 영혼에 힘을 주고 새롭게 합니다. 매주 일요일, 성찬을 취할 때, “항상 그를 생각하여”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문제 되는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 다음주를 향상시킵니까? 물론 우리는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변화하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 자매들이 나부

에서 쫓겨나 모든 여정을 걸으면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발이 심히 지쳤을 때, 그들의 성약에 의해 그들의 발이 옮겨졌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한 영적이며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약은 또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sup>6</sup> 되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약의 여성들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할 때 굳건히 섭니다. 대학 강의실에서건, 직장에서건, 텔레비전의 최신 “프로”들을 볼 때든지 간에, 우리의 성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릇된 길에 빠져 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약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전하고 준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에 있어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유년기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장에서 자라면서 알았던 행복한 날들을 지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헝클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 문제는,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일 테지만, 사람들의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진리가 가르쳐지고, 온전함이 자라나며, 자율이 몸에 배고, 사랑이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sup>6</sup>

자매 여러분, 주님은 자녀들에게 일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믿도록 가르칠 여성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자녀이건 다른 사람의 자녀이건, 우리는 일어나 기꺼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인도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을 사랑하도록 제가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는 듯이 보이는 때에도 성약을 지켜야 할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한 독신 자매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된” 경험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익히 들어온 이야기지요? 자기 성찰의 이 기간은 전직과 새로운 재정 문제, 세속적인 철학의 영향 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들어 보십시오. 악드에서 다른 자매들과 함께 앉아 있던 중에, 그들 또한 복음이 가져오는 평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권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부름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했고 더욱 온전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과 감사와 확신을 드리 고자 더욱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말 씀드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영원한 동반자가 문가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왔고, 삶이 더 나아졌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 생활의 지혜를 나눈다면, 참된 사랑을 품고 방문 교육을 한다면, 젊은 자매에게 그녀의 색다른 관점이 상호부조회의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약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843년에 개종한 젊은 영국인 개종자 프리실라가 대서양을 건널 때, 자신의 어머니 나이 짝 되는 여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자매 또한 그녀가 맺은 성약을 성취하라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배가 나부의 선착장에 정박했을 때 프리실라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담대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성도들과 합류했습니다.

우리의 성약을 지키는 영적인 고결성은 경전 공부, 기도, 봉사 및 회생을 계속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한 단순한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여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도울 수 있게 저를 보내소

서. 힘겨워 하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저를 보내소서. 비회원을 사랑하게 저를 보내소서. 저를 필요로 하실 때 저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소서."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거룩한 마음"<sup>10</sup>으로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성약의 삶이 가져다 주는 산물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가사가 제게 주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거룩함도 더욱  
노력함도 더욱  
인내심도 더욱  
죄에 비통과  
주님 생각 더욱  
신앙도 더욱  
기쁨 소망 더욱  
허락합소서”<sup>9</sup>

거룩함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프리실라 스테인즈가 한밤중에 그 얼어 붙은 강물에서 성약을 맺었을 때,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발을 내딛었으며, 그녀의 웃은 거의 얼어 붙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따듯했습니다. “되돌아가는

일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생의 보상을 얻기 위해 발을 내딛었다.”<sup>10</sup>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 전세계의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함께 저는 우리가 성약의 여성으로 단합하며 대관장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수많은 언어로 상호부조회 자매 각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결속해 주는 각자의 성약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성결하게 하며,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7쪽.
2. Edward W. Tullidge, *Women of Mormondom*, 에서 인용, (1877년), 287쪽; 또한 285~286, 288쪽 참조.
3. 니파이산서 27:21.
4. 교리와 성약 20:77, 79.
5. 에베소서 4:14.
6.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8쪽.
7. Tullidge, *Women of Mormondom*, 289쪽, 291쪽 참조.
8. 교리와 성약 46:7.
9.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1장.
10. Tullidge, *Women of Mormondom*, 288쪽.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회중과 함께 노래 부르는 자매 합창단

# 성약을 통해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만일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가 받게 될 약속들은 위대합니다.



**자**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맺었던 성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충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재인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를 나타내기 위해 택했던 포스터를 보는 기회를 가졌기 바랍니다. “도착하는 개척자”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어머니요, 아내요, 존경 받는 화가인 미너바 타이처트 자매가 그렸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여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좋아합니다. 그

리고 우리는 특히 그녀의 가방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결코 보지 않지만, 그 가방은 제가 교회에서 보는 다른 가방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저도 그러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가방 속에는 경진, 공과 책, 병, 책, 종이 및 크레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매 여러분, 교회에 갈 때면 가방을 들고 가듯이, 은유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다른 가방을 갖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안에는 성약이란 우리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약의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약이 의로운 가족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로운 가족의 모습은 한 가지 만이 아니라 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로운 가족들은 양 부모가 있는 반면, 죽음이나 이혼으로 인해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 중 한 분만이 교회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로운 가족은 많은 자녀들 두고 있으며, 다른 가족들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자녀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그들의 인생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독신으로 지냅니다. 하지만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사람이 한 가족입니다.”<sup>1</sup> 어떤 의로운 가족에는 아버지만이 밖에서 일하고, 또 다른

가족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의로운 가족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성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십일조, 교회 참석 및 지혜의 말씀과 같은, 복음의 율법에 관련된 성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이 결코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성약들은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 즉, 서로에 대한 우리의 윤리와 우리 몸과 관련된 품행 표준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도덕적 행위, 곧 정직, 존경, 고결성, 친절 한 말과 행동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이러한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말로써, 더 중요하게는 모범으로써 예의바른 훌륭한 행동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관련된 품행의 표준은 어떻습니까?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장과 외모와 순결에 있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핑클리 대관장님은 이 모임에 서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주 작고 어릴 때 가르치되,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sup>2</sup> 우리 모두를 위한 표준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흔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저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들을 둘러싼 모든 악한 영향력에 맞서 자신이 어떤 싸움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복장 표준을 갖고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숙함은 흔히 보다 심각한 도덕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쟁할 가치가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에



게 온몸을 감싸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으로 옷을 입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현명하며 놀라운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용납되는 복장인지를 설명하는 지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을 따른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이 옳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이 성적 행위에 관련된 주님의 기대를 이해하도록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결에 관한 표준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행위들을 정당화하며 세상의 행위를 본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지도 모를 난처함이나 불쾌함은 잠시 접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십대 청소년들과 솔직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용납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표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렇게 할 것이며,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드러난 위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슬프게도, 가장 좋은 필터조차도 저속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인터넷은 훌륭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는 그것과 다른 미디어의 영향에 관련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외설물은 너무도 널리 퍼져 있으며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표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성약은 영원한 결혼 성약입니다. 우리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가장 큰 책임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대회的主題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 드리는 약속이며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가 받게 될

약속들은 위대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한동안 그 부모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권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부모들은 반항적인 아들이나 딸들로 인해 변민하며, 부모로서 해야 할 바를 그토록 열심히 행해 왔는데도 왜 그렇게 속수무책인지 의아해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악한 영향력들이 언젠가는 다스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성전 결혼과 인봉 의식의 결봉의 가치와 그에 필요한 합당성의 표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성전의 제단에서 맺은 성약을 영원히 지킬 때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영원히 결봉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그 약속은 제게 참으로 큰 희망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밝은 가방을 팔에 굳게 쥐고, 확신을 갖고 여행을 해 나가시다. 하지만 가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은 빼놓도록 합시다. 무거울수록 우리 걸음만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만약, ... 이라면” 또는 “만일, ... 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sup>1</sup>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도록 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자신의 성약에 충실했기에 제가 몹시 사랑하는 한 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조 할머니이신 샬롯 게일리 클락 자매는 서부로 대이동에 앞서 나부 성전에서 성약을 받은 마지막 29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도록 강요 받았기 때문에 성전은 폐쇄되었지만, 합당한 모든 사람들이 아직 엔다우먼트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4대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부로 가족을 이끌고 가려 했으며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성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할머니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성약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손녀가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할머니의 충실함이 저와 제 가족을 축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모두를 축복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우리가 이 성약의 “가방”을 간직하고 우리 가족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신의 성약을 지키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 강화되고 축복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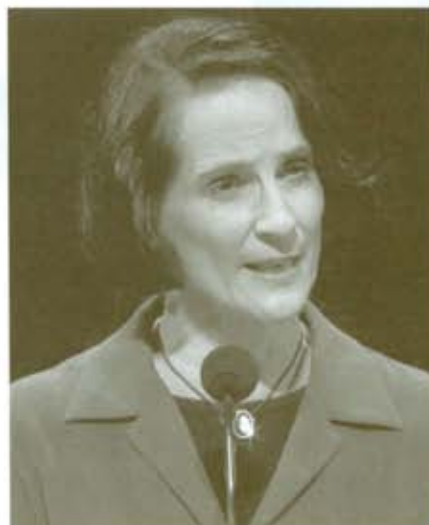
주

1. “Be a Quality Person.” 독신 성인 노변의 모임, 1992년 8월 30일.
2. “여러분의 가장 큰 과제, 어머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14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4. “우리의 도덕 환경” 리아호나, 1992년 7월호, 68쪽.
5. 시편 5:22.

## 사랑: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앤 시 핑그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성약의 여성으로서 ... 우리는 작고 단순하지만 순수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저는 독일의 동부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그 도시의 시민을 갈라 놓았던 악명 높은 장벽의 파편들이 속박을 이겨 낸 자유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물로서 보존되어진 채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조각 위에는 굵고 고르지 않은 붉은색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평범한 곳에서 많은 평범한 일을 하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 문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들어 올려주고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수고를 바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성약의 여성으로서 우리 각자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개종자이든 평생 회원이든, 독신이든 기혼이든, 이혼했든 과부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교육을 받았든 그렇지 못하든, 도시에 살든 멀리 떨어진 외딴 정글 마을에 살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약의 여성으로서 침례와 성전 성약을 통해 주님의 대업에 온전히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작고 단순하지만 순수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 한 번에 한 가족 한 가정씩 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하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하며 강한 사랑”입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사랑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상태 곧 존재의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사랑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 오직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자비로운 행위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매 궁극적으로는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본보기로서,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군중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것 외에도 예수

님은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와 그녀의 필요 사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sup>5</sup>

마리아에 대한 요한의 헌신의 깊이가 나타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는 구절은 저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사실상 작고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며 “우리의 가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귀찮게 구는 아기들, 도발적인 청소년들, 힘든 룸 메이트, 저활동인 배우자들, 혹은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부모님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이 일이 중요하거나 차이를 가져오는 걸까?”라고 자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구세주의 순수한 사랑을 가정에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아주 많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실한 자매님들은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궁휼히 여김”<sup>6</sup>으로써 차이를 가져옵니다.

차이를 가져오는 이러한 여성들은 누구입니까? 초기 나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 도시로 밀려드는 많은 새로운 개종자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식과 옷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세주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크넬 자매님은 우리 시대에 차이를 가져오는 성약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정신과 신체 장애를 지닌 47세 된 아들을 둔 80이 넘는 미망인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자매님은 몇 해 전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그녀의 아들 키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키스의 간절한 소망은 읽기를 배우는 것이었지만 의사들은 그녀에게 키스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앙과 아들의 생을 복되게 해주겠다는 소망으로 이 겸손한 미망인은 그녀의 아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물론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넬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것은 키스에게 어려운 일이었고, 저에게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났기 때문에 힘든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고, 단어 하나 하나를 배워야만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필로 단어 하나 하나를 짚어 주었습니다. 기나긴 7년 1개월의 세월이 지난 후에 키스는 마침내 물론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도움 없이 한 구절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 등 세계 전역에서 가족과 화합하는 사랑이 많은 여성은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또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트리니다드라는 작은 나라에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라모우타 자매와 그녀의 가족은 이웃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라모우타 가족은 ‘마약’이 판을 치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와 성인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었거나 마약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은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종종 어떠한 관리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도

가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3세에서 19세 사이의 30명 정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는 하나의 행복한 대 가족”이라고 알려진 그룹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라모우타 가족의 집 밖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 찬송가, 재미있는 노래 그리고 매주 어린이들이 행한 선행을 나누는 것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의사, 경찰관, 선생님 혹은 선교사들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여섯 가지 ‘우’의 기본 원리”와 같은 유익한 공과를 나누기도 합니다. 라모우타 가족은 작고 단순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어린이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행복한 대 가족”을 통해 복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상호부조회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의 로움으로 단결된 성약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압니다. 저는 엘마가 말했던 것처럼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것이 진실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작고 단순한 사랑의 일상적인 실천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우리의 확신의 선언입니다.

현세와 영원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임을 간증 드립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대업에 대한 저의 헌신과 그분이 저를 어느 곳에서라도 부르시면 항상 봉사하겠다는 저의 소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Bible Dictionary, 632쪽.
2. 모로나이사 7:48.
3.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야호나, 2001년 1월 호, 42쪽.
4. 고린도후서 3:3.
5. 요한복음 19:25-27.
6. 유다서 1:22.
7. 본부 상호부조회 사무실 공문.
8. 엘마서 37:6.

# 여러분은 모두 하늘에서 보내졌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자매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은 주님의 사업에서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양육자이자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니 벅찬 감동에 겸허해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힝클리 대관장님과 몬슨 부대관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합창단의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한껏 들뜨였습니다. 세인즈 자매님의 기도는 주님의 축복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갈망하는 간구였습니다. 보니 파킨 자매님, 캐서린 휴 자매님, 앤 핑그리 자매님의 영감에 찬 메시지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저는 힝클리 대관장님 및 몬슨 부대관장님과 함께 이들 세 자매님을 상호부조회의 본부 회장단으로 성별하고 축복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영감에 따라 그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신권의 지시에 따라 이 훌륭한 범세계적인 여성 기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

들 세 자매님 모두에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어진 축복들은 심오한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파킨 자매님을 성별하시면서, 자매님들에게 “예언자 요셉은 상호부조회의 과업을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경에 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보살피며, 여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요약했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주제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 짧고도 심오한 문장은 이 저녁에 제가 자매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잘 부합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자매님들이 기꺼이 나아와 봉사하려는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늘이 보낸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자매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은 주님의 사업에서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셨듯이, “사랑과 자비”를 지닌 양육자이자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제가 훌륭한 자매 여러분에게 느끼는 존경과 감사와 탄복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은 온정이라는 여성의 신성하고 특별한 은사를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과 순종과 사랑에 찬 봉사와 의로운 모범 앞에 겸손함을 느낍니다. 이 교회는 의로움 가운데 교회를 무한히 강화시켜 온 헌신적이고 충실한 여성들



이 없었다면 결코 그 사명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여성들은 오늘날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들이 겪었던 어려움들과는 다르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은 매우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여성들을 위한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어나는 기회들이 여러분의 숭고한 여성적인 손길을 거쳐 증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진실로 한계가 없습니다. 이 기구를 세우며 예언자 요셉은 "여성의 해방을 위한 열쇠를 돌려줬"으며, "그 열쇠는 전 세계를 위해 돌려"졌습니다.<sup>2</sup> 1842년에 그 열쇠가 돌려진 후로, 세계와 여성들에게 세계사를 뚫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위대한 여성 단체는 영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상호부조회의 기본 과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아주 간명하게 여러분의 과업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sup>3</sup>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단체가 네 가지 변함없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첫째,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여성 단체입니다

둘째, 상호부조회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셋째, 상호부조회는 그 기본 현장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토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입니다.

넷째,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영원한 우정을 확립할 수 있는 곳입니다.<sup>4</sup>

자매들이 18세가 되면 상호부조회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단체의 회원이 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과 함께 자선 봉사와 보살피는 일에 기꺼이 참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은 기본 교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공부하고 영성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교과 과정은 아내나 어머니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합합니다. 젊은 자매들을 포함한 모든 자매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켜야"<sup>5</sup>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는 여러분을 강화하며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영성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와 매우 가까운 한 젊은 여성이 다음과 같은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열여덟 살인데 우리 와드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상호부조회 회원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상호부조회에 가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친구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가 친 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데 그 연배의 자매님들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갖기 때 문입니다. 저를 안아 주시고 제가 어디에서 일 하며 여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기를 좋아하는 자매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

제나 제가 그 분들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 이라고 느끼게 해 줍니다. 와드 내의 할머니들 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삶을 풍성하게 하고 축복하는 새롭고 독특한 우정을 키워 왔 습니다. 저는 또한 연세 드신 자매님들이 주시는 교훈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다양한 곳에서 사셨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제게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더 나은 식견을 갖게 해 줍니다. 그분들 이 나누는 자신들의 삶에서 겪은 이야기들은 흥미롭고, 제가 그 교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상호부조회가 연령을 떠나 참으 로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sup>6</sup>

자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영향력은 놀랍게도 널리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심원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흔히 여러분의 그러한 능력은 세인의 주목을 받으며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조용하게 이뤄

지는 사랑과 친절의 행위들과 의로운 모범 속에서, 흔히 일 대 일 관계 위에서 이뤄집니다.

미망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관심이 경전 곳곳에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은 모든 편모에게도 미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음식과 의복과 기타 필수품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한 자매의 아들로부터 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어렸을 때 전업 주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싶어 하시는 곳은 가정이지만, 28년 전에, 다섯 살에서 열네 살 까지의 자녀 네 명을 둔 어머니는 급작스럽게 홀로 되어서 우리들의 생계를 위해 집 밖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양육하고 재정적으로 우리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한편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축복을 받은, 제 자신이 부모가 된 지금에 와서야, 당시 우리를 돌보느라 어머니가 겪었을 어려움과 상황들의 범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힘겹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 드렸더라면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몸소 모범으로 보이신 어머니의 희생에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나눴던 경험으로 인해 제게 특히 참됩니다.”

충실하고 의로운 많은 자매들이 결혼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이 신성한 사업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훌륭한 여성들은 부모, 형제, 자매, 조카들은 물론 다른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에게 자비의 천사로서 독특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진 독신 자매들은 참으로 뛰어난 봉사를 합니다.

유타주 센터빌의 마가렛 앤더슨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모범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독신 자매의 훌륭한 모범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연로한 어머니와 이모와 장애자인 여동생을 사랑을 다해 돌봐 왔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수백 명의 어린 이들을 이끌고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퇴직하여, 어린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자원하여 매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봉사 행위는 와드의 회원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한 어린 자매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가렛은 해마다 저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케이크에는 댄스나 축구와 같이 전년도에 했던 활동들이 프로스팅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선교사도 마가렛의 지갑을 받지 않고 빈 손으로 떠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상호부조회에서 경전 학자로서 훌륭한 재원입니다.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심부름을 하고, 성전까지 데려다 줍니다. 마가렛은 상냥한 주부입니다.

그녀는 달콤한 캔디를 만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다른 사람에게 즐겨 줍니다. 그녀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은 이 교회의 독신 자매들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 생애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합당한 신권 소유자에게 인봉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축복도 부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상에서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가정을 갖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고뇌를 알고 계시며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나부에 장엄한 신축 성전이 헌납된 후, 우리는 파킨 자매님과 휴 자매님과 핑그리 자매님,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자매님들에게 예언자 요셉이 1842년 3월 17일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부조회를 설립했던 장소인 나부의 붉은 벽돌 상점을 가 봤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모두 가 보았다고 파킨 자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세계 전역의 모든 자매들이 여성을 위한 주님의 축복들을 상속받으며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기억해 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쇠를 돌려니... 지식과 예지가 이 시간 이후로 흘러 내릴 것입니다.” 이 지식과 예지의 축복이 인종이나 국적이 상관 없이,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들어 왔거나, 1842년에 그 자리에 있었던 20명이 후손인 것에 상관 없이 모든 의로운 여성들에게 옵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천사의 성역을 행하는 자매들에게 흐릅니다.

저는 최근에 디히터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의 다음과 같은 심오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가족 혈통은 나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계보에는 개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교회 회원들 대다수가 그렇듯이, 저는 온 마음으로 나무의 성도들과 시온으로 향한 그들의 여행에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시온을 향한 제 자신의 종교적인 길을 개척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19세기 개척자들에 대한 제 마음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그들은 국적이거나 언어나 문화에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 각자에게 그렇듯이 제 자신의 영적인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서부에 안전한 장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주님의 왕국을 세울 영적인 토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결혼한 자매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매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평화와 행복의 피난처로 만들고 계십니다. 의로운 남편은 신권의 소유자이며, 신권은 가정을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권이 아니라 신권 소유자입니다.<sup>10</sup> 아내의 남편과 함께 신권의 축복을 나눕니다. 남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내의 신성한 지위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은 지난 4월 신권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의 동반 관계에는 열등이나 우월도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 가지 않고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옆에서 나란히 영원한 길을 걷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생애에서 재물을 얼마나 모았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명예를 이룩했는지에 대해 별로 언급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정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누구든 동반자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만이 영원한 재판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sup>11</sup>

감독단과 스테이크장단과 기타 신권 부름에 종사하는 남편들을 지지하는 아내들은 교회에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들은 남편들이 성도들을 보살피는 동안 가족과 가정을 돌봄으로써 조용히,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무대 뒤에서 봉사합니다. 제가 “조용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강하고 조용한 남성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남성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하는 아내의 힘이 어떠한지 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한 후로 제 아내 루스는 제가 지난 60년간 받아 왔던 수많은 부름에서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제 아내의 사랑 넘치는 지지가 없었더라면 단 하루도 봉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아내를 깊이 사랑합니다.

제 선교사 동료 중 한 사람의 미망인인 에피 디 바우만 리치 자매는 가족과 두 개의 사업체로 인해 매우 바쁩니다. 더구나, 그녀는 한 대가족의 어머니요, 할머니요, 증조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에, 이처럼 다양한 역할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아내입니다!” 물론,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수많은 사소한 일들을 훌륭한 아내처럼 의롭고 따뜻하게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모두는 램프에 기름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식 만찬에 초대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 기억합니다. 다섯 처녀는 현명하여 신랑을 찾기 위해 램프에 기름을 채워 준비하였고, 다른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 처녀 모두가 램프를 손질했지만, 그 중 다섯은 충분한 기름을 갖지 않아 기름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지나기 위해 모두 램프에 불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랑을 맞아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의 비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비유 속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가르침을 받고,



창문 안쪽에 방문 중인 세 자매의 배경에 컨퍼런스 센터 외부의 폭포가 보인다.

일생동안 경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를 바 없게 보였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전혀 예기치 못했을 때, 신랑이 찾아 왔습니다." 램프의 불이 꺼진 다섯 처녀는 필요한 기름을 얻고자 급히 나갔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연회장의 문이 이미 닫힌 후였습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 줄 것을 청했지만, 영적인 준비는 한 순간에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랑이 반겨 맞는 신부들도 없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자신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 김볼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기름은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준비해야 할 기름은 의로운 생활 속에서 한 방울씩 모아집니다.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수년간 한 방울씩 램프에 기름을 더할 것입니다. 금식과 가족 기도, 가정 복음 교육, 육체적 욕구의 통제, 복음전파, 경전 공부-이와 같은 각각의 헌신과 순종의

행위는 우리들 램프에 더해질 기름 방울입니다. 친절의 행위, 헌물과 십일조를 바침, 순결한 생각과 행동, 영원한 성약 안에서의 결혼,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한 밤중에 우리의 고갈된 램프에 채워 넣을 기름 방울에 크게 기여합니다."<sup>12</sup>

자매 여러분, 주님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 보내어 질 준비가 되고 자격이 갖추어지도록 램프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대체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59년간의 가족 생활에 기초를 둔 제 간증은 제 아내가 상호부조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풍부한 영성과 화합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끄는 조직은 그녀의 삶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상호부조회에 참여함으로써 램프에 기름을 채우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우를 겪어내게 하고, 필멸의 생애를 여행하는 가운데 필요로 하는 안정과 끈기를 상당히 채워줄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이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되고 성별되신 후에 가진 첫번째 기자 회견에서, 누군가가 대관장님에게, 일을 해야 하고, 또한 가정과 가족의 많은 요구 사항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머니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가진 가장 위대한 자신은 여러분이 이 지상에 데려 왔고 그 양육과 돌봄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자녀들 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sup>13</sup> 오늘 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잘 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타고난 영적 은사를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십시오. 우리 삶에, 가정에, 교회에 창궐하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물리치도록 도와 주십시오.

니파이의 약속이 여러분에 의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크신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였느니라"<sup>14</sup> 저는 제 아내 루스와, 그리스도 같은 어머니, 신앙심 깊은 할머니들의 사랑에서 제 인생에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년), 226쪽.
2. 조지 엘버트 스미스, *Relief Society Magazine*, 1945년 12월호, 717쪽; 또한 *History of the Church*, 4:607 참조.
3. *History of the Church*, 5: 25.
4. 교리와 성약 130:2 참조.
5. 모로나이사서 6:4.
6. 개인적인 서신.
7. 브래드 앨런이 보낸 개인적 서신.
8.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만인을 위한 교회", *성도의 빛*, 1990년 8월호, 43쪽.
9. *Minutes of the Female Relief Society of Nauvoo*, 1842년 4월 28일.
10. 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Hyrum M. Smith and Janne M. Sjodahl, *The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개정판, (1951년), 759쪽.
11.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0쪽.
12.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년), 255-256쪽.
13. 기자 회견 시황과 대본, 1995년 3월 13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보부 제공.
14. 니파이일서 14:14.

#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2002년 10월 5~6일에 개최된 제172차 반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한,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그 일의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말일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후에 신성한 권능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업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며 그 사업은 "사도와 예언자들의 ... 기초"(에베소서 2:20) 위에 세워졌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 세대를 통틀어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가 경청만 한다면 이와 똑같이 "나를 따르라"는 권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 모두 "꼬마 기관차"처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몸집이 크지도 않고 차량 교체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산을 한 번도 넘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기관차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 꼬마 기관차는 주저않은 기차에 몸을 걸고 산꼭대기를 칙칙뚝뚝 오른 뒤 그 산을 내려가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도 오른 적이 없는 산들을 올라야 합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회복의 예언자였음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오늘날 전세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관리하는 영감 받은 지도자이십니다. 그 분이 이 사업을 진전시키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 그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소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어 옮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5:32; 87:8 참조) 비록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내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빌립보서 4:7 참조) 여전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테지만, 우리는 니파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일조를 순종적으로 바친다면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며, 그 신앙은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슬픔을 겪으며 인생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를 지켜 줄 것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드루프 장로, 칠십인회장단:** 저는 19세기 개척자 가운데 조상은 없습니다만 그들은 국적, 언어 혹은 문화에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그러하듯이, 저의 영적인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서부에 안전할 장소를 건립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한 영적인 기초를 놓았습니다.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 칠십인회장단:**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달에 한 일요일을 정해 두 끼를 금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금식하여 절약된 돈을 교회에 바쳐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



# 2003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네** 번째 일요일에 갖는 벨기세데 신권 및 상호부조의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 매년 대관장단은 이 모임에서 사용할 참고 자료를 지정하고 열 가지 주제를 정한다. 다음은 2003년을 위한 주제와 지정된 참고 자료이다. 스테이크장단 또는 지방부장단은 추가로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한다.

네번째 일요일 모임의 토론은 지정된 자료를 가운데서 정원화나 그룹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사정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한 가지나 두 가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교사들이 참고 자료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 모임이 강의나 발표 시간이 아니라 토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정원회 및 그룹 회원들에게 토론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동기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원회 또는 그룹 토론을 준비하고 이끄는 것에 관한 제언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과 교수법 지도서에 나와 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희망**  
 마태복음 27:11~61; 누가복음 22:39~46; 요한복음 20:1~22; 엘마서 34:8~18; 42; 교리와 성약 19:1~20.  
 제임즈 이 파우스트,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22쪽.  
 델린 에이치 옥스, "우리 생활에서의 복음",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6~39쪽.  
 조셉 비 워스런, "Follow Me,"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5~18.  
 "속죄", 복음 원리, 제12장.
- 2. 십일조와 헌금의 목적**  
 말라기 3:8~12; 교리와 성약 64:23; 119:1~4; 120:1.  
 고든 비 헝클리, "우리는 신앙으로

- 생활합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0~82쪽.  
 제프리 알 홀런드, "물댄 동산처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37~39쪽.  
 "십일조와 헌물", 복음 원리, 제32장.
- 3. 기도**  
 마태복음 6:9~13; 7:7; 엘마서 7:23; 교리와 성약 93:49.  
 토마스 에스 몬슨, "그들은 기도하고 갑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4~57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기도라는 구멍 뚫음",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69쪽.  
 헨리 비 아이어링, "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6~19쪽.  
 "개인 및 가족 기도", *말일성도 여성상 제2과정*, 제34과.
  - 4. 기운을 내십시오**  
 요한복음 14:27; 16:33; 니파이서서 4:16~35; 10:23; 교리와 성약 78:17~22.  
 고든 비 헝클리,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1~102쪽.  
 토마스 에스 몬슨, "지금이라도 그때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8~71쪽.  
 엠 러셀 벨라드, "왕국의 평화로운 것",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98~101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복음 원리, 제18장.
  - 5.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강화시킵시다**  
 마태복음 22:35~40; 누가복음 22:31~32; 모사이아서 23:15; 교리와 성약 88:123~125; 108:7.  
 고든 비 헝클리, "손을 내밀어 들어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0~67쪽.  
 보이드 케이 캐커, "어린이",



-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10쪽.  
 엠 러셀 벨라드, "포용의 교리",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40~43쪽.  
 "사랑, 자비, 봉사",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 제8과.
- 6. 신앙으로 생활함**  
 히브리서 11; 엘마서 32:16~23; 이더서 12:4~22, 27.  
 고든 비 헝클리,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0~82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우리 예언자들의 신앙",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4~27쪽.  
 러셀 엠 넬슨, "굳도다 그 기초",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3~86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 제1과.
  - 7.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함**  
 마태복음 25:14~30; 모사이아서 3:19; 5:12~13; 교리와 성약 76:50~70.  
 제임즈 이 파우스트, "큰 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53~56쪽.  
 닐 에이 맥스웰, "내가 행한 일을 성결케 하시리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9~42쪽.  
 조셉 비 워스런, "한 발 한 발",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7~30쪽.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2과정*, 제35과.

- 8. 쉽게 성내지 않음**  
 누가복음 15:11~32; 고린도전서 12:1~27; 니파이서서 26:24~28; 니파이삼서 11:28~30.  
 토마스 에스 몬슨, "숨겨진 폐기",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9~22쪽.  
 제프리 알 홀런드, "또 다른 탕자",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9~72쪽.  
 "용서하고 용서받음",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2과정*, 제33과.
- 9. 새로운 개종자들을 강화시킵시다**  
 마태복음 25:31~46; 누가복음 15: 모사이아서 2:17.  
 리처드 지 스코트, "완전한 개종이 가져오는 행복",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6~28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잠원 친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9~32쪽.  
 "우정 증진: 신권 책임", *하나님의 의무와 축복 제2과정*, 제10과.
- 10. 영의 인도에 따라 살**  
 창세기 37: 39~45.  
 엘 롬 페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42~45쪽.  
 로버트 디 헤일즈, "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7~80쪽.  
 "성신의 은사",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 제4과. ■

##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계획할 때, 자매님들의 필요사항을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적절하다면, 이러한 모임에 부모의 역할 및 가족 관계에 관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과를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가족 지도서(31180 320)와 결혼 및 가족 관계 교사 교재(35865 320)를 참고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들은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발표	소규모 그룹 반 주제를 위한 아이디어**
<b>영적인 발전</b> (교리와 성약 8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전 예배</li> <li>• 개인 기도 및 경전 공부</li> <li>• 안식일 준수 (교리와 성약 59편 참조)</li> </ul>
<b>가사 기술</b> (잠언 3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 요리, 식물 보존</li> <li>• 가정 조직 및 청소</li> <li>• 일의 가치</li> </ul>
<b>결혼 및 가족 관계</b> (말라기 4:6; 모사야서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li> <li>•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경전 공부</li> <li>• 육아 기술</li> </ul>
<b>유대 관계를 강화시킵</b> (마태복음 5:38~44; 2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소통 및 갈등 해소</li> <li>• 회개 및 용서</li> <li>• 효과적인 지도력</li> </ul>
<b>자립</b> (교리와 성약 88: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비축 및 비상 상황 대비</li> <li>• 교육 및 자원 관리</li> <li>• 건강 및 위생</li> </ul>
<b>봉사</b> (잠언 31:20; 모사야서 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및 이웃에 대한 봉사</li> <li>• 교회 내에서의 봉사</li> <li>• 지역 사회 봉사 활동</li> </ul>
<b>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b> (모사야서 4:27; 교리와 성약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과 영양</li> <li>• 스트레스 관리 및 여가 활동</li> <li>• 감사를 느끼고 주님의 축복 계단기</li> </ul>
<b>개인적인 발전과 교육</b> (교리와 성약 88:118; 130: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복사의 축복</li> <li>• 재능과 창의성 개발</li> <li>• 평생 교육</li> </ul>
<b>문맹 퇴치</b> (다니엘 1:17; 모세서 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음 지식</li> <li>• 개인 일지 쓰기 및 가족 역사 기록과 간증</li> <li>• 조기 어린이 교육과 어린이 도서</li> </ul>
<b>문화 예술</b> (교리와 성약 2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의 음악의 중요성</li> <li>• 문학 및 미술</li> <li>• 기타 문화 이해하기</li> </ul>

\*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위한 지침은 1999년 9월 20일과 대안양단 서한과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 소규모 그룹 반 주제를 위한 참고 자료에는 복음 원어 교재(31110 320)와 말실상도 여섯살 제1과절과 제2과절(31113 320, 31114 32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론 신권 교재 1용 참고 지도서

2003년에 사용함, 제1~24과

다음 자료(제1~24과는 대체 자료가 아닌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재에는 부활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 일요일에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차 대의 말씀, 교회 잡지 기사 및 찬송가 사용을 고려합니다.

### 제1과: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58~61쪽.  
제프리 알 홀런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6~49쪽.  
존 에이치 그로버그,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1~53쪽.

### 제2과: 아론 신권 소유자에 대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름의 의무",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57~60쪽.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7~60쪽.  
조셉 비 워스런, "성장하여 신권의 책임을 감당함", 리아호나, 2000년 45~49쪽.

### 제3과: 성찬을 집행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주님의 성찬을 이해함", 성도의 빛, 1989년 3월호, 8~14쪽.  
피터 비 가드너, "말 이상의 것",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28~29쪽.

웨인 비 런, "성찬을 전달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8~9쪽.

### 제4과: 금식 헌금을 모음

조셉 비 워스런, "금식의 법",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8~91쪽.  
얼 시 텅기, "지은의 미망인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4~76쪽.

"충성하신 주 은혜로", 찬송가, 138장.

### 제5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24쪽.  
닐 에이 맥스웰, "희망의 쟁기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2~74쪽.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 제6과: 성신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령과의 교풍",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7쪽.  
더글러스 엘 플리스터, "주님의 영을 구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8~39쪽.  
다니엘 케이 지드, "그리스도의 영: 어둠 속의 빛",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18~22쪽.  
"성령 인도하시어", 찬송가, 73장.

### 제7과: "마음의 놀라운 변화"

제임스 이 파우스트, "거듭남",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8~71쪽.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43쪽.  
스펜서 제이 콘디,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14~21쪽.  
"어둠에 싸인 밤에", 찬송가, 79장.

### 제8과: "너의 아버지를 존경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신앙의 기도", 성도의 빛, 1995년 3월호, 2~7쪽.  
프레이지 오우머어와 로리 리브시, "부친 자전",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38~39쪽.  
"사랑 넘치는 우리 집", 찬송가, 166장.

### 제9과: 어머니들과 그들의 신성한

**역할을 존중하라**

리처드 지 스코트, "여성의 존엄성",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3~45쪽.

세리 엘 듀,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아닌가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12~114쪽.

데인 엠 벌린, "함께 끌어 주며",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44~46쪽.

**제10과: 가족간의 조화**

데이비드 비 헤이트, "튼튼한 연결 고리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3~25쪽.

도널드 엠 홀스트롬, "의로운 전통을 양성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4~35쪽.

키말 볼 타벳, "아이들이 남긴 쪽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23쪽.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174장.

**제11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헨리 비 아이어링,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4~47쪽.

켈리 에이 하워드, "반드시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32~33쪽.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제12과: 살아계신 예언자를 따름**

엠 러셀 벨라드,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 들이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9~82쪽.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살아 계신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9~51쪽.

"예언자의 음성", 찬송가, 12장.

**제13과: 모든 회원은 선교사이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여러분의 선교 사업-영적인 모험",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12~16쪽.

엠 러셀 벨라드, "지금 바로 회개할 때라",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5~17쪽.

제프리 알 홀런드, "증인이 되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5~17쪽.

"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찬송가, 199장.

**제14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고든 비 헵클리, "손을 내밀어 들어 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0~67쪽.

엘 볼 페리, "봉사하는 것을 배움",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10~19쪽.

조지 플로어스, "날아오르는 의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26~28쪽.

후앙 시후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44~45쪽.

**제15과: 신권을 통한 단합과 형제애**

고든 비 헵클리,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0년 2월호, 2~5쪽.

델린 에이치 옥스, "율법의 더 중요한 바",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14~22쪽.

존 케이 카머, "사랑과 간증으로 하나가 되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2~94쪽.

**제16과: 사랑**

토마스 에스 몬슨, "동정심",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8~21쪽.

로저 테리, "지극히 작은자",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18~24쪽.

힐도 로실로 플로레스, "제리제 요리",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30~32쪽.

**제17과: 개인 일치**

"제상을 이기기 위하여",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26~27쪽.

**제18과: 지혜의 말씀**

고든 비 헵클리,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을 물리침",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2~6쪽.

제니 윌라드슨, "나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31쪽.

브래드 윌콕스, "위험한 질문", *리아호나*, 2000년 5월호, 32~35쪽.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제19과: 유혹을 극복함**

남 에이 맥스웰, "생상의 유혹",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3~46쪽.

존 비 디슨, "살이 고될지라도",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28~31쪽.

리처드 시 애즐리, "사탄의 스나이프 주머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2~53쪽.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80장.

**제20과: 자유 의지의 올바른 사용**

제임스 이 파우스트, "내부의 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4~57쪽.

글렌 엘 페이스, "기차 안에 머무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6~27쪽.

에프 엔지오 루시, "벗어나는 자유인가 갇히는 자유인가",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97~99쪽.

**제21과: 순수한 생각: 깨끗한 언어**

고든 비 헵클리, "충실한 신앙", *성도의 빛*, 1996년 9월호, 2~10쪽.

"성품의 형성: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영감의 말씀",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40~41쪽.

로버트 리 "로키" 크로크렐, "내 친구 '밀크셰이크'",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36~37쪽.

"학교에서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25~27쪽.

**제22과: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는 성약**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쪽.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의식과 성약",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6~23쪽.

키스 비 맥벌린, "약속이 따르는 초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5~77쪽.

**제23과: 인도를 간구함**

고든 비 헵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헨리 비 아이어링, "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6~19쪽.

헨리 비 아이어링, "저의 마음에 기록하여",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99~102쪽.

"고해 같은 인생길", 찬송가, 67장.

**제24과: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회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22쪽.

리처드 지 스코트, "화평과 기쁨의 길",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1~33쪽.

제이 이 잰슨,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14~17쪽.







## 청녀 교재 1용 참고 지도서

2003년에 사용함, 제1~24과

다음 자료(제1~24과)는 대체 자료가 아닌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재에는 부활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 일요일에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속죄, 부활, 생애와 사명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차 대회 말씀, 기사, 찬송가 사용을 고려합니다.

### 제1과: 하나님의 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의 의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20~124쪽.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46~47쪽.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 제2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24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22쪽.  
닐 에이 맥스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6~13쪽.

### 제3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

엘 톨 페리, "제자의 신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72~74쪽.  
캐롤 비 토마스, "희생: 영원을 위한 투자",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7~79쪽.  
켄 매달, "방문자",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46~47쪽.

### 제4과: 성신의 동반을 구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성령과의 교통",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7쪽.  
새론 지 라슨, "해의 왕국의 길잡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4~106쪽.  
다니엘 케이 지드, "그리스도의 영: 어둠 속의 빛",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18~22쪽.

### 제5과: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에서 기쁨을 찾음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청소녀에게 주는 메시지",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7쪽.  
휴 비 브라운, "까치밥 나무",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2~24쪽.  
마가렛 디 네이들드, "여성이 되는 기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7~19쪽.  
"오 높은 영광 보좌", 찬송가, 139장.

### 제6과: 지금 기쁨을 찾기

제임즈 이 파우스트, "행복의 추구",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2~8쪽.  
라차드 지 스코트, "의의 일 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0~17쪽.  
말린 케이 켄슨, "어떻게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리아호나*, 2000년 8월호, 20~23쪽.

제7과: 가사  
토마스 에스 몬슨, "행복한 가정의 표시",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2~9쪽.

마빈 제이 에쉬튼, "가족 재정 지침",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2~47쪽.  
비지니아 유 켄슨,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14~117쪽.

제8과: 우리의 신성한 역할에 관한 태도  
고든 비 힐클리,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2~115쪽.

제9과: 부모님을 존경함  
러셀 엠 넬슨,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라",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22~25쪽.  
본 제이 페더스트운, "항상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5~18쪽.

제10과: 가족 구성원들을 지원함  
토마스 에스 몬슨, "손", *성도의 빛*, 1991년 3월호, 2~7쪽.

제11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부  
러셀 엠 넬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6~88쪽.  
랜스 비 위크먼, "여러분의 미래",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2~24쪽.  
라라 뱅거터, "꿈에 그리던 이상향",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46~47쪽.

제12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2부  
리차드 지 스코트,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12~19쪽.  
스펜서 제이 콘디,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14~21쪽.  
베키 프레스코트, "변함없는 나의 친구",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47쪽.

제13과: 신권 소유자들을 지지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풍성한 삶을 얻음",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6쪽.  
엠 러셀 벨라드,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9~82쪽.  
데니스 비 노인슈타더, "살아계신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9~51쪽.

제14과: 가정에서의 가정의 지도력  
러셀 엠 넬슨,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0~83쪽.  
제프리 알 홀랜드, "아버지의 손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6~19쪽.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6~48쪽.

제15과: 벨기세데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제11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부  
러셀 엠 넬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6~88쪽.  
랜스 비 위크먼, "여러분의 미래",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2~24쪽.  
라라 뱅거터, "꿈에 그리던 이상향",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46~47쪽.

제12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2부  
리차드 지 스코트,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12~19쪽.  
스펜서 제이 콘디,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14~21쪽.  
베키 프레스코트, "변함없는 나의 친구",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47쪽.

제13과: 신권 소유자들을 지지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풍성한 삶을 얻음",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6쪽.  
엠 러셀 벨라드,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9~82쪽.  
데니스 비 노인슈타더, "살아계신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9~51쪽.

제14과: 가정에서의 가정의 지도력  
러셀 엠 넬슨,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0~83쪽.  
제프리 알 홀랜드, "아버지의 손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6~19쪽.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6~48쪽.

제15과: 벨기세데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제16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3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17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4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18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5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19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6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0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7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1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8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2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9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3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0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4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1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5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2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6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3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7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4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8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5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29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6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제30과: 자립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함, 제17부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은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0~9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신권의 은사",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5쪽.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58~61쪽.

토마스 에스 본슨, "신권 소유자: 주님의 강한 군대",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56~59쪽.

존 에이치 그로버그, "신권의 귀세",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1~53쪽.

### 제16과: 여성과 신권 소유자들

리셀 엠 넬슨,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5~48쪽.

리차드 지 스코트, "여성의 존엄성",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3~45쪽.

세리 엘 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3~15쪽.

### 제17과: 성약과 의식의 목적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쪽.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의식과 성약",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6~23쪽.

키스 비 맥밀런, "약속이 따르는 초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5~77쪽.

### 제18과: 성전 결혼-영원한 가족 생활을 위한 요건

보이드 케이 매커, "지극한 성전, 성도의 빛", 1992년 6월호, 14~23쪽.

레베카 암스트롱과 엘리사 르네 메드슨, "영원히 그리고 삼일 더",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6~7쪽.

알폰소 카스트로 바즈케즈, "나는 영원한 가족을 원해요", *리아호나*, 2000년 8월호, 26~28쪽.

"가족은 영원해", 찬송가, 189장.

### 제19과: 개인적인 기록들

델린 에이치 옥스, "지혜롭게 순리대로", 성도의 빛, 1989년 12월호, 118~23쪽.

태오 엠 루어슨, "주님이 내 눈을 열어 주셨을 때",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0~31쪽.

### 제20과: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펼침

고든 비 힐클리, "손을 내밀어 들어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0~67쪽.

엠 리셀 벨라드, "포용의 원리",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40~43쪽.

메리 앨런 스무트,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입니다",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04~107쪽.

"봉성하신 주 은혜로", 찬송가, 138장.

### 제21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로운 모범

제프리 알 홀런드, "증인이 되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5~17쪽.

카를로스 페레스, "모범의 힘",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46~47쪽.

"선한 영향 주는 삶", 찬송가, 173장.

### 제22과: 회개

리차드 지 스코트, "화평과 기쁨의 길",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1~33쪽.

제이 이 젠슨,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14~17쪽.

"구세주의 회개에 감사드리며",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6~27쪽.

"예수께 오라", 찬송가, 77장.

### 제23과: 용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거듭남",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8~71쪽.

보이드 케이 매커, "주님의 손길",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5~28쪽.

리차드 시 에즐러, "보라 이 사람이로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9~51쪽.

### 제24과: 기도와 명상

켈리 비 아이어링, "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6~19쪽.

켈리 비 아이어링, "저의 마음에 기록하여",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99~102쪽.

에시가 델린 살리나스,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8~10쪽. ■

## 주일학교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제1보좌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회장



발 알 크리스텐슨 장로  
제2보좌

## 청남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제1보좌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회장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제2보좌

##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제1보좌



보니 디 파긴 자매  
회장



앤시 핑그리 자매  
제2보좌

## 청녀



줄리 비 벅 자매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  
제2보좌

## 초등학교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제1보좌



콜린 케이 먼러브 자매  
회장



게일 엠 클러크 자매  
제2보좌



**리버티 감옥, 1838년작, 가도 오븐**

1838~1839년 겨울,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 그리고 네 명의 교회 형제들이 미주리 주 리버티에 소재한 리버티 감옥에 부당하게 투옥되었다. 이 극심한 역경과 고통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교리와 성약 121~123 참조)



일반 총회를 마감하면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의 결과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높이기를 요청합니다.”

